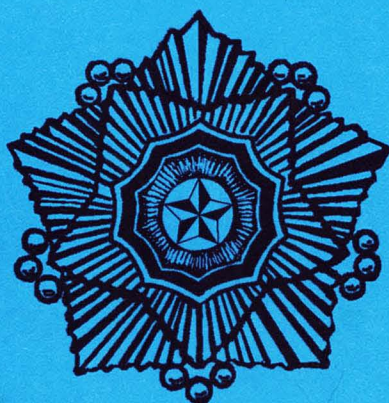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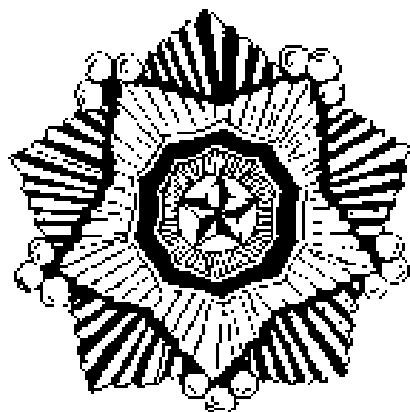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조선문학



1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1호

(루계 제 711 호)

차 례

| | |
|---|----|
| 새해의 축복 | 4 |
| 수령님생각 | 5 |
| 신년경축노래..... | 5 |
|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해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 | 6 |
| 아름다우라 2007 년이여!..... | 9 |
| 병사들은 보고 또 봅니다..... | 9 |
| 새해는 축원속에 밝는다 | 10 |
| 신묘한 전법에 걸려든 《토벌대》 | 11 |
| 정말 신통해 | 11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12 |
| 아, 사립문..... | 12 |
| 주체문학의 대강 | 13 |
| 어버이께 드리는 노래..... | 13 |
| 영원한 모습 | 14 |
| 백두에서 솟는 해를 바라보라..... | 14 |

| | |
|-------------------------------|----|
|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까 | 14 |
| 그리움의 꽃 | 15 |
| 우리는 빨찌산군가를 사랑해 | 15 |
|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이 되리 | 15 |
| 결사옹위 총폭탄은 갈 길을 안다..... | 16 |
|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을 따르며 | 16 |
| 알찬 열매를 | 17 |
|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 17 |
|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평론가로 준비해가겠다..... | 18 |
|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명작이 태어난다(2)..... | 19 |
| 벗을 찾아..... | 21 |
| 위대한 계승 | 33 |
| 새로운 서사시적화폭의 창조와 구성의 기교 | 37 |
| 용 서 하 시 라 | 42 |
| 나는 1 월을 사랑한다 | 42 |
| 고향으로 가는길 | 43 |
| 새해의 첫 전투는 들에서도 | 51 |
| 흰눈덮인 별우에서 | 51 |
| 거룩한 자욱 | 52 |
| 위대한 추억 외 1 편 | 54 |
| 취 침 나 팔 소 리 | 54 |
| 하 나..... | 55 |
| 탄과 정을 나눈다..... | 56 |
| 밝은 불빛 | 56 |

| | |
|--------------------------|----|
| 흔적은 사라져가도 | 57 |
| 첫눈 내린 강반에서 | 59 |
| 강산엔 눈이 내려 | 59 |
| 강반의 겨울풍치(1)..... | 60 |
| 강반의 겨울풍치(2)..... | 60 |
| 겨울..... | 61 |
| 여기 또 오라 첫눈이여 | 61 |
| 조선속담 | 61 |
| 발걸음소리 | 62 |
| 조국애로 고통치는 한 여성혁명가의 | 72 |
| 뜨거운 심장에 대한 노래..... | 72 |
| 한통의 편지가 주는 여운..... | 78 |

새해의 축복

김경기

기다리던 설날이 왔습니다
동방에 더 높이 솟아오르는
조선의 빛발에 황홀한듯
동해의 아침해는
담청색 바다물에 눈을 씻고 비비며
시그러이 바라봅니다

쉽없이 달려온 야전차바퀴에
행성은 더 빨리 한바퀴 돌아온듯
은빛채찍 휘두르며
설날은 백마라고 바빠도 달려온듯

무엇을 안고왔을가
무엇을 약속하러 왔을가
무엇을 보여주러 왔을가

아니보입니까
온 한해 뿌려온 선군총대빛발로
이 땅은 류달리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남달리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늘은 한결 더 푸르러지고
누리는 더더욱 밝아졌습니다

선군폭풍에 구멍뚫린 핵우산아래
원썹들은 몸둘바를 모른다 하라
불길과 폭풍과 핵섬광에
불타지도 찢기지도 찢리지도 않는
선군총대지붕아래
우리 생활엔 일년삼백에순다섯날
맑은 날만 있으려니

이해엔 더큰 행복 희망껏 설계하시라
젊은이들은 마음놓고 사랑을 약속하시라
건설자들은 더 화려한 집을 지으시라
과학자들은 최첨단으로 치달아오르시라

창가림을 활짝 여십시오
앞가슴 하얀 설까치가

까만 넥타йма고 꼬리춤도 즐거이
깅 깅 깅...
이해엔 기쁜 일만 기다릴거랍니다
반가운 손님들만 올거랍니다

우리 장군님
눈비란 눈비를 앞서 다 맞으시고
험령이란 험령 앞서 다 넘으셨기에
기쁨과 행복만이 약속된 설날입니다
승리와 희망만이 기약된 설날입니다

새해의 첫잔을 웃음속에 마주칩시다
온갖 험난한 고비 다 넘고
온갖 고난과 시련 다 이겨낸
승리자의 궁지 철철 넘치도록

동지들이여
우리 든 축배잔 더 높이 들시다
모든 승리에 시작을 준 선군을 위해
모든 불의에 종말을 준 선군을 위해
그 선군 오직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건강을 위해

선군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예속을 이기는 자주성의 힘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평화의 힘입니다
분열을 이기는 통일의 힘입니다
불의를 이기는 정의의 힘입니다

장군님의 선군총대지붕아래
내 나라의 하늘 땅 바다가 있고
장군님의 선군총대기둥아래
희망의 해가 뜨고 자유의 별이 뜨고
행복의 달이 뜨나니

총대우에 가는 해는 닐리리야 닐리리
기쁨과 행복만을 새겨놓고 갑니다
총대우에 오는 설은 쾌지나 칭칭
승리와 영광만을 가득 안고 옵니다

수령님생각

조영일

흰눈 내리는 만수대언덕
한손 높이 드신 우리 수령님
오늘도 그이의 어깨우엔
흰눈이 조용히 내려 쌓인다

내 발걸음 옮기며
삼가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니
이 가슴엔 생각도 깊어라
압록강을 건너지던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고많은 이 땅의 눈이
수령님의 어깨우에 내려졌던가

로야령의 험준한 산밭을 넘으시며
고난의 행군의 생눈길을 헤치시며
항일의 혈전장마다에서
빨찌산장군의 군복자락에 휘감겨
울부짖던 사나운 눈보라

해방의 봄빛아래
분여받은 토지를 그리안고
농민들 뜨거움에 두볼 적실 때
그 벌에 홀러들 눈물을 걱정하시며
저수지자리를 잡아주시던 그 밤에도
눈보라는 세차게 몰아쳤거니
최전선의 불바다를 헤쳐가실 때에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다지시려
공장과 어촌을 찾아주실 때에도
수령님 걸으시는 그 길우엔
따스한 봄빛보다
눈바람 몰아치던
그런 날이 더 많았어라

아, 인민의 머리우에
언제나 따스한 봄하늘만 펼쳐주시려
한평생 찬 눈비를 맞으시며
멀고 험한 길만 걷고걸으신 우리 수령님

정녕
세월의 눈비를 다 막아주신
그이의 어깨우에 떠받들려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것 아니던가
그 하늘을 행복의 지붕인양 이고 산 인민이여서
우리는 언제나 따스한 봄날속에 행복만을 누렸거니

오늘도 우리 수령님
송이송이 내리는 흰눈을 맞으시며
장군님 선군으로 꽃피우시는
내 조국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여라
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여

○가사○

신년경축노래

권오준

지나온 한해를 승리로 빛내고
새해를 맞이한 기쁨 끝없네
동무여 축배 축배를 들자
우리의 장군님 건강을 위하여

불타는 가슴에 신심은 드높다
희망찬 래일이 우릴 부른다

동무여 축배 축배를 들자
우리의 장군님 건강을 위하여

그이의 안녕에 우리 삶 꽃피고
휘황한 미래도 그 품에 있네
동무여 축배 축배를 들자
우리의 장군님 건강을 위하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해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길을 걸어온 때 년대들은 영웅적인 투쟁과 빛나는 위훈, 격동적인 사변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수놓아져있으며 사람들에게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강성대국의 려명을 긍지높이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에 들어선 우리 작가들은 선군의 기치 밑에 힘차게 달려온 지난해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면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올해에 보다 큰 창작적 양양을 일으킬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지난해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선군혁명위업수행을 다그치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한해였으며 문학부문에서 새로운 양양과 빛나는 결실이 이룩된 자랑찬 해였다.

지난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심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의 정세는 극도로 복잡하고 엄혹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미제와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선군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눈부신 양양과 혁신을 일으키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시였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 작가들은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민족적경사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것은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마련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해돋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벽찬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일편단심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전투적기상이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고 도시와 농촌이 사회주의 맛이 나게 더 잘 꾸러지게 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군사적위력

을 온 세상에 떨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으로부터 우리 조국의 안전과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우리 작가들은 조선작가동맹창립 6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조선작가동맹창립 60돐을 맞으면서 우리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더 높은 창작적성과를 이룩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오는 사회주의 이 강산에 펼쳐진 장엄하고 격동적인 사변들과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며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길만이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해 선군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세찬 투쟁에 발맞추어 작가들은 선군시대에 맞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으며 이 과정에 커다란 성과와 빛나는 결실을 이룩하였다.

작가는 시대의 기수이며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작가들이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야 시대와 력사앞에,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작가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며 아무 때, 아무 나라에서나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작가들이 혁명적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낼수 있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수 있다.

지난해에 우리 작가들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지난해에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낮에 밤을 이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도하시는 그 분명한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작품을 훌륭히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돌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을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으로도 내세워주시고 작가들에게 대를 이어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은 작가들에게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 창작적열정을 안겨주었으며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으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지난해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결실을 이룩하였다.

지난해 문학작품창작에서 거둔 성과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형상문학작품들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된것이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지상의 과업이며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워온 우리 문학은 지난해에도 수령형상을 창조하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의있는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 **《태양찬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가 성과적으로 창작된것이다. 수령형상창조에 바쳐진 이 장편소설들은 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과 령도업적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깊이 있게 형상화한것으로 하여 그리고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구체성으로 하여 커다란 미적견인력과 감화력을 나타내고있다.

지난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하는데 바쳐진 단편소설들도 특색있게 창작되어 선군문학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수령형상작품들은 시문학분야에서도 활발히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와 혁명활동,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동깊게 노래한 **《폭풍의 생애》**, **《붉은기의 천만리》**, **《조국의 인재가 되라》**, **《우리에게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다》**와 같은 큰 형식의 시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시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어 사람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선군혁명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창조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면서 현실을 여러모로 특색있게 형상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수없이 창작해내었다.

여기에서 특기할 성과로 되는것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발표된것이다. 불과 짧은 년간에 60여편의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이 지난해에 완결된것은 우리 문학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로 된다.

지난해에 선군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특색있게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소설작품들과 시작품들, 아동문학작품들, 영화문학을 비롯한 극문학작품들이 우수하게 많이 창작되어 선군혁명위업수행과 강성대국건설에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문학이 거둔 성과는 작가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생활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고 선군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때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낼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올해 우리 작가들앞에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강성대국건설에로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새해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과 영웅적조 선인민군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선군혁명총진군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힘있게 파시되고있는 오늘의 혁명적현실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해내며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새롭게 창조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 더 큰 힘을 넣으며 그 사상예술적품격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문학부문에서는 새해에도 수령형상작품창작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이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과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과 불멸의 혁명업적, 숭고한 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업적은 장군님의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한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보로 되고있다. 선군혁명명령도업적을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형상하며 선군문학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작가들은 선군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소설작품, 시작품들과 극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선군시대의 문학, 선군문학의 기초이며 지침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대결과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특성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총대의 위력, 막강한 정치군사적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실천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강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형상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은 선군문학의 본질적특성으로, 그 가치와 인식교양적역할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신념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어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생활하고있으며 선군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 우리 시대,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려면 선군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의 실천적경험은 선군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하는데 선군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화하여 선군문학의 사상예술성과 인식교양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히 실증해주고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격에

서 기본을 이루며 그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격적특질과 헌신적투쟁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잘 그려야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격을 훌륭히 전형화할수 있으며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 작가들은 그 어떤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든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데 큰힘을 넣어야 한다.

올해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내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전국문화축전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그 누구나 할것없이 지금 진행되고있는 문학축전에 우수한 작품을 내놓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창작능력과 실력을 과시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문학축전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이 되는 새해를 명작창작의 해로 빛내어야 한다.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하려면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잘하는것과 함께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작가의 실력의 높이이자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이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수준, 문화수준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선군시대는 철학적깊이가 있고 지성세계가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으며 이러한 작품은 작가들이 높은 실력을 지닌 조건에서만 창작해낼수 있다.

사실 실력의 빈곤은 창작에서 형상의 빈곤을 초래한다. 작가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지 않고서는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을 창작해낼수 없다.

작가들이 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높은 실력을 지녀야 정치사상적대가 뚜렷하고 형상성,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

문학부문에서는 올해 실력전,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교를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모든 작가들이 다재다능한 실력가로, 그 어떤 창작과제도 제때에 훌륭히 수행해내는 능력있는 작가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는데 선군문학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작가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새로운 창작적양양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를 명작창작의 해로 빛내이며 선군혁명위업의 완성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정웅

아름다우라 2007 년이여!

송재하

아름다우라
2007 년이여
뜻깊은 이해는
흘러온 세월도 부러워하리
흘러갈 세월도 부러워하리

이해엔
우리 아이들의 살오른 두볼이
얼마나 더 고와질것인가
거리의 물오른 가로수들은
또 얼마나 환희로 설레이고...

거창한 화력과 수력의 타빈들이
더욱 기운차게 돌아갈 이해
규격화된 사회주의 이 땅
드넓은 협동의 전야에 노래소리 흥겹고
번듯한 대학의 밝은 창가에
해빛도 아낌없이 쏟아질 이해

생각만 해도 심장은 높뛰어
마음은 벌써
붉고 푸른 축포가 쉼없이 오를
래일의 대동강기슭으로 달려가고
하늘땅을 뒤흔들며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일심단결의 긴 대오를 따라서거니

아, 망국의 어둠을 걸어 던지며
인민의 태양이 솟아올라 95 년
갈 길 잃고 광야로 흩어져가던
민족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며

승리의 총대가 빛을 뿌려 75 년

이 땅우에 그 어느 해인들
경사로운 날이 없으랴만
2007 년이여
너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경사로운 날과 달들로 흐르려니

아름다우라
정의와 진리로 존엄높고
신념과 의지로 붉게 타는
영원한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더욱 높이
더욱 세차게 휘날릴
너 2007 년이여

이해도 그 누구에게도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상을 다시한번 놀래우며
백두산대국
백두산민족으로
세기의 맨 앞장에 소리치며 나서리니

아름다우라
더 한껏 아름다우라
태양절 이날로 행복의 력사가 흐르고
건군절 이날로 승리의 세월을 당겨오는 조국이며
강성대국의 려명이 더욱 힘차게 타오르는
아, 2007 년이여 !

◎가사◎

병사들은 보고 또 봅니다

홍민식

어머니의 살뜰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속깊은 믿음입니다
장군님 우리 초소 찾으시여 찍어주신
아 꿈같은 기념사진
병사들은 보고 또 보며 그 사랑에 목메입니다

달아주신 용맹의 나래입니다
줘해주신 필승의 보검입니다
장군님 우리 모두 한품에 안아주신

아 행복의 기념사진
병사들은 보고 또 보며 영웅으로 자라납니다

펼치면 일심단결 모습입니다
쌓으면 결사옹위 성벽입니다
장군님 방선천리 초소마다 남겨주신
아 영광의 기념사진
병사들은 보고 또 보며 승리만을 펼쳐갑니다

새해는 축원속에 밝는다

리명근

선군의 내 조국에
또 한돌기 승리의 년륜을 새기며
밝아오는 려명을 마중해가며
누구나의 가슴에 제일먼저 차오르는
하나의 생각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이 땅의 숨결처럼 운명처럼 자리잡은
하나의 생각
우러르는 눈빛들에 태양으로 솟아오르는
우리 장군님 생각

평범하게 흐른
레사로운 세월의 낮과 밤이 아니었다
태일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에
생각하기조차 가슴벅찬
내 조국의 세월이어

걸음걸음
지나간 한해 이 땅의 모든 전변은
그이의 위대한 자욱과
그이의 헌신의 시간으로 이어져있어라
공지와 자부심만으로는 다 더놓을수 없는
크나큰 환희의 나날로 이어져있어라

이 아침
집집의 창가에 피어난
향기 그윽한 꽃송이에도
화려한 극장무대에 펼쳐진
조국하늘의 그 푸르름에도
온 세상에 내 조국의 국기를 높이 휘날린
체육인들의 뜨거운 목소리에도
우리 장군님만 따르는 그 신념이 어려있고

멸적의 번개를 비껴안은
천리방선초소의 그 총대들에도
이 땅 그 어디나 새롭게 펼쳐지는
희한한 공장들과 거리와 마을에도
우리 장군님만 따르는 인민의 의지
뜨겁게 어려있어라

하나의 그 신념
하나의 그 의지로
세월의 고삐를 쥐고 비약하는
내 조국의 새해여
땅속깊이 조용히 울렸어도
지구를 흔들어놓은
핵시험성공의 메아리에도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위대한 인민의 존엄이 맥박치나니

이 땅에 흘러간 하루하루
레사로운 낮과 밤이 없었구나
고난을 박차고 폭풍을 맞받아
승리와 승리에로 이어진 나날속에 새겨진
백전백승의 위대한 철리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모셔갈
하나의 소원속에
해가 지고 해가 솟은 선군의 내 조국

이제 또 흘러갈 새해
강성대국의 려명이
더 가까이 마중해올
새해의 날과 날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 장군님과
더 가까이 이어지려니

진정 우리 장군님 계시여
흘러간 승리의 한해가 있고
희망찬 새해가 있어
가는 해 오는 해가 간절히 받들어올린
최대의 념원
이 땅 이 하늘아래 가득찬
제일 큰 소원이 있나니

아, 이 땅에 흘러간
모든 세월의 절절한 당부
밝아오는 새해의 열렬한 축하
안녕하시라!
건강하시라!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이시여

신묘한 전법에 걸려든 《토벌대》

천변만화의 지략과 전법으로 일제를 쳐부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는 오늘 수많은 전설로 되어 력사와 함께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시는 축지법과 비범무쌍한 지략에 실패한 거듭하면서도 일제는 항일유격대 《토벌》에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어느날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은 일본군 《토벌》대장 호리모도는 《혁혁한 군공》을 꿈꾸면서 곧 부대를 출동시켰다.

호리모도는 한번 적을 발견하면 진드기처럼 떨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추격하는 전술이라 하여 《다니전술》(진드기전술)이라고 하는것을 제일 좋은 전법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장거리추격전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다녀야 유격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눈앞에 바라보이는 유격대의 긴 행렬은 마치도 놀리기도 하듯이 늘 그만한 거리에서 굽이쳐가고있었다. 이쪽에서 행군속도를 높이면 그쪽에서도 행군속도를 높이고 이쪽에서 행군속도를 늦추면 유격대쪽에서도 행군속도를 늦추었으며 《토벌대》가 쉬면 유격대원들도 쉬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출발하면 그쪽에서도 출발하였다.

약이 머리끝까지 오른 호리모도는 미칠 지경이 되어 《토벌사령부》에 연락을 띄웠다. 다른 부대를 동원해서 유격대의 앞을 막아달라는것이였다.

얼마 안있어 《토벌대》의 다른 한 부대가 유격대의 앞을 막았다. 그랬더니 이번엔 유격대의 대렬이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말았다. 눈이 휘둥그래서 살펴보니 어느새 자기네의 뒤쪽 반대방향에서 대렬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러자 놈은 또 다른 《토벌대》들을 동원하여 동서남북에서 유격대를 포위하게 하고 한치한치 조여들면서 포탄을 날리고 기관총을 쏘아댔다.

호리모도는 산마루에서 망원경으로 포위환속에는 유격대의 행렬을 살펴며 이번엔야 《무공》을 세우게 되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포위환은 점점 좁아졌으나 유격

대의 대렬은 동그라미가운데에 놓여있는 점처럼 그자리에 까딱않고있었다. 당황하는 기색도, 급해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가능성을 잃자 결사전을 각오했거나 아주 락망해버린 모양이군.)

호리모도가 이렇게 생각할 때였다. 뜻밖에도 유격대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사방에서 투항하라고 소리치자 일진 광풍이 휘익 불어치며 눈가루를 날리더니 유격대원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호리모도는 물론이고 포위망을 좁히던 모든 《토벌대》놈들이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아! <승천입지>를 한다더니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잤는가?》 하고 탄식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니 이게 웬일인가. 푸른 하늘 구름사이로 유격대행렬이 굽이쳐가고있었다.

《유격대가 하늘에 올랐구나!》, 《항공대를 불러대라!》하며 놈들이 까마귀끓듯 하자 사방에서 총란이 몰방으로 터졌다. 하여 《토벌대》놈들은 거의 전멸당하고 호리모도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군법회의가 호리모도를 기다리고있었다. 《토벌》사령관이 노발대발해서 호리모도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목을 치려 하였다. 이때 어데선가 편지 한장이 날아와서 《토벌》사령관앞에 떨어졌다.

놀라서 읽어보니 편지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토벌> 대장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당신들이 유격대의 행치를 찾아 너무도 고생하며 헤매기에 실컷 보라고 네놈들의 눈과 망원경에 약간의 조화를 부렸을뿐이다. 백두산대장수.》

그래서 《토벌》 대장들의 망원경을 가져다 눈에 대고 보니 렌즈안에 점선같은 《유격대행렬》이 들어있어 눈에 대기만 하면 곧 유격대행렬이 보이군 하였다. 또 부상자들이 눈만 뜨면 유격대가 보인다고 아우성을 친다기에 검진해보니 똑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신묘한 술법에 《토벌》사령관은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가사

정말 신통해

문원모

막내전사 꿈속에서 장군님 뵈은 날
그이께서 나의 중대 찾아오셨네
소박한 병사그림 보아주시며
잘 그랬다 웃으시며 칭찬하셨네
아 막내전사 꿈
아 정말 신통해 정말 신통해

병사들 아침에 자고 깨나면
막내전사 둘러싸고 물어본다네
언제면 또다시 장군님 오실가

설레는 마음안고 귀기울이네
아 막내전사 꿈
아 정말 신통해 정말 신통해

날을 따라 더해가는 간절한 소원
우리모두 안고사는 꿈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워 달리는 마음
장군님 다 아시고 찾아오시리
아 막내전사 꿈
아 정말 신통해 정말 신통해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문학과 예술은 지금 우리 당의 문예전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문학 예술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중한 재보로 되고있다.》

《우리가 <피바다>를 구상하고 그 대본작업에 착수한것은 동강회의 직후였다고 생각된다. 연극 <피바다>를 창작하게 된 기본원인은 <간도로벌가>에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대중을 의식화하는데서 연극예술이 노는 비상한 견인력과 효과성에 큰 기대를 걸고있었다. 당시로서는 연극만큼 대중의 심장을 잡아흔드는 예술이 별로 없었다.》

《우리가 연극 <피바다>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그날 만강사람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만강에서의 연극공연은 두메산골 까막눈이던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후원투사로 개변시켰다. 그때 수많은 마을청년들이 무대에 뛰여올라와 참군을 열렬히 청원하였다.》

《연극 <피바다>공연은 유격대원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피바다>가 처음으로 영화화면에 옮겨져 나왔을 때 나는 만강의 소박한 가설무대에 걸었던 남포등과 함께 명석우에 앉아 웃으며 울며 어쩔줄 몰라하던 그 고장 사람들이 생각났다.

만강에서 우리가 <피바다>를 공연할 때 공연성가를 열광적으로 축하해주던 그 잊을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한번 보고싶다. 반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늙은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겠지만 나의 동년배들과 아이들은 더러 만강에서 살고있을지도 모른다. 을남이의 역을 맡았던 그 아이도 살아있다면 60대의 로인이 되었을것이다.》

아, 사립문

윤대중

그때에는 몰랐어라
1월의 찬바람 수난의 칼바람이
사납게 불어치던 그때에는
누구도 몰랐어라
만경대초가집 이 사립문앞에서
우리 혁명의 위대한 자욱이 찍혀지고있는줄

그 자욱이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력사의 《광복의 천리길》로 길이 남을줄
열네살 어리신
우리 수령님도 모르셨고
기약할수 없는 머나먼 길로
손자분을 바래우시는
할아버님과 할머니도
그때에는 몰랐어라

이제 이 사립문을 나서시는
우리 수령님앞에
피바다 만리길이 놓여있었고
항일의 20성상이 기다리고있는줄
오 청년 그때는
누구도 몰랐어라

오직 하나
나라를 찾기전에는
이 사립문으로 들어서지 않으리라

수령님 가슴속에 뚫어번지던
불같은 맹세여
오 그날에 수령님 바라보신
만경대고향집은
기어이 찾아야 할
조선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안고가신 고향이었다
피어린 혈전의 눈보라길에서도
언제한번 수령님 마음속에서
단긴적 없는 사립문
아 열려져있어도 나라를 찾기전엔
들어설수 없었던 고향집사립문

그래서 아니라
이 문앞에 서면
항일의 20성상을 떠이고 솟은
개신문이 숨엄히 안겨오는것은

만경대사립문을 떠난
개신문을 생각할수 없듯
우리 마중해가는 강성대국의 큰 대문도
이 사립문에서 시작된것 아니라
오늘도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
빛나는 모습으로 서있는
아, 사립문 만경대사립문!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인간학의 체모를 갖춘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이다.》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한다는것은 결국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문학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있는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를 잘 그려야 한다.

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어버이께 드리는 노래

리창식

산에 들에 눈은 해마다 내리고
집집에 새해아침은 해마다 밝건만
설이면 또다시 새로운 정을 안고
어버이앞에 서고싶은 마음입니다

려명이 밝아오는 저 하늘을 가리키며
장군님 그려주시는 가슴벅찬 새해길을
이 마음은 훨훨 나래펴고
한달음에 달려보고싶습니다

따스한 슬하에 소중히 안긴 마음은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싶습니다
새 아침을 맞으시며
불라는 그이의 사색
그이의 정력속에 넘쳐나는
래일의 벅찬 이야기

나는 알고싶습니다
어버이의 크나큰 품속에
이해엔 이 땅우에 거창한 창조물이
얼마나 더 솟을것인지
전선길 굽이굽이 야전복을 날리시며
찾고싶으신 초소는
얼마나 더 많으신지

바라웁니다
그이 가시는 새해길
그 길 한끝엔 언제나 기쁨만이 기다리기를
이해엔 우리 장군님
사랑의 굽이마다
미더운 동지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입니다
창조와 기적으로 날을 보내는
우리모두의 손과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려
장군님 이해엔 나의 일터에도
웃으시며 문득 들려주시기를

퍼내여도 퍼내여도 샘솟는 소원을
이 아침이 다하도록
어버이와 나누고싶습니다
사회주의 큰 집안에 찾아올
이 한해의 모든 행복의 소식을
어버이장군님과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원썩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내 조국의 무궁한 힘을
이 아침 나는 또 느끼고있습니다

아 우리의 소원이 끝이 없고
우리의 새해가 소중할수록
넋을 다해
정을 다해 위하고싶은분
우리모두의 운명이신 장군님의 건강속에
려명이 불라는 강성대국 내 조국이 있습니다

불러도 불러도 진할줄 모르는
나의 노래
어버이께 드리는 노래
천만자식의 노래와 노래 다 합쳐도
오직 하나뿐인 소원의 노래
친근한 어버이 우리 장군님
새해에도 부디부디 건강하십시오

영원한 모습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는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강렬하게 하여주는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회고하시면서 그의 넓은 언제나 인민에게서 떠나본적 없었다고 하시였다.

주체 36(1947)년 어느날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부터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일해오던 한 녀성일군은 평소에 품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그이앞에 터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이께서 몸이 편치 않으시면서도 여느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계시였기때문이었다.

남들이 100년을 두고도 못다 맞을 준비를 항일의 전장에서 다 맞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도 어느 하루 편히 쉬실 때가 없으시였다. 더구나 그무렵 그이께서는 몸이 편치 않으시였으나 강의한 의지로 모진 아픔을 이겨내시며 쉬임없이 현지를 찾으시여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인민대중을 이끌고계시였다.

안타까움을 누를길 없었던 녀성일군은 마침내 김정숙동지께 그렇게 일하실바에는 아예 북조선인민위원회 간부가 되시든지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되든지 하시여 자동차도, 모든 조건도 다 보장받으면서 사업하시는것이 좋겠다고 애원하드셨다.

그러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장군님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인민들앞에 책임진 내가 한자리해서는 될 합니까, 그리고 장군님께서 늘 쉽게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내가 지금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내가 지금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는것도 장군님께 실정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 막상 나가보면 일이 잘 안되는데 대해서 그냥 둘수가 없어서 의견도 주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게도 되는거라고 하시면서 나는 영원히 장군님을 받드는 인민의 한사람이 되려고 합니까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녀성일군은 무어라 말하기 어려운 걱정과 휩싸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한채 그이를 경건히 우러렀다.

그 어떤 관직도 없으시였건만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길로 이끄시며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독특하고 절출한 지위와 품격으로 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혁명생애는 오늘날 래일도 우리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게 될것이다.

한릉호

◇가사목록◇

백두에서 솟는 해를 바라보라

류동호

세찬 눈비 헤치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던
선군승리 새 아침이 이 땅우에 밝아온다
아 백두에서 솟는 해를 바라보라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강성대국려명이 동튼다

붉은기의 해돋이에 물들어서 더욱 붉고
총대술은 해맞이로 설레이며 파도친다

아 백두에서 솟는 해를 바라보라
사회주의 우리 세상에 강성대국려명이 비꼈다

우리 태양 펼친 려명 천만복을 꽃피우고
선군해빛 넘친 길로 승리의 날 마중온다
아 백두에서 솟는 해를 바라보라
선군혁명 승리봉우에 강성대국려명이 불탄다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까

정답게 주고받는 첫 인사속에
그리움의 한마음이 비졌습니까
아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까

전선에 계시는 장군님 소식
해빛으로 받아안은 아침입니다

장군님 전선길을 새겨안으며
뜨거움에 목메이는 새날입니다
아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까
어제밤도 헤쳐가신 멀고 험한 길
장군님 그 자욱을 따라섭니다

우리 행복 지켜주신 선군길 만리
그리움의 천만리로 이어집니다
아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까
장군님의 전선길을 함께 걸으며
선군혁명 승리의 날 마중갑니다

그리움의 꽃

이 땅에만 피는 꽃 그리움의 꽃
이 세상엔 없는 꽃 내 마음의 꽃
찬서리에 그 꽃송이 시들지 않고
눈속에도 그 향기 잃지 않을네
아 내 마음의 꽃 그리움의 꽃

산과 들에 피는 꽃의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피는 꽃에 어이 비기랴
이 땅위에 백화는 한철이지만
정을 안고 피는 꽃은 사시절 붉네

아 내 마음의 꽃 그리움의 꽃
마음속의 고운 소원 꽃으로 피워
마음속의 그리움을 향기로 모아
내 진정의 꽃다발을 정히 엮어서
우리 해님 장군님께 안겨드리리
아 내 마음의 꽃 그리움의 꽃

이 세상엔 없는 꽃 내 마음의 꽃
이 땅에만 피는 꽃 그리움의 꽃

우리는 빨찌산군가를 사랑해

하늘엔 려명이 불타고 땅우엔 행복이 꽃피도
우리의 붉은기아래선 빨찌산군가가 울린다
저 하나 안락을 바라며 향락의 노래를 부르랴
선군의 행진곡 빨찌산군가를 우리는 사랑해

우리는 먼길을 왔어도 가야 할 행군길 더 멀어
빨찌산장군의 야전길 군가를 부르며 따른다

갈 길도 선군의 한길뿐 마음도 걸음도 하나뿐
백두의 진군가 빨찌산군가를 우리는 사랑해

위대한 승리의 그날에 오늘의 생활을 추억할
그날도 장군님앞에서 전사들 군가를 부르리
총대의 붉은기 날리며 려명을 마중해 앞으로
선군의 승전가 빨찌산군가를 우리는 사랑해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이 되리

정을 다해 품을 들여 이날이때껏
하루같이 바친 사랑 깊어만 지네
그 품 떠나 살 곳 없는 어머니조국
그 부름이 우리 심장 불타게 하네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딸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이 되리

눈비 헤쳐 우리 삶의 봄날을 주고
선군으로 우리 행복 꽃피준 조국
행복속에 다 몰랐던 어머니사랑

시련의 날 목숨처럼 간직하였네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딸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이 되리

아들딸의 사랑 합쳐 받드는 조국
애국보다 더 큰 보답 세상에 없네
천만어깨 성세되어 지키여가리
천만심장 불길되어 빛내여가리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딸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이 되리

결사옹위 총폭탄은 갈 길을 안다

백두의 댁이 어린 선군총대에
결사옹위자폭정신 만장탄했다
혁명의 수뇌부는 우리의 생명
목숨바쳐 지키려고 육탄되었다
장군님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결사옹위총폭탄은 갈 길을 안다

필승의 신념으로 과녁을 겨눈
결사옹위육탄은 불발이 없다
혁명의 수뇌부는 우리의 조국
천만군민 조국수호 육탄용사다

장군님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결사옹위총폭탄은 갈 길을 안다

날아간 총탄은 못돌아와도
결사옹위육탄만은 되돌아온다
혁명의 수뇌부는 우리의 승리
영웅들은 내 조국에 영생하리라
장군님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결사옹위총폭탄은 갈 길을 안다

주체 95년 10월 12일

새해결의묵음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을 따르며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나는 먼저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멀고 먼 전선길을 생각하곤 한다.

눈보라치는 험산준령과 계곡, 얼어붙은 강과
언덕길을 달려가는 야전차의 전조등불빛을 생각
하며 그 불빛을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려명이 밝
아오는것을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한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4.15 문학창작단 전체 작가
들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선
군령도의 자욱자욱을 따라걸으며 붓을 달려온 우
리들이었다.

지난해에만도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
장정의 자욱마다에 높이 솟아오른 거창한 창조물
들에 대하여, 세계를 진감시킨 경이적인 사변들
에 대하여,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존
엄과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려명에 대하여 쓰고
또 썼다.

그러나 미처 따를수 없었다. 아무리 붓을 달려
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조선의 기
적을 다 담기에는 우리들의 힘과 재능이 너무도
떨리었다. 분발하고 또 분발했어도 벅찬 현실은
런이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멀리 앞서나가곤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맞는 새해는 기쁨과 행
복의 설날만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남김
없이 아로새길 굳은 결의를 가다듬는 새해, 혁명
적군인정신으로 더 큰 걸음을 내짚는 새날, 새
아침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
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
가야 한다.》**

나는 지난해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
편소설 《불》(성강의 봉화)을 안고 온 한해를 줄
달음쳐왔다. 이제 얼마후 작품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조국수호
의 불, 사회주의운명의 불에 대한 이야기가 인민
군군인들과 전체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덥혀주리
라는 희망을 안고 쉬임없이 행군해왔다.

지금도 행군은 계속된다. 어제도 전투였고 오
늘도 전투이다.

우리 4.15 문학창작단 전체 작가들이 전투에 전
투를 이어가며 위대한 수령님 탄생 95돐과 조선
인민군 창건 75돐 영광의 축전장으로 부피두터운
혁명소설들을 안고가고있다.

《김일성상》계관인들인 소설가 김삼복, 리동구,
백보흠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
설 《청산별》과 《충성의 한길에서》의 속편인
장편소설 《백리향》, 장편소설 《강반석어머니》
를, 소설가 백남룡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
하는 장편소설 《봄의 서곡》을 완성하면서 대오
의 맨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그뒤를 이어 보폭이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소
설가들의 모습도 미더웁지만 그들이 안고가는 장
편소설의 제목들도 다채롭고 인상깊다.

《최후결전》, 《천지개벽》, 《영원한 별》,
《강산의 봄》, 《녀성의 하늘》, 《미국은 어디
로 가는가》, 《탄생》, 《청춘대학》, 《별들은
속삭인다》, 《원시조》, 《성지》 등...

이 모든 작품들에 피나는 노력을 쏟아붓는 창
작지도일군들의 모습 또한 자랑스럽다. 작가들과
같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연구하고 속을 태우고
목이 쉬도록 토론하고 바로잡아주면서 자신의 열
정과 실력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그 한편 한편
의 혁명소설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과 건
설투쟁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굳건히 받드는 고임돌로 될것이
기때문이다.

피어린 노력이 없이 빛나는 성공을 바라지 말
자. 승리의 정점에 오르기전에 위훈과 영예를 바
라지 말자!

나는 믿는다.

새해에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

육자육을 따라 걸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써낼 것이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할 것이다.

《김일성상》 제관인 정기종

알찬 열매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소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데서 큰 작용을 한다.》

강성대국의 려명이 찬란히 밝아오는 내 조국에 또 한돌기의 년륜이 감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도 또 한돌기 년륜을 새기게 됩니다. 하기에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저의 가슴은 하냥 부풀어오르지만 어깨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 나이가 선살이고 작가대오에 들어선지 꼭 스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짧다고 볼수 없는 이 세월에 내가 이 나라의 공민으로서, 작가로서 무엇을 해놓았던가 하고 돌이켜보니 위대한 우리 당과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이 안겨주는 사랑만을 받아안고 보답을 하지 못한 그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농작물은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한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한생은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열매는 각자의 생이 길든 짧든 다 알차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알찬 열매를 거두어 조국에 바친 훌륭한 아들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국의 군사적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는 핵시험에서 성공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러하며 세계청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랑스럽고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이 그러합니다. 예술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와 《평양날파람》을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창작가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알찬 열매를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농촌주체의 장편소설창작에 전심전력하여 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될수 있게 완성해볼 생각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인생의 열매》입니다.

주인공의 인생의 열매이자 작가인 나 자신의 인생의 열매로 되게 하고 싶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95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5돐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을 새해에 저의 이 희망과 소원이 성취된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해에 현실에 깊이 몸을 잠그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분발하고 또 분발할 결심입니다.

소설가 김 대 성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장군님께 기쁨드릴수 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을까.)

사색하고 탐구하고 하나의 종자를 무르익혀나가는 과정에 나 자신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게 되는 욕망이기도 하고 창작의 길을 걷는 나의 결의이기도 하고 맹세이기도 하다

강성대국의 붉은 려명이 밝아오는 조국번영의 전성기에 또 한해 새해를 맞고보니 이해는 그 결의를 어떻게 하나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만진다.

그것은 이해가 바로 가사 《대흥단삼천리》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린 그때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정말 나의 10년은 꿈만같이 가슴벅차게 받아안은 그 영광으로 하여 한없는 긍지를 안고 산 나날들이었으며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을 통하여 노래가 불려워질때마다 더 좋은 작품을 써내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은 나날이기도 하다.

정말이지 사색의 물결을 헤가를 때면 나의 가

사를 보아주시고 가사가 통속적이고 내용도 좋고 그리고 기뻐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넘친 음성이 들려오는것 같아 그 분에 넘치는 치하에 더 좋은 작품을 써내지 못한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으로 모대겨온 해와 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당에 조언을 줄만 한 훌륭한 작품을 써내려면 그 누구보다도 당의 구상과 의도에 민감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전반을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또 한해 걸어갈 래일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지난해 시문단의 젊은 시인들이 여느때없이 앙양된 성과로 문단을 놀래운 가지가지 일들이 선히 어려온다.

그들의 비등된 열의에 발맞추어 나 자신도 현실 체험의 배낭을 메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발자취를 따라 많이 걸었고 많이 체험도 하였다.

그러나 결실은...

가정을 떠나 사랑하는 자식을 집에 두고 신들메를 조이고 현실에 뛰어들었건만 나는 풍성한 가을을 안아오지 못했다.

나는 생활의 중심, 시대의 중심에 서지 못하였다. 그 중심이란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의도였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당정책이었다.

이해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5돐과 영웅적조선 인민군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또 나에게는 《대흥단 삼천리》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린 10년이 되는 류다룬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처럼 쑥스럽게 헤어질수 없는 해이다 나는 창작의 《강행군》을 하여 기어이 《대흥단 삼천리》와 같은 또 한송이의 꽃을 우리 문단에 피워놓겠다.

그리하여 머나먼 전선길에 계시면서도 항상 우리 시인들이 드리는 작품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장군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는 명작을 창작하여 우리 시문단의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겠다.

창밖에 눈이 내린다.

새해결의의 붓을 달리는 나의 마음에도 깨끗한 흰눈이 소복이 쌓인다.

시인 박 정 애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평론가로 준비해가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식 평론에서 기본은 우리 당의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존중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상방도를 탐구하는 것이다.》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오는 새해의 이 아침 우리 평론가들의 심장은 선군시대를 영원히 빛내일 명작창작을 선도해주는 평론을 보다 알차고 매력있게 창작해낼 결의로 높뛰고있다.

온갖 낱고 구래의연하며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글이 아니라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깨닫게 하여주고 창작적환상을 불러일으켜주는 평론, 두고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주며 심오한 철학의 세계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평론을 창작해내겠다는것이 나뿐이 아닌 우리 젊은 평론가들의 자신만만한 배심이다.

우리 평론의 문단에서도 이제는 세대가 교체되고있다. 관록이 있고 중진을 이루었던 많은 평론가들대신에 경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평론대오의 주류를 이루었다.

허나 우리 선진평론가들은 자신심에 넘쳐있으며 열정에 넘쳐있다.

어서빨리 연약한 새싹으로부터 거연히 자라나 선배평론가들을 따라잡고 뛰어넘자! 자그마한 단편이 아니라 그 폭과 심도, 질적수준에서 이전시기 평론들을 통가하는, 그래서 선군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남아있을 명평론들을 창작해내리라.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모든 문학형태들의 생리에 정통하며 작가들에게 실질로 도움이 되고 교훈과 경험으로 되는 반드시 필요한 평론을 창작해내겠다는것이 우리 젊은 평론가들의 포부이다.

당과 함께 영원히 한길을 갈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당정책에 정통하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존중하고 구현하여 구체적인 문학작품창작의 형상

방도를 탐구해내는데 우리의 결의를 실현할수 있는 명백한 길이 있다.

작가들의 창작에 도움을 주며 선도하여준 평론은 지난 시기에도 당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형상생리와 방도를 찾아 밝혀주었던 평론들이었음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지난해 창작되였던 론설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주체문학건설의 대강》(천재규)을 비롯하여 평론들인 《사랑과 신념의 철학세계》(리용일), 《선군령장에 대한 매혹과 통일주체문학의 정서》(김덕선), 《시적발견은 스스로 얻어지지 않는다》(리동수) 등의 경우들을 보아도 취급한 작품과 제기한 문제들은 서로 다르지만 평론들은 한결같이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하고 그를 자로 하여 창작생리와 경험을 시사하여줌으로써 명작을 창작하도록 선도해주는 평론들이었다. 그러나 사상정신세계가 비상히 높아진 선군시대 인간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응당한 만족을 안겨줄만 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우리 평론가들은 심한 자책감도 느끼고있다. 아직 자신들이 문학년조와 창작경험이 적다는 위안으로 시간을 앞당기어 실적을 쌓지 못하였던것은 그 어떤 구실로 될수 없다.

당의 문예리론과 업적을 새로이 학습하자! 그래서 철저히 당정책적안목에서 오늘의 시대를 대하고 작품의 예술생리와 형상방도를 탐구해내리라. 선군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인간문제, 전형적성격창조문제, 생활이 그대로 안겨오는 형상창조문제에 요점을 박고 독창적인 발견과 주장이 있는 평론을 창작해내겠다.

당의 문예전사로서 가장 참되고 열렬하며 높은 실적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평론가로 준비해 나가겠다는것이 우리 젊은 평론가들의 한결같은 결의인것이다.

평론가 김 정 철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명작이 태어난다(2)

박춘택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은 좋은 가작품들을 많이 쓴 전동우의 창작생활은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선군혁명위업을 필봉으로 어떻게 받들어야 하며 선군혁명동지의 붓대는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무게있는 대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창작적재능과 지혜로 당의 위업을 높 이 받들어나가는 충실한 방조자가 되여야 한다.》

시인 전동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가사를 많이 쓰는것이야말로 위대한 동지앞에 지키는 한 작가의 숭고한 의리와 량심이며 의무라는것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새겨안고 창작에 온념을 바쳤다. 그의 심장은 언제나 자애로운 스승, 위대한 동지를 따라 붓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이 세상 끝까지 충직하게 한길을 가리라는 맹세로 세차게 고동쳤다.

어느해 설날 전동우를 부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예의 《김일성상》 제관인이 된 그를 뜨겁게 축하해주시며 동무는 좋은 가사를 써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기때문에 영예의 《김일성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동무는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제가 《나는 알았네》를 비롯하여 좋은 가사를 많이 썼다고, 좋은 가사를 많이 써서 대중교양에 이바지한데 대하여 감사를 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는 전동우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동무는 예술영화 《추억의 노래》의 주제가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의 가사도 내용있게 잘 썼다고, 그 노래는 지난해에 나온 노래들가운데서 제일 잘된 명곡중의 하나이라고, ...동무는 노래가사를 평범하면서도 소박하게 잘 쓴다고, 가사는 소박하게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높은 평가야말로 작가에게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큰 영광이고 행복인것이다.

전동우의 가슴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젖어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가 전동우를 혁명적인

작가, 로동계급화된 작가로 키우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주시였다.

주체20(1931)년 4월 20일 함경남도 금야군 세동리에서 소작살이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전동우는 나라없는 설음도 맛보고 배고프고 추운 고생도 해보았으며 힘든 로동이나 피를 뿌리는 전투도 겪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전동우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그에게는 성격적결함이 있었는데 창작과 생활간의 모순으로부터 남다른 정신적고충을 겪었다. 그는 감성을 리성으로 억제하는 힘이 부족하였고 창작에서는 주견과 배짱이 있었으나 생활에서는 소심하였고 고지식하였으나 자기본위적이었다. 이것은 인간 전동우와 시인 전동우를 일치시키기 힘들어했던 그의 생활적모순이었다.

사람의 인간적품격의 형성은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혁명적수양을 어떻게 하는가가 기본인것이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근심걱정없는 창작의 나날을 보내는 과정에 그의 사상생활에서 오점이 나타나고 붓끝이 무디여진 때가 있었다. 이것을 제때에 포착하신 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슬하의 모든 전사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로동계급화된 투사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동우의 사업과 생활을 친히 료해해보시고 참으로 귀중한 수양과 단련의 기회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무산광산의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바로 거기에서 백두의 혁명정신과 순결하고 투철한 로동계급의 충실성과 혁명적의지를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다.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며 그와 어긋나는 일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타협도 모르는 무산광산 로동자들의 투철한 계급성과 혁명적자각에서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전동우에게는 낡은 지식인적인 근성이 있고 혁명가적품성이 부족하였다. 그런 사상적약점을 전동우자신도 알고있었으나 고치기 힘들어하였다.

그는 시를 쓰는데서 재간이 있었으나 그 낡은 지식인근성과 혁명성의 부족으로 생활에서 탈선되는 때가 여러번 있었다.

그는 무산광산 로동계급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의 이러한 사상적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무산광산 로동계급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인민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온 그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뜨겁게 맞아주시면서 무산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무엇을 배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가 목메여 울리는 대답을 들으시며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간수업을 하였다니 말을 잘하였다.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많이 배웠을것이다라고 따듯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무산의 로동계급속에서 인간수업을 잘하고 왔으니 앞으로 좋은 글을 더 많이 쓰리라 믿는다고 기대에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었다.

전동우가 인민을 더 잘 알게 되고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작가적사명감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것은 그가 무산의 로동계급속에서 자신을 단련할 때부터였다. 그의 평탄치 않은 인생행로와 다단한 그의 창작생활에서 그 기간은 그가 인간으로서, 작가로서 자기를 새롭게 변모시킨 나날이었다.

사랑하는 자식을 엄한 매로 키우는 웅심깊은 어머니처럼 우리 작가들을 키우고 보살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서 시인의 붓대는 신념의 무기로 날카롭게 베풀여졌다.

명가사 《나를 부르는 소리》는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가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인간으로 따르고 생활로 따르고 목숨으로 따르려는 그의 신념과 의지, 령도자에 대한 그의 열렬한 도덕의리심을 노래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뜻과 무한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심장으로 더 깊이 체득한 그는 장군님의 기쁨인 노래를 위하여 자기의 생을 불태워 줄담음치며 창작하였다. 진정 그가 가사창작에 이처럼 뜨거운 념을 바치며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온것은 그의 사상정신적성장의 결과였다.

시인의 그러한 사상정신적성장과 작가적사명감으로 하여 그는 가사 《추억》, 《청춘》, 《어머

니생각》과 같은 인민적인 노래가사들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가사 《푸른 버드나무》, 《나의 하늘, 나의 바다, 나의 대지여》, 《내 언제 다 알가》, 《병사소식 전해다오》등 주옥같은 시대의 명가사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시인 전동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떠나간 전사를 못잊어 가슴아파하시면서 전동우동무가 사망하였는데 참 안됐다고, 전동우동무는 재간있는 시인이였다고, 그는 좋은 가사를 많이 썼다고 거듭거듭 추억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전동우동무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였는데 옆에 있던 일군들이 모두 좋아하였다고, 그만큼 그는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참으로 눈물없이 는 받아안을수 없는 뜨거운 은정의 말씀에 가족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시인을 회고하시면서 전동우동무는 좋은 작품을 많이 썼다고, 그는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는 철학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고, 그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좋은 작품을 많이 썼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진정 시인은 살아있을 때에도 영광만을 받아안고 살았던 인간이였고 죽어서도 영광속에 영생하는 시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그 말씀은 인간으로서, 시인으로서 그가 받아안은 그 무엇에도 견주지 못할 크나큰 행복이고 영광이며 그의 창작적생애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령도자가 추억하고 당과 인민이 잊지 못하는것보다 더 고귀한 삶과 영광이 또 어디 있으랴.

작가 전동우의 값높은 창작생활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선군의 붓대를 잡은 우리 작가들을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에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억세계 키우신 위대한 스승이시며 친근한 동지이심을 격조높이 보여주고있다.



조 정 협

1

은 도시가 노을빛으로 물들고있다. 집집의 창문들마다에, 잔잔한 강물, 이슬맺힌 파란 풀잎, 축축한 나무잎사귀들마다에 새 아침의 빛이 눈부시다.

흰비둘기떼가 나래를 저으며 태양을 향해 날아오른다.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는 이 아침의 정경이다.

나는 펜을 든다. 은빛펜촉이 흰종이우에서 반짝거린다. 그 누구들인가의 모습이 금시 눈앞에 어리며 무엇인가 조용히 속삭인다.

그들은 얼마전 내가 통일관계행사장에서 만났던 남조선과 해외에서 온 로인들이다.

박호림, 유진해... 이 아침의 정경이 나에게 류다르게 안겨오는것은 인생의 하많은 사연을 안고왔던 그들에게서 받은 충동에 의한것이었다.

그들에게서 김수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었다. 한때 문단의 기둥이 되리라는 기대의 눈길을 모았던 그가 우리곁을 떠난지 어언 반세기를 넘었으니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름마저 희미해져가고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듣게 될줄이야.

김수민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첫 작가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는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었다. 해방전 그 꿈을 이루고저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떠났으나 끝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중국동북지방에서 활동하면서도 그는 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수령님의 조선인민혁명군을 태양의 무대로 청송하였다. 해방이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자신을 찾아왔던 때를 회고하실 때마다 그는 일신의 향락을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온 혁명적인 지식인이었다고 말씀하곤 하시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새 조선문학예술건설사에 빛나는 자욱을 남기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종군작가로 전선에 나가 미제와의 싸움에서 영웅적인 최후를 마쳤다.

나는 김수민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내가 대학시절에 쓴 졸업논문은 김수민의 창작생애를 론한것이였다. 작가의 지성과 세계관 그리고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의 련관성을 론하면서 나는 그의 창작생애를 분석하여 보았었다. 이 과정에 나는 그에 대하여 말한다는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를 알게 되였다. 하지만 썼다. 그의 세계를 다는 알수 없다 해도 한 작가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었다. 나는 그 인생의 발자취를 보았다. 조선아이라 무시당하던 어린시절의 설움, 꿈이 짓밟히는 현실에 대한 울분, 그리고 분노, 그 방황하는 발자국을 따라 나는 드디어 그가 높은 언덕우에 오르는것을 보았다. 그는 더는 방황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다. 언덕우에서 그는 노래하였다. 민족이 내딛는 력사의 새길에 대하여, 사회변혁에 대하여, 그것이 가져올 인간의 발전에 대하여 자기 주인공들을 통해 랑만에 넘쳐 노래하였다.

이렇게 나는 작가 김수민을 알게 되였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내 손을 잡으며 수민의 작품들을 보여줄수 없겠는가 하고 하는것이였다. 다음날 나는 그의 작품들이 실린 여러권의 잡지와 작품집들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건국의 나날에 발행된 첫 문예잡지 《문화전선》에 실린 작품을 보는 로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반세기가 넘어서야 이것을 보게 되다니.》

나는 그들에게 김수민에 대해서와 한때 남조선과 해외의 일부 언론인들이 그에 대하여 외곡된 주장을 한적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로인은 책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주차장쪽에서 배스의 경적소리가 울려왔다.

그날은 일행이 백두산으로 가는 날이었다.

《선생,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몹시 의아해하는 나에게 로인이 하는 말이였다.

어디서 꺾은것인지 그의 손에는 정성껏 묶은 들국화다발이 들려있었다. 나는 이들에게 쉽게는 말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배스에 올랐다. 그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력사는 사람들에게 인생길의 선택을 요구하며 또 어느때인가는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깨우쳐 주기도 한다. 나는 두 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6. 15 통일시대를 맞이한 오늘 우리 민족이 지나온 시절들에 선택했던 길들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를 깊이 느끼게 되었고 통일은 분명 우리들의 력사로 다가오고있음을 확신하였다.

나는 민족의 새 세대 청년으로서 동시대인들에게 한 인간의 아름다운 생과 함께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인생의 교훈에 대하여 전하고자 이 펜을 들었다.

태양의 마지막빛이 도시의 서쪽건물들뒤로 스러져가는 저녁무렵이였다. 눈부신 자연의 황혼빛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며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호림은 광화문 앞도로에서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는 시위가 한창이였다. 미국대사관을 향하여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시위자들 속에서 《할아버지!》하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니 손녀가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고있었다.

이전같으면 이런 곳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을 꺼리였을 손녀였다. 한것은 《대학생이 데모에 시간을 보내는것은 부모앞에 무책임한 일이다.》하는 꾸지람을 한참이나 들어야 했기때문이다.

그런데 얼마전 미군장갑차가 두 녀중생을 깔아 죽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호림자신이 초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것이다.

6. 15 공동선언이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민족자주의식이 급속히 고개를 쳐들고있었다.

호림은 손녀에게 손을 흔들어보이고 다시 걸음을 옮기였다. 집으로 돌아와 자기 방으로 들어서던 호림은 침대우에 한통의 편지가 놓인것을 보았다.

도표에서? 진해?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에 차츰 놀라와하는 빛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녀인은 처음 자기가 누구인가를 상기시키였다. 떨리는 종이장우에 오래전에 만난적 있는 한 녀기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당신은 그때 김선생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나는 <김수민의 실종>이라는 기사를 써서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자신의 선택이었어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호림의 얼굴에는 공포와 의혹의 빛이 엇갈리며 떠올랐다. 그는 지금껏 자기 생활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은 잊어보려 하였다. 더우기 자기와 깊은 우정을 맺었던 한 벗과 충을 들고 마주섰던 50여년전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언제건 되새겨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결코 영원히 잊을수는 없는 법이다.

호림은 심한 부정맥을 느끼였다. 방을 나선 그는 반원형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순간 망막을 찌르는 해살에 눈살을 찌프리였다. 그는 오늘까지 녀인이 편지에서 말하는 그 수민의 최후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호림은 그의 최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였다.

총성이 소란하던 골짜기, 그 소란을 폭음으로 누르며 터져오르던 화광, 그것은 그가 세상에 나서 처음 본 자폭이라는 무서운 광경이였다. 호림은 그때 분명 수민이가 자폭하는 동료들과 함께 서있는것을 제눈으로 보았음에도 그가 자폭했다는것을 믿지 않았다. 한것은 자기나 수민이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절대로 화합될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수민의 아버지는 일제의 식민지시절에 큰 공장과 상업망을 경영하면서 부를 축적한 자본가였다. 또 형은 일제총독부의 고위관리로 있으면서 일제의 패망전에는 일본천황에게 충성하였고 패망후에는 미군정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었다.

자신은 어떠한가, 일찌기 일본에 건너가 명문대학을 나왔고 귀국해서는 친일적인 언론기관에 복무한적이 있었다. 그의 가정이 어떠한가를 아는것은 하나의 실례만으로도 충분했다. 광양에서 아버지의 생일이 있을 때 수민의 형은 이 잔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비행기로 날아오곤 하였다. 일반사람은 인륜대사에 겨우 달구지나 리용하던 때라는것을 생각해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호사였다.

당시 당국자들이 떠들던대로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청산대상이였다. 따라서 그가 최후의 시각에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여 그의 죽음을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래동안 주입된 교육으로 형성된 리성은 그의 죽음은 강요된것이였다는 생각을 용납했으나 눈으로 본 현실은 그것을 부정하려 들었다. 호림은 이에 대하여 더는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의혹이 커갈수록 괴롭기만 했던것이다.

호림이 수민을 알게 된것은 동경제국대학시절이였다. 대학에 입학한 해는 호림에게 있어서 욕망과 회의가 엇바뀌며 흘러간 한해였다. 호림은 비록 호강하며 자랐으나 항상 식민지 망국노의 한을 가슴에 안고있었다. 작품에나마 그 울분을 담고 불행한 민족을 위로하고싶었다. 하지만 문학창작을 시도하면서 그는 자기의 소박한 그 생각도 용납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

다. 망국노는 노예이지 인간이 아니었고 인간이 아니었기때문에 그 어떤 권리도 없었던것이다.

민족의 처지가 자기 자신의 처지인것을 가슴아프게 느끼던 그 시절 그는 한 동포청년을 알게 되었다. 재일조선인들뿐 아니라 일본의 문학청년들속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대학선배였다. 한때 일본최고의 문화상이 거론된적 있는 작품이며 그의 여러 작품들에는 범상치 않은 지성이 비껴있었다. 호림은 그 험악한 시절에 조금도 식지 않은 향토애, 동포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날 호림은 용기를 내어 아직 변변치 못한 습작품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

그날 작품을 읽고난 수민은 오래도록 호림을 바라만 보았다. 왜 그럴까? 호림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졸작을 들고 서둘러 찾아온 자신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그의 속생각을 알았던지 수민은 미소를 지어보이었다.

《진실을 보려는 그 지향, 진지한 묘사, 감정이 짙은 정서적인 문장, 자네에겐 재능이 있어.》

호림은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온밤 함께 거닐었다. 수민은 문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건 이 길을 걷는것과도 같은거지. 길에는 모든것이 다 있어. 고락, 행복과 불행, 모든게 있지.》

호림은 그가 하는 말이 다 이해되는것은 아니였으나 오히려 미처 이해할수 없는 그 말들로 하여 더더욱 깊은 존경을 느꼈고 황홀한 심경에 싸였다. 그후부터 호림은 글을 한편 쓰거나 좋은 책을 한편 보고나서는 꼭꼭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열띤 토론속에 새날을 맞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수민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항구에 나가 그를 배래우고 돌아온 저녁 호림은 망망대해에 홀로 남은 기분이였다. 그 이듬해 주민이 또다시 대학에 찾아온것은 천만뜻밖의 일이었다.

서울의 어느 신문사 기자로 있던 그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인들의 동향이며 정국을 취재할 목적으로 또다시 현해탄을 건넜던것이다.

호림은 너무 기뻐 그와 함께 별로 즐기지 않던 소주를 밤새껏 마시며 회포를 나누었다. 그간 자기가 얼마나 쓸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는가를 끝없이 이야기하였다.

호림은 그가 다시는 자기결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싶었다. 하지만 얼마후 수민이 경찰에 체포되는 기피한 일이 벌어졌다.

리유인족 이전에 조선인들로 무어졌던 좌익계열의 《조선예술좌》라는 극단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는것이였다.

체포리유를 물고나서 한동안 터무니없는듯 짙게 웃음을 터뜨리던 그는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제검열기관의 무자비한 탄압속에서도 우회적으로나마 저항문학을 계속해오던 그는 《예방구금》까지 당하게 되는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끼었던것이다. 그가 석방되던 날 호림은 동료들과 함

께 하숙집으로 부축해왔다. 몸은 비록 수척해졌으나 어인 일인지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있었다.

리유는 알수 없었으나 호림은 기쁜 마음이 앞섰다.

호림의 도움을 받으며 침대에 누던 수민이 느닷없이 묻는것이였다.

《호림이, 지낸 오늘 우리 문학청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글쎄 ...》

호림이로서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물음이었다.

사실 그것은 수민이 떠난 후에 호림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제기해온 물음이기도 하였다.

그는 1년남짓한 기간 적지 않은 문학청년들을 사귀면서 민족문학의 미래에 대하여 구슬프게 느끼게 되었다. 이른바 문학도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보니 별의별것이 다 있었다. 미사려구투성의 미문장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밤낮 고리타분하게 떠나간 님을 부르는 감상주의 자들도 있었고 순수 문학을 한다는 신비주의자들은 런금술사마냥 정신나간 수작만 잔뜩 늘어놓고 있었다.

민심의 거울, 인생의 다정한 벗이 되여야 할 문학이 어디로 가는것인가, 호림은 타락이 타락임을 모르고 허무에서 매력을 찾는 녀이 없는 세상을 개탄하였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그는 그것이 식민지민족의 문학이 겪는 숙명이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누구도 이 숙명을 벗겨줄수 없으며 벗어날수도 없다는것을 알았고 따라서 문학과 자기 인생을 우려하게 되었다.

《희망이 없다고 보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수민은 울적해있는 호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에선 번민에 찌든 자신의 과거와 드디어 그것을 막차고 나가려는 지향이 있었다.

소학교시절 어린 수민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성적이 우수했건만 왜 한번도 상을 주지 않는것인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졸업할 때는 준다고 했지만 그 상은 또 일본아이가 타게 되었다. 그는 모자를 와락 구겨쥐고 힘껏 내동댕이쳤다. 그후 그것이 겨레모두가 겪는 치욕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마음속에서는 반항의 불덩이가 이글대기 시작하였다. 길희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승리한 소식, 그 앞장에 청년학생들이 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동무들과 시위투쟁에 나섰다. 우등불이 활활 타는 밤거리에서 즉흥시를 읊으며 학우들을 고무해주기도 하였다. 경찰의 군도도, 감옥도 두렵지 않았다.

드디어 항거의 불길이 타번지기 시작한것이였다.

그 과정속에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글이 울분을 벗어나지 못하는것이 한스러웠다. 하소연이 아니라 강렬한 지향을 담은 호소를 쓰고싶었다.

날이 갈수록 자기의 앞길을 밝혀줄 빛, 태양이 그리웠다. 그는 감방에서 그 빛을 보았다.

그가 감방에 들어갔을 때 피창가에는 다 찢겨진 수인복을 입은 한 사나이가 서있었다. 부르르고 터갈라진 두손을 들어 피창으로 흘려드는 파스한 해살을 어루만지던 그 사나이는 어깨를 축 처뜨리고 서있는 수민을 자기결로 불렀다. 수인들이 조국광복회 회원이라고도 하고 항일유격대 공작원인것 같다고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네 이름은 뭐가?》하고 다정하게 물어보았다. 몇마디 이야기가 오고간 후 그는 문득 《소원이 뭐가?》하고 묻는것이였다. 꼭 다물렸던 마른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한마디, 두마디 설음이 흘러나오다가 이내 불같은 노성이 터져나왔다. 그 사나이는 말없이 감방바닥에 흘러든 빗물레를 빙빙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혹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해 들어본적 있소?》하고 조용히 묻는것이였다. 순간 수민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대일본제국》에 선전포고를 한 전설같은 위인의 이야기를 그가 어찌 모르랴. 대학에 입학한 이듬해 온 도쿄 시내를 뒤흔들었던 보천보전투소식은 그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안겨주었던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민은 그분이 바로 소년시절 자기의 가슴에 투쟁의 불길을 지펴준 길림투쟁의 지도자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잡아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나이는 한줄기 빛이 비쳐드는 그곳을 가리켜보였다.

《백두산에 계시오. 그분은 암흑속에 잠긴 우리 겨레를 구원할 희망이고 빛이요. 젊은이, 이 세 력사에 대해 쓰라구.》

그는 빛속으로 한걸음 들어서며 수민을 손짓해 불렀다. 수민은 온몸이, 온몸이 이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태양이 두 사나이를 격려하듯 더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

《호림이, 우리 나라는 렬강들의 패권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치욕이다.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가자. 가서 우리 민족의 영웅을 그리자. 그 길이 우리 문학청년들이 갈 길이다.》

호림은 큰 충격을 받았다. 꺾일줄 모르는 사나이다운 기개에 머리가 숙여졌다. 하지만 선뜻 동의할수는 없었다. 다행히 수민은 구태여 더 묻지 않았다. 호림은 묵묵히 작장만 빠져였다.

아, 그날 밤. 유난히 창백한 조각달이 못별들 사이를 누비며 검정색하늘가를 떠다니던 그밤.

어느 시인의 노래에서처럼 키도 노도 없이 떠다니는 쪽배같은 달을 보며 호림은 생각했다. 실로 다난한 이 세월 지식인들의 운명은 바로 난바다에서 방황하는 쪽배의 운명과 다를바 없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동방의 마드리드로 불리우던 무한삼진의 붕괴, 그후 일제의 태평양장악과 동남아에로의 진격, 이것은 그럭저럭 지령해온

지식인들의 정신생활에 큰 충격이 되었다. 문학계는 급속히 랑극으로 분화되어갔다. 일제의 가혹한 검열제도하에서도 은둔, 우회적방법의 글쓰기로나마 저항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일전쟁이 터지자 그자들은 일제의 《내선일체》론을 찬양하며 조선사람들의 출병을 웅당한것으로 묘사하였고 진주만기습과 함께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대동아공영권》을 합리화하면서 아시아, 특히 조선인의 《력사적사명》을 운운하며 적극적인 협력의 길로 나갔다. 현실은 나날이 엄혹해지고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것인가, 수민은 탈출을 희망하고있었다. 언제인가 누군가에게서도 선택에 대한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그의 집에는 자산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그중에는 미국인 목사도 한명 있었다. 그는 사람들앞에서 설교라도 하듯 늘 이렇게 말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륙과 대양진출의 요충지대로서 예로부터 동양제패를 꿈꾸는 강대국들의 쟁탈대상이었다. 이제 미국이 조선을 그 불행한 운명에서 《구원》해주게 될것이니 모두 앞을 내다보고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것이였다.

호림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껏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선택문제를 편관시켜 심중하게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드디어 누구인가의 손을 잡아야 할 시기가 왔음을 절감하였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물론 수민의 결심은 사내다운 용단이라고는 할수 있었지만 의문의 여지도 많았다. 그는 지금껏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궁극목적은 타계급의 숙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다. 한때 문단을 지배했던 프로문학이 민족문제보다 계급문제를 중시했던것만 보아도 리해가 가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자기도 그들이 하는 혁명의 기본대상이 아닌가 하고 호림은 생각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기업을 살리겠다고 《황군》의 군수품을 생산한 대가로 천황의 표창까지 받았다. 또 자기는 일본의 명문대학까지 다니였으니 공산사회에서는 살아날 가망이 있을것같지 않았다.

《형님은 인간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지요. 그 길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일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어떻게 그리 쉽게 정할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나?》

《형이나 나나 자본가의 아들들이예요. 그들이 말하듯이 피착취자들이 창조한 잉여가치로 호의 호식해온 청산대상이란 말이에요. 형님이 그래 이걸 몰라요?》

《하지만 **김일성** 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시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잡아주시는 어버이이시란 말이야.》

《그렇지만 누가 체험해봤어요? 난 물론 경험 주의자는 아니에요. 운명문제이기때문에 그래요. 제발 깊이 생각해보고 결심하세요.》

한동안 고요가 깃들었다. 수민은 《칙칙》 소리를 내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올리는 젖은 솔가지 하나를 꼬집어내서는 재무지속에 묻었다.

《우린 오래 헤어져야 할가보구나.》

순간 호림은 성이 난듯 손도끼를 나무단우에 던지었다.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지요.》

짜락논이 퐁퐁 언 창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며 《사요나라.》, 《사요나라.》 하는 술취한 사람들의 목소리, 누군가가 동맹이친 유리병이 박살나는 소리가 싸늘한 대기를 찢으며 울려왔다.

다음날 수민은 떠나갔다. 그를 바래우고 돌아온 호림은 손가락을 호호 불며 창문에 낀 두터운 성에를 긁어냈다. 함박논이 펄펄 쏟아지는 거리로 아물거리며 사라져가는 수민의 뒤모습이 바라보였다.

《언제든 나를 찾아올 때가 있을게다.》

헤어질 때 수민이 하던 말이였다.

눈길우에는 행복인지 무엇인지 알수 없는 길로 이어지는 수민의 발자국이 하나, 둘 점점이 찍혀지고있었다.

그로부터 시일이 썩 지난 후에 호림은 수민이 중국 동북의 밀림에서 헤매고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일제의 강요로 중국전선에 《위문단》으로 파견되었던 수민은 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밀림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끝내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해방후 조국에 돌아와서야 것처럼 그림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었다.

이것을 알리 없던 호림은 해방후 행여 그의 소식을 들을가 하여 서울거리 여기저기를 찾아다니였다. 한청빌딩에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라는 간판을 내건문단의 좌익인물들도 만나고 이들과 대립해있던 민족문화파의 《중앙문화협회》사람들도 두루 만나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후 미군이 들어오고 나라가 북남으로 갈라지면서 정치적대립은 혈투를 동반하는 극단으로 치달아갔다.

그때 호림은 《문학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였다. 수민이 평양으로 갔다는 것이였다. 당시 미군정청의 엄격한 통제밑에 있던 남조선언론은 매일 북조선에서의 유산차청산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선전을 하고있었다. 호림은 그 선전물들을 보면서 수민의 운명도 끝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택의 그 시절 호림은 문학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리고말았다. 이런시대에 글을 쓴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라고 판단해버린것이다.

그는 자기의 나약하고 기회주의적행동을 세월 탓으로 변명하며 문우들과 작별하고 새 벗들을 찾아 나섰다.

어느날엔가는 세종로의 미군정청 청사앞에서

만난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다니다가 결국 《국군》복을 입게 되었고 후날에는 장교로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에는 미고문관의 지휘밑에 지리산의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주봉에서 뻗어내린 줄기들과 수많은 골짜기들에서는 유격대와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군인들이 대오를 못고 싸움을 계속하고있었다.

어느날 류달리 촉기가 빠른 호림은 숲속에서 녹록한 락엽을 밟으며 지나간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너털너털하게 찢겨진 누런 락엽을 쳐들고 움푹 패워진 큼직한 군화자국을 보는 순간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였다. 피빛노을의 후광속에서 땀발에 젖은 코수염을 때묻은 손으로 문대기는 그의 야생적인 모습은 이미 이전의 호림이 아니였다.

곧 묘하게 은폐된 빨찌산들의 아지트가 발견되었다. 고문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아지트를 원형으로 포위하고 좁혀들어갔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총탄과 수류탄이 연방 날아갔다. 교전끝에 아지트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그러자 그안에서 살아남은 몇사람이 맹렬히 사격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반사적으로 몸을 날린 호림은 귀뿌리를 스쳐지나는 죽음의 휘파람소리를 들었다. 몸이 땅에 닿는 순간 날쌔게 몸을 굴리던 그는 한참나 자기와 눈길이 마주치는 한 사나이를 포착하였다. 후닥닥 놀았다.

어쩐지 몹시 낯이 익었던것이다. 바위뒤에 몸을 숨긴 그는 그 사나이를 다시 찾아보았다. 그 사나이가 다시 자기쪽으로 낯을 돌리는 순간 그의 입에서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쳤습니까?》

한 사병이 재빨리 모로 기여오며 물었으나 그는 대답대신 《사격중지!》하고 소리쳤다.

《당신 김수민이 아니요?》

찰나 호림과 의혹에 찬 그 사나이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다.

《당신은 누구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림을 쩡 울리였다. 호림은 총탁에 머리를 후려맞은 기분이었다. 너무도 눈에 익고 귀에 익은 그 모습이고 그 목소리였던 것이다.

《수민형, 나요. 호림이요.》

그 사나이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같은것이 들려왔다. 이때 어디선가 한무리의 별떼가 열댓보박에 안되는 그들사이의 공간에 날아와 사납게 맴돌았다. 호림은 자기 눈앞에서 《붕 붕-》저리는 토실토실한 별 한마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 작은 털부숭이 생명은 뒤엎킨 마른 풀잎들사이에 떨어져 엷은 날개를 파르르 펴며 갈광질광하였다. 호림은 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서 일어섰다.

생명을 담보하겠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거절하였다. 오히려 호림을 설복하려 들었다. 이때 다른 군인이 뭐라고 소리치며 수민의 손을 잡고 뒤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매복한 사병들이 있었다. 그들은 더는 어쩔수 없다는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수민의 행동에 의아해하던 호림은 그가 자유로이 움직일수 없는 몸이며 여기에 군복을 입고 나타난것도 무자비한 강요때문일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호림이로서는 다르게는 생각할수 없었다. 고문관은 공격하라고 연방 소리쳤으나 호림은 응하지 않았다.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오.》

《닥쳐라.》

이때 수민이가 그에게 뭐라고 소리쳤으나 호림은 알아듣지 못했다. 혹시 자기의 처지에 대해 뭔가 알려던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했다. 사병들은 이미 은폐물을 벗어나 사정없이 내달리고있었다.

그들사이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있었다.

《죽이지 말라!》

호림은 두팔을 흔들며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그가 서너걸음 발을 옮겼을 때였다. 수민의 동료들중 누군가가 수류탄을 번쩍 쳐드는데를 보았다. 호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내 폭음이 울리었다. 잠시후 그 자리에서는 흰 연기만 너울너울 타래쳐오르고있었다.

호림은 두눈을 흘뜨고 우뚝 선채 한참이나 망연히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구름장들이 떼지어 밀려오면서 얼굴엔 습기 머금은 바람이 스치고 비꽃이 철갑모를 두드리는데 침침한 골짜기는 와스스 뒤설레이며 몸부림치고있었다.

국화며 코스모스며 갖가지 꽃들이 유별나게 많이도 피여있던 골짜기였다. 골짜기, 그 골짜기의 어수선했던 음영이 드리웠던 벗의 모습은 그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졌다. 모든것이 의문이었다. 그가 어떻게 거기에 나타났으며 그의 동료들은 누구들인지.

특히 알수 없는것은 그가 왜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였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때 그는 두가지로 추측해보았었다.

동행자들의 강압에 의한것이라는것이 첫째였다.

다음은 그때까지 완전히 기만당하고 살아왔거나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을수 있다는것이 둘째였다.

...있어버렸던 그 일에 대하여 다시 상기해보는 호림의 마음은 한없이 피로왔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폭이었던 말인가. 그것을 인정한다는것은 결국 그 사건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나 같은것이였다. 그는 부정하려 해보았다. 그러나 녀인이 보내온 편지의 내용은 너무도 절절하였고 그것을 부정할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도 없었다. 그 누군가가 죽였다는 주장은 이렇듯 단 한사람의 부정앞에서도 맥을 추지 못하는것이였다.

만약 자폭이 사실이라면 거기에는 자기가 모르는 수민의 인생이 겪은 사연이 있을것이였다.

그는 한층 깊은 사색이 어린 눈으로 편지를 읽

어내려갔다.

녀인은 총련동포들을 통하여 김선생이 해방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때 선생은 그이께 나라없는 설움에 피눈물 뿌리며 겪은 사연들을 다 말씀드리었다고 한다.

그의 말을 귀담아들으시던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애국적인 지성인들이 나라없는 설움을 누구보다 더 아프게 체험했을것이라고 하시며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고 한다. 그러시며 어제는 사랑은 있어도 그 사랑을 받아줄 조국이 없었고 열정은 있어도 피땀을 바칠 조국이 없었지만 이제에는 우리에게 우리 나라, 우리 조국이 있다고, 바로 이 손들에 의해 조국이 번영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수민은 울었다.

내 나라를 부르며 애타게 땅을 치던 손, 아무리 불려도 모욕밖에 차례지지 않던 자기의 두손을 꿈결에도 그리던 **김일성** 장군님께서 잡아주고 계시였다.

《장군님, 나는 사실 장군님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김일성** 장군님께 자기 가정과 자신의 경력에 대하여 다 말씀드리였다.

《내가 여기로 온것도 그 무슨 주의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장군님을 따라온것입니다. 저같은 사람도 장군님 따라 새 조국 건설에 참가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선생은 왜 부디 나를 따라오겠다는겁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보이시였다.

《그 길에 정의가 있다고 보았기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겨레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이께서는 크게 웃으시였다.

《그러면 선생은 혁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생의 그 말은 선생자신이 자기를 우리의 동행자라고 한것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뜻이 같은데야 왜 함께 손잡고 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힘껏 일해봅시다.》

그후 수민은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문학예술후문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새 조선 문학예술건설의 첫 폐지에 자기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김일성** 장군님의 방송연설에 호응하여 서슴없이 종군의 길에 나섰고 미제와의 싸움에서 영웅적인 최후를 마쳤다. 전후에는 누구도 그의 생사를 보증할수없었다.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그의 행방불명을출신과 연관시켜보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방후 평양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회고하시던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그 동무는 량심이 있고 지조가 굳센 지식인이였다고 하시며 자신

계서는 그의 행방을 영원히 해명못한다고해도 그가 마지막까지 떳떳하게 산것으로 믿겠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그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의 최후에 대하여 끝까지 해명해주시고 자녀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돌보아주시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호림은 쓰러지듯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것이 놀랍기만 하였다.

《나는 기자로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왔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오늘에 와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았어요. 나는 이미 처녀시절에 기자의 명예뿐아니라 인간적가치마저 잃어버린 존재였다는것을 늦게야 알았어요.》

호림은 글줄마다에서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것처럼 무책임하게 대답한 자기에 대한 호된 실책을 느끼었다. 호림에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우렁치 않게오는것이였다. 퇴역후 그는 항간에 떠도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다.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에 대한 이야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우에 민족을 놓으신다는 민족애의 리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이 앞섰으나 반공일선에서 한생을 바친 사람들까지 그분들의 위대한 인간애에 매혹되어 민족의 어버이로 따르다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기의 굳어진 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것을 느끼었다. 이 사상적 《진동》은 북남수뇌분들의 6월상봉시에는 파피적인 《지진》으로 이어졌다. 호림은 온 남녘땅이 《**김정일**열풍》에 휩싸였던 그 나날들을 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잊으려 했던 옛벗에 대한 진실이 자기의 한생을 송두리채 뒤흔들고있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녀인은 곧 호림에게로 떠나겠다고 이번에 자기를 수민의 마지막전투장소로 안내해줄것을 요구했다.

늦게나마 속죄도 하고 잘못 썼던 기사도 바로 잡고싶다는것이였다. 이날 호림은 잠들수 없었다. 수면제도 효과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밤이면 즐겨 켜곤 하는 적황색등을 켜다. 땀이 즐편한 얼굴이 빨갛게 드러났다. 잠옷바람에 오락가락하는 늙은이의 모습은 불빛한 공간을 떠도는 망령처럼 보였다. 《망령》은 한순간 그 무엇인가에 놀라 흠칫 멈춰섰다. 흰옷을 입고 머리를 마구 흐트러뜨린 피이한 로인이 피발이 선 눈으로 뚫어지게 마주보며 다가오고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는 자기의 인생이 비껴있었다.

허구한 날 아무리 길고 걸었어도 시작점에 끝점을 찍는 원이라는 도형처럼 자기라는 인간의 작은 한계를 벗어나보지 못한채 한생을 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가련한 인간.》

그는 자기에겐 죄가 있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괴롭지만 녀인의 그 청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 녀인과 함께 수민을 찾아간다는것은 철면피하고 비렬한 것이였다. 열려진 창문으로 다가가 무심결 창턱에 떨어진 락엽을 집으려던 그는 소스라치듯 놀라 물러섰다. 달빛이 어려 푸르끼레한 빛이 도는 그 락엽은 그에게 오래전 그 비극의 골짜기에서 보았던 락엽을 련상시켰던것이다. 그는 창문을 세차게 후려닫았다.

그 녀자는 무엇때문에 그 사실을 밝히려는것인가.

호림,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호림아, 너 이제 나를 찾아올 때가 있을게다.》

멀리 추억의 언덕너머에서 다시 울려오는 수민의 목소리였다.

어둠이 짙게 서린 창문에서는 종종 여문 별들이 바르르 떨고 지붕에서는 마른 락엽들이 버스럭거리는 소리며 밤을 즐기는 작은 생명들이 기와장을 허비며 날듯이 뛰어다니는 소리마저 포퓰이 들려왔다. 괴롭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9월의 밤이었다.

2

엷은 구름장들이 높이 떠도는 가을의 푸른 하늘가에 려객기 한대가 거대한 동체를 반짝이며 날아오고있었다. 진해라는 녀인이 정기려객기편으로 온다는 소식을 받고 비행장에 나온 호림은 손채양을 하고 비행기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파파 늙어버렸을 녀인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하지만 그 상상은 빗나갔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승강대를 내리는 려객들속에서 아주 젊어보이는 녀인이 자기를 부르는것이였다. 문득 지나간 세월이 되돌아오는것 같은 착각이 일어났다. 쌍꺼풀진 눈이며 입가의 작은 김을 보는 순간 그 녀자다하는 생각이 편뜻 들었다. 하지만 세월은 어쩔수 없는듯 진홍색의 머리수건밑에서는 은빛 머리카락이 가볍게 물결치고있었다. 비행장 가까운 식당에서 간단히 회포를 나눈 그들은 인차 택시를 타고 길을 떠났다. 녀인은 자기가 주문하여 만든 들국화다발을 안고있었다. 호림은 시내에서는 특이하다 할수 있는 그 꽃다발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낮익은 산천을 보니 지나간 옛시절들이 떠오르는군요. 여기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수 있다면, 하지만 시절은 다 가고 후회만을 안고 이 길을 가게 되었어요.》

녀인이 호림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서슬에 은빛테의 안경에서는 싸늘한 랑기가 내뿜기는것 같았다. 저 녀자가 자기에 대하여 모든것을 다 알고 온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다음순간 《사실 그 일은 호림씨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었지요.》하는 녀인의 선량한 말투에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것을 알았다. 어쨌든 그 말은 오히려 그

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었다.

《부인, 난 사실 그 일을 잊고 있었습시다.》

《누가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겠어요?》

호림은 전후에 자기를 찾아왔던 녀인을 상기하였다. 그가 수민에게 저지른 죄악은 결코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당직장교로부터 한 녀기자가 김수민에 대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호림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왜 꼭 자기를 찾아가 알아보도록 하였다. 대답은 사람들 속에서 김수민이 지리산에 나타났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리산 《토벌》에 동원되었던 호림이 뭔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여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안심은 되었지만 면회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의심을 샀는지 녀기자는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다.

별수없이 만나보기로 하였다. 밖으로 나가니 달린 옷을 입은 날씬한 몸매의 처녀가 정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호림은 제 먼저 면담실로 들어갔다. 그는 이미 녀기자에 대한 사전조해를 해보았으나 한때 수민과 한 신문사에 있었다는 것, 혼기가 썩 지난 로 처녀라는 것밖에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기자 선생은 그와 어떤 관계인가요?》

《저야 기자가 아닙니까? 그는 사람들 속에 잘 알려진 재능있는 작가였습니다.》

호림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마주앉아 오래도록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릇 신문이란 연단과 같은 것이다. 또한 집단적 정서의 늪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한 인간쯤 넉넉히 매장해버릴 그러한 늪을 처녀는 장교의 오랜 침묵과 꿔뚫어보는 듯한 눈길에 당황하여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조심히 살펴보았다. 호림은 갑자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움쭉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난 죄 많은 놈이야, 아니, 전쟁 탓이지.

모순된 생각들이 머리속을 맴돌았다. 갑자기 나타났던 수민에 대해 잘 알 수도 없었지만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이 체도를 반대하여 자폭까지 했다고 한다면 《보안법》이 어떻게 날을 세운 어수선한 시국에 그의 동료였다는 사실 하나라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또 자기가 그를 죽였다고 한다면 국군장교로서는 표창받을 수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으로 매장될 수 있었다. 어쨌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의 죽음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것이었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었다. 호림은 저 멀리 번쩍이는 강 수면 위에 떠있는 요트를 보았다. 바람때문인지 넘어질 듯 하다가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곤 하였다. 불쑥 자기도 그 요트를 탄 사람과 같은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인가 아버지도 말했듯이 운명이란 물결 위에 떠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요트에서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인간의 운명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다. 애초에 《요트》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런 자를 동정도 하지 않으며 동정할 처지도 못되는 것이다.

호림은 목단추를 채우며 녀기자에게로 돌아섰

다.

《나는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소. 하지만 듣건대》하는 식으로 허두를 떼었다. 바로 이것으로써 호림은 수민의 가슴에 두번째 《총탄》을 발사하여 50여년간 그의 삶과 그의 은인들의 진심을 모독하고 사회에 민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써 호림은 자기라는 인간을 자살해버린 것이었다. 뜻밖에도 처녀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호림은 그만 입에 물었던 담배를 뱉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버럭 소리쳤다.

《여보, 기자 선생, 이건 엄연한 사실이요.》

그로부터 얼마 후 호림은 우연히 그 녀기자의 기사를 보고 생각이 많았다. 수민이 그 누구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대목에서 오래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것은 자기로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았다. 명백한 것은 그때 산속에서 락엽속에 묻힌 그의 발자국을 누가 발견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호림 자신이였다. 그런데 왜 녀기자에게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 물론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었지만 본질은 살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수민과 갈라진 것도, 그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그때문이었다.

또 녀기자에게 진실치 못한 말을 꺼리낌없이 한 것도 그때문이었다.

호림은 그때의 일을 사과하였다. 그는 자기의 그 행위가 얼마나 추악했는가를 깊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녀인은 모두 자기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이를 사랑했었어요.》

순간 호림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순박하고 연약한 그 녀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예리한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차창을 열었다. 싸늘한 바람이 차안에 밀려들었다. 양복저고리마저 훌 벗어놓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녀인은 조용히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호림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처녀는 자기방문을 꼭 잠그고 오열을 터뜨리곤 하였다.

무던한 어머니, 시집을 안간다고 속을 쓰면서도 잔소리 한번 안하는 그 무던한 늙은이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불렀으나 대답대신 침대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다. 실컷 울어 마음이 진정되자 그는 책상 위에 초불을 켜 놓고 마주앉았다. 피빛 노을이 비친 창문가에 들국화꽃이 피어 있었다. 기다리는 것이 허망한 줄 알면서도 떠나간 님을 잊을 수 없어 그 자신이 심고 가꾸는 꽃이었다. 꽃잎들이 마르고 절로 떨어질 때까지 처녀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지나간 날들이 꽃송이들 너머 노을속에 펼쳐졌다.

처음 《학도병》출병을 선동하는 《인사》들을 매국노로 단죄하던 그의 정의감과 사내다운 기개에 반하던 일, 어느날 퇴근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거닐고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가를 생각하며 온밤 잠 못들던 일 등... 제일 기억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것은 언제인가 그가 먼 출장길에서 돌아오던 때의 일이었다. 진해는 한송이, 두송이 소복입은 처녀마냥 청신한 기운이 넘치는 들국화송이들로 다발을 엮었다. 역전으로 달리던 그는 문득 내가 왜 이렇가 하며 숫저운 생각에 잠시 주춤거린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날 꽃을 받아든 수민은 험한 태도로 이 꽃은 류달리 순결해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하는것이였다. 진해는 열겔에 《고마워요.》 하고는 얼굴을 붉히였었다.

《이런 꽃을 마다할순 없지.》

수민은 빙긋 웃어보이며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그때 자기의 손에 느껴지던 사나이의 역세고 따뜻한 느낌에서 그는 무한한 행복을 맛보았다. 돌사이는 이때부터 더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일제는 《위문단》이라는것을 만들어 문인들을 중국전선에 끌어내고있었다. 수민도 폐외로 될수 없었다. 그는 후날 탈출하여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를 찾아갈 결심을 하고 거기에 응하였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었다. 그의 이 결심을 눈치채고 묻는 진해에게 수민은 흥분된 어조로 자기속을 털어놓았다. 사실이구나 하고 생각한 진해는 그의 모습을 얼마나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진해는 아직 수민을 사랑하는 남자로서만 생각해왔지 그의 가슴속에 이런 꿈이 있을줄은 몰랐다.

미래, 그것은 사랑의 지속이고 승화과정으로서 가정에 잇닿는것으로 달콤한 상상만을 하여온 처녀였다.

《진해, 기다려주요. 들국화를 안고 기다릴 진해를 생각해서라도 꼭 돌아오겠소.》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린 행복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문에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가 말이에요.》

진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행복》은 깨여졌다. 진해를 바라보는 수민의 눈에는 추연한 빛이 어리였다.

《진해, 그것이 행복이란 말이요? 내 지금껏 진해를 너무 몰랐구만.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게 될 때가 있을거요.》

진해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민의 배낭을 꼭 잡고 구슬픈 목소리로 애원하였다.

《비키요!》

노기핀 목소리, 마루바닥을 《쿵쿵》 울리는 구두발소리, 쿵- 하고 문닫기는 소리.

...짧은 행복은 아픈 추억으로 남았을뿐이였다.

시들은 들국화를 바라보는 진해에게 옛 노래 하나가 떠올랐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밤
고요히 창문 열고 별빛을 보니
그 누가 불러주나 휘파람소리

만약 이때나마 수민의 말을 다시 새겨보았더라면...

그러나 처녀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문을 열며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저 꽃 내가 줘요.》

비분에 잠긴 그의 얼굴을 불기우리한 초불이 그물그물 비치고있었다. 너울거리는 불깃한 얼굴, 그 얼굴에 마구 형굴어져내린 불깃한 머리카락, 방울지어 흘러내리는 불깃한 눈물들...

그는 책상우에 하얀 원고지를 펴놓고 한자두자 또박또박 써나갔다. 그것은 하나의 비통한 추도문같은것이였다.

《김수민은 우리 문단의 자라이었다. 경향각처에 그를 기억하는분들이 많을것이다. 그는 오래전에 우리 곁에서 사라졌었다.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되였는가? 오래도록 수수께끼로 되여왔던 그 인물이 뜻밖에 유명처럼 나타났었다. 공산제도의 가혹한 《징병》에 의한것이였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그렇다. 이것은 강박에 의한 불우한 운명이었다.》

여기까지 쓴 그는 수민을 죽음으로 떠민 그 무엇인가에 대한 원망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그는 민족주의경향의 작가가 공산사상의 희생물로 되었으며 이로써 정녕 《실종》된 사실을 국민앞에 고하였다.

어느덧 날이 희뵤히 밝아올무렵에 진해는 원고를 안고 일어났다. 발밑에서는 어제 어머니가 내간 화분에서 떨어진 초들초들 마른 꽃잎들이 애처롭게 바삭거리였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 기다렸다는듯 《한 작가의 운명과 사회주의》라는 주제의 술한 기사들이 나왔다.

북의 사회주의는 철저한 계급배타적시각에서 동족도 인재도 아랑곳 않는다느니 사회주의와는 공존할수 없다느니 하는 따위의 과장되고 악의에 찬 꾀변들이였다. 이른바 중간지를 자처하는 일부 잡지에서도 령전시대의 비극이니, 이데올로기형 분단구조가 빚어낸 필연적결과니 하고 떠들고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이름도 모를 보수적인 물들로부터 진해에게로 위문편지들이 날아오는가 하면 기습적인 인터뷰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반공의 이름을 단 광신자들의 그 무슨 회합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거리북관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어떤자는 불행한 녀인을 위해 기금을 내오자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통일지향적인 사회각계의 진보적지식인들이 또 한번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것은 이 사회가 생겨난 이래 늘 그런것이긴 하지만 모두 반공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매국배족집단의 의도적인 조작이였다.

그자들은 사실에 있어서 민족이 아니라 저 자신들의 부귀와 독재직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 누구의 위협을 부르짖었다. 민족분열의 벽이 높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자들은 높아가는 제왕적특권으로 나날이 비대해갔다. 이자들이야말로 민족을 반역하고 외세와 손잡지 않고는 한시도 살수 없는 민족의 적이었다. 진해의 기사는 바로 이런자들의 통략물로 되었다.

그칠새 없는 선동, 란동... 사태가 뜻밖에 크게 번져가자 진해는 당황했다. 무서웠다. 자기가 잘 아는 한 작가의 창작실이 우익단체의 사측을 받은 강패들의 기습을 받은 날 그는 《애인의 복수를 호소》, 《절규하는 녀성》하는 따위 글자들이 너저분히 찍힌 신문을 찢어발기며 소리쳤다

사기한들, 망나니들, 철면피한 야만들...

인간의 아픈 마음을 정치적리용물로밖에 보지 않는자들이 저주스러웠다.

진해는 자기의 아픈 상처가 깊이 새겨진 남녘 땅을 떠나가버렸다. 회계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에야 그는 총련동포들을 통하여 수민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차는 벌써 지리산을 바라보며 달리고있었다.

진해가 《난 이번에 호림씨가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더랬어요.》하자 호림은 고개를 숙이며 스스로 눈을 감았다. 엉켜붙은 축축한 속눈썹들이 이따금 부르르 떨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였다.

그래도 한때는 그에게 존경과 우정을 간직했던 너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다 버렸느냐.

넌 그를 구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거지 저 순진한 녀성마저 우롱했다. 왜? 무엇때문에?...

3

차는 지리산밑에서 멎었다. 어느때인가는 이 나라 사나이들의 분노에 찬 총성이 그칠줄 몰랐던 항쟁의 산악, 지리산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털사들의 피어린 자취들을 되새겨주며 높이 솟아있었다. 호림은 착잡한 심정으로 산길에 들어섰다.

등성이, 골짜기, 그늘들 소리치며 흘러내리는 골개물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며 걸음을 옮기던 호림은 무엇인가 발에 걸채이는것에 놀라 흠칫 물러섰다.

이 무슨 피자육인가?

하지만 그것은 시들은 꽃잎들이었다. 푸른 잔디위에 빨간 이파리들이 점점이 흩어져있었다.

호림은 심장이 견뎌내지 못할것만 같았다. 그는 지도를 펼치고 기억을 더듬으며 옛 싸움터를 찾아나갔다.

《꽤 찾을수 있을가요?》

《뭐라구? 당신은 모진 녀자로구만.》

호림은 녀인의 피로와하는 모습을 보고 인차 후회하였다. 썩 하는 숲의 설레임소리가 멀리서부터 삼시에 가까와오더니 머리로 떡갈나무, 삼수리나무, 물참나무 등의 갈색잎사귀들이 후두두 떨어져내렸다. 그들은 어느 한 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갔다. 호림은 거기에서 역세계 가지를 뻗치며 자라는 한그루의 참나무를 보았다.

몰라보게 자랐구나.

옛시절에 아직은 애어린 이 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총을 쏘았었다. 늙어버린 줄기의 두터운 껍질속에, 가지와 가지들마다에 자기의 세대가 남긴 수많은 수난의 상처가 그대로 새겨져있을것만 같았다. 그것은 겨레가 겪은 가슴아픈 력사였다. 떨어져나간 자국들마다에서 흘러나온 진들이 어떻게 굳어지있는것이 보였다. 혹시는 세월의 년륜이 아니라 가실수 없는 아픔을 안고 저렇게 굵어진것이 아닐까

호림은 녀인의 손을 이끌고 등성이 하나를 돌아갔다. 그러자 꽃송이들이 흰 안개발마냥 피어있는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졌다. 골짜기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절벽이 우뚝 솟아있는데 그밑에 이끼오른 긴의자 몇개와 돌상이 놓여있었다. 인적이 드물어서인지 거기에는 락엽이 가득 쌓여있었다. 으스스하고 침침한 이런 곳에 무엇때문에 휴식터를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 었다.

갑자기 그쪽에서 락엽이 술렁이며 움쉴거러였다.

아마 땅속에 사는 어떤 생명이 움직이는 모양이었다. 바로 이 근방이 자기가 발견했던 그 아지트가 있던 곳이 분명했다.

날개를 활짝 편 한마리의 수리개가 그들의 머리위에 암회색그림자를 언뜻 던지며 소리없이 사라져갔다.

호림은 불시에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듯 한 기분에 휩싸였다. 어디선가 굵은 나무가지 하나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이 숲속에 잠자고있던 령혼이 쓸쓸한 락엽무지를 헤치고 다가오면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같았다. 잊으려 했던 모든것이 금시 움쭉움쭉 일어서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있는듯 했다. 문득 아득히 지나간 옛적에 거기서 자기를 바라보던 수민의 놀란 모습이 되새겨졌다.

호림도 천만뜻밖이어서 넋을 잃고 서있었다.

우정을 맺었던 자기들이 서로 목숨을 틀어쥐고 마주서게 될줄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호림은 무기를 버리라고 애타게 호소하였다.

이윽고 수민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왔다.

《우리가 헤어질 때 내가 한 말이 생각나지? 난 내가 선택한 길이 진정 나 자신과 겨레를 위한 길이였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길을 버릴수 없는거다.》

《아니 형은 저자들때문에 그러지요?》

호림은 어떻게나 그를 살려보려고 미군고문판에게 애원하였다.

《저 사람은 내 친구요.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인단말이요.》

고문관이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내가 만약 응하지 않으면 어쩔 텐가?》

지금은 전쟁이요. 군인은 자신을 위해 무자비해야 해.》

호림은 낮이 하얗게 질리었다.

이때 저쪽에서 쏜 총탄이 그들의 머리로 휘파람소리를 내며 날아지났다. 순간 고문관은 뒤라고 미친듯이 고아대며 호림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호림은 자기 이마에 총구가 닿는것을 느끼었다. 사병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리었다. 무참한 광경이었다.

호림은 분노했으나 항변의 말마디는 입속에서만 맴돌았다. 수민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왔다
《형제들, 총구를 돌리라.》

수치감에 모대기던 호림의 머리속에는 편뜻 이자를 썩버릴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으나 그것은 한 찰나의 생각일뿐이었다.

그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설 때 사병들은 묵묵히 눈길들을 돌리었다.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비극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곳이었다. 고문관은 다음날 또다시 한 인민군소부대의 포위를 시도하다가 죽었다. 뜻밖에 등뒤에 나타난 인민군전사의 서리찬 총탄이 경추를 부스며 가슴을 관통했던것이다. 그는 마지막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자기는 저승사자를 보았다고 하였다. 죽음보다는 죽음후에 다가올 운명이 더 두려운듯 공포에 몸을 떨던 그의 마지막말은 《어째서 신은 그를 나에게 보냈을까?》하는것이었다.

호림은 구원해주시 바라는듯 허우적이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얼마후 고문관의 시체를 땅에 묻으며 호림은 생각했다.

호림, 너는 네 손으로 이자를 죽여야 한다.

한삽, 두삽 흙을 던질 때마다 봉분이 쌓이는것과 함께 번민이 자라나고있었다.

너는 추악한 인간이다.

발치에 솟아난 봉분주위에는 피피한 정적이 흘렀다.

언제 날아내렸는지 까마귀 한마리가 뭔가 잔뜩 게발린 축축한 부리를 추켜들고 훌쩍훌쩍 뛰며 다가왔다.

봉분과 산 사람들을 거만한 자세로 바라보던 그놈은 갑자기 다리를 번디디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더러운 몸집에서 검은 솜털이 어스름이 깃드는 땅우에 소리없이 떨어져내리었다. 그때의 그 소름끼치던 광경은 허우적이던 고문관의 그 손과 함께 기억속에 깊이 새겨져 집요하게 따라다니었다.

까마귀가 어둑한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 손이 무덤을 뚫고 나와 그를 따라오곤 하였다. 때로 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저승사자의 손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환각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자기 행동으로 하여 결정된 래일의 운명을 예감하곤 하였다. 호림은 항변하고싶었다.

그 누구라도 달리 할수 없는 일이 아니였는가.

만약 수민이가 자기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가. 그것은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자들의 구슬픈 운명이 아닐가. 그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력사가 흘러갔다.

...호림과 녀인은 다시 걸음을 옮기었다. 녀인은 자기가 동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에야 호림은 녀인이 들국화를 안고 온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애수때문이 아니었다. ...

해빛찬란한 어느 일요일 아침 수민은 또다시 몇몇 작가들과 함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웠다. 누구나 바쁜 시절이었다. 새 조국 건설과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의한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누구나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누구보다 바쁘신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어떤 력사적사명이 자기들에게 맡겨질것이라고 수민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이께서 자기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려 일부러 시간을 내신것을 알았을 때 그는 눈굽을 축축히 적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 이야기하시었다. 그 이야기속에는 항일전구의 승전고소리, 밀영의 달밤에 울리던 사향가소리, 가슴아픈 빨치산추도곡도 있었다. 눈보라치는 광야, 밀림속, 험준한 산악으로 혈로를 헤치며 걸어온 위대한 력사가 있었다.

그 가슴벅찬 력사를 알게 되던 그날 들판에는 들국화가 많이도 피어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혁명군이 가는 앞길에도 이런 꽃이 많았다고, 이 꽃송이들에 오직 조국을 찾으러 자신을 따라 사신을 넘어온 전우들의 모습이 비껴 더욱 아름답게 안겨온다고 하시며 자기들에게 꺾어주시었다.

수민의 눈가에서 떨어진 눈물이 꽃잎에 맺혀 아침이슬마냥 반짝였다. 멀고먼 인생의 길에 이 꽃을 안고 가리라고 수민은 생각했다.

《그때 들국화에는 민족의 아버이를 끝까지 따라갈 순결한 마음이 어려있었어요.》

호림의 눈앞에는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수민의 강인하고 확신에 찬던 마지막모습이 편뜻 떠올랐다. 그때 수민의 시신을 향해 다가가던 그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부르르 떨었었다. 아직도 생명을 가진듯 한 맑은 눈동자를 보았던것이다. 수민의 손은 짝 쥐여져있었다. 생명을 버리는 순간에조차 그 무엇인가를 짊어쥐었던 손, 그때문에 그가 죽음을 초월하고있는듯 느껴지게 하던 그 손이었다. 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사람들의 녀에 깃들어 의혹과 죄의식과 자책속에 모대기게 한 그 손이었다. 호림은 수민의 손을 겨누고 총탄을 추켜들던 한 사병의 력을 쳐갈기고 제손으로 악마디치고 불에 그슬린 상처투성이손을 풀어보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직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줌안에는 새하얀 들국화 한송이가 들어있을뿐이었다. 접혀졌던 이파리들이 하나, 둘 펼쳐지자 금시 향내가 풍길듯싶은 생신한 꽃송이가 거치른 구리빛손바닥을 구울러 축축한 땅에 빙그르르 떨어져내리었다. ...

오늘 와서 다시 본 수민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위대한 영웅을 찾아 떠났던 그 길에서 목숨마저 바친 인간이었다.

호림은 묵은 락엽냄새가 씩씩히 피어오르는 숲 속길을 빙빙 돌았다. 그는 나무잎사귀들이 불빛 한 가울해살을 반사하며 자기의 발자국들 위에 떨어지는것을 보았다. 이 무수한 락엽을 헤치면 오래전 수민과 자기가 남긴 발자국이 그대로 있을 것만 같았다.

호림은 모든것이 석연해졌다.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수민의 발자국을 발견한 장본인이라는데 있는것이 아니었다. 수민이 걸은 그 자욱을 불행의 자욱으로 생각하고 산 거기에 있었다. 이 단 순해보이는 판단이 자기를 수민과 너무도 판이한 길을 걷게 한것이였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 그가 일제시기부터 받아 온 정신적영향때문이었다. 보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고를 하도록 강요한자들이 비렬하게도 인간의 생존하려는 본능을 약점으로 틀어쥐고있었다는것이였다. 하여 때로는 모순을 느끼면서도 끝내 건전한 사고를 할수가 없었다.

한 인생이 이렇게 흘렀다. 이렇듯 한목숨 살길을 찾아 벗도 랑심도 다 버리며 정처없이 걸어왔다. 그만이 그렇게 산것이 아니었다. 저자신들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채 호림처럼 우정을, 너인처럼 사랑마저 모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는 옛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을 최악의 길로 떠미는 그러한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다. 민족대결과 외세공조를 부르짖으며 력사에 도전하려는 그자들이다.

호림은 드디어 너인에게 모든것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자기가 인생의 청춘기에 어떻게 동행자로 만났으며 그가 자기를 어떤 길로 이끌려 하였으며 자기가 어떻게 그와 다른 길을 걷게 되였는가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리상을 안겨주고 이끌어주려던 귀중한 벗이였소. 그러나 나의 길은 비극의 수렁에서 끝나고말았소. 나같은자들로 하여 메워질줄 모르는 이 땅의 해묵은 수렁에서 말이요.》

너인의 낮은 하얗게 질리였다.

《비극이예요. 벗들의 길, 그것은 세월을 이어가며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할거예요.》

너인은 노을에 붉게 물든 꽃다발을 안아들었다.

《난 이 꽃을 한 벗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 우리 겨레 모두를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싶어요.》

이때 호림은 문득 머리를 추켜들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호림아-》하는 수민의 목소리가 울려오는듯싶었다.

저 하늘의 이끌거리는 적황색 불덩어리가 서쪽 산마루에 닿자 수민은 삽시에 불길처럼 번쩍였다.

○ 시 ○

그 눈부신 빛은 태양의 정다운 미소인양 그의 온 넋을 따듯이 어루쓸어주는것이였다.

《호림아, 너 꼭 나를 찾아올 때가 있을거다.》

호림은 가슴이 찢어헤남을 느끼며 너인과 함께 빛속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이 길이었다. 벗이 걸어간 길,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벗이 자기를 부르는 길, 민족의 아버이를 찾아가는 길에 자신과 겨레 모두의 삶이 있었다.

호림에게는 얼핏 이런 생각이 스치였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모순을 털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길만을 찾게 된다면 그때 진정 통일이 오고 행복이 오는것이 아닐가.

호림은 너인에게 새 기사를 쓰기 전에 함께 평양으로 가보자고 하였다. 너인은 쾌히 응하였다.

호림은 벗이 자기를 이끌려던 그곳, 빛을 그리 방황하던 벗에게 목숨바쳐 지킬 신념을 안겨준 그 땅을 찾아가보고싶었다. 하여 여생이라도 수민앞에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싶었다.

두 사람은 늙은쿨이며 잡관목을 헤치고 절벽밑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수민을 보았다. 그는 오늘도 자신이 택한 길을 자신있게 걸어가고있었다.

자기의 한결음한결음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리이고 불의인가를 알려주려는듯이 ... 자기가 갈래많은 인생길중에 진리로 가는 길을 다 알고있다는듯이 ...

그들은 꽃송이들을 내려놓았다. 꽃향기가 은근히 피어오르고있었다.

×

로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는셈이다.

펜을 놓으려니 문득 로인이 이야기를 마치며 하던 말이 떠오른다.

《난 이렇게 벗을 찾게 되였소. 의혹과 비애의 눈으로 찾아보았을 때 벗의 모습은 불행했고 오늘 자책속에 경의의 눈으로 찾아보는 벗은 궁지에 찬 모습으로 행복의 길위에 서있었소. 난 이번에 이것이 그만의 삶이 아니라는것도 알았소. 난 갱생의 기분이요. 선생은 문학인이라니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거요.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내 생애 대하여 말한다면 <벗을 찾아.> 라고 말하고싶소.》

백두산이 다가오고있었다.

백두산, 백두산은 자기의 드넓은 품에 안기려는 사람들을 한없이 너그러운 미소로 맞이하고있었다.

백두산은 마치 하늘을 떠도는 신비의 산 같았다.

자기의 품에서 뻗어나간 억센 줄기들에 의지한 이 땅에 흐르는 력사의 굽이굽이를 굽어보며 서있는 조종의 산이었다. 자기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처럼 억세이게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걸어서 자기우에 어서 오르라고 백두는 말하고있었다.

위대한 계승

이 시를 《ㄷ. ㄷ》결성 80돐에 드린다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

창공높이 휘날린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의 기발
마치와 닳, 붓을 아로새겨
변할줄 모르는 금강석인양
찬란한 빛을 뿌리는 기발!

내 삼가 옷깃 여미고
그 기발 우러르며
오 승엄하여라 궤력은 붉은기
승리만을 떨치는 당기
그 기발의 궤력임속에
사무치게 안겨오는

김일성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
내 금시라도 그분앞에 서있는듯

내 당창건기념탑앞에
조용히 걸음 멈추고
저 부각상 위대한 년대기에서
승리로 빛나는
장엄한 글발을 읽는다
타도제국주의동맹 - 《ㄷ. ㄷ》
순간 내 심장엔 격량이 일고
내 머리우에 솟은 마치와 닳과 붓
주체의 붉은 기발 되어 휘날리는듯

이 세상 위인들 력사에 남긴 말들
그 얼마나 많고많으랴만
이 심장을 쿵쿵 울리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승엄한 말
-주체! 선군!

내 승엄히 눈길을 들어보노라
력사의 그 시절
붉은 별무리들이 피로 새긴 글발
타도제국주의동맹 - 《ㄷ. ㄷ》
그 글발 금시 산 목소리로 울리는가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 동지는 영생하신다!

내 기념탑을 다시 우러르며
깊은 생각에 잠겨 력사에 묻는다
-그대 조선로동당이어
그대의 역센 뿌리 어디서 자라났느냐
그대 백전백승의 힘 어디서 솟는것이나

내 력사의 흐름을 거슬러올라
추억의 돛을 달고 감히 쓰련다
열정에 불타던 《ㄷ. ㄷ》의 별들
어떻게 이 나라에 해방을 가져오고
번영의 러명을 안아왔는가를

×

1926년
잊지 못할 그해 6월 5일
그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던분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였다
세상사람들은 말하였더라
-이젠 조선이란 더는 없다
이 나라엔 노예의 운명
망국의 력사만이 기록될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드님께
유언하시였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조국에 충실한 아들
아버님의 그 유언
심장에 새기시였어라
투쟁의 선언으로 결전의 맹세로
오!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

태양의 빛발을 막을자
이 세상에 그 누구냐!
그이께서는 아버님의 그 뜻 새기시며
결연히 투쟁에 나서시였어라

화성의숙에 새 기운이 움트던
1926년 10월 17일
화전현 수수한 농촌마을의
소박한 집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그이께서는 아버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투쟁과 승리의 해불을 드시였다

금시 온 방안 아니 온 나라 전세계가
거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안았다
높은 연단도 없었고
그 이름도 길지 않았다
- 《ㄷ. ㄷ》!
허나 그것은 진정
주체의 용암의 분출이였다
일제가 도륙의 칼을 물고 날뿔 때
대담무쌍하게 창공높이 들어올린
빛나는 두 글자- 오! 《ㄷ. ㄷ》
그 주인공, 영웅은
10대의 **김일성** 동지이시였다!

조선이여
그대 쓰러지기를 그 몇번
죽을 고비를 그 몇번 겪었더냐
이제 그대는 힘을 가다듬고
산악처럼 일떠서 불을 토하리라
온 세계를 개조하리라
《ㄷ. ㄷ》의 뜻과 리념대로!

그렇다! 10월 17일
그날의 《ㄷ. ㄷ》의 탄생은
이 세상 백만장자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부활은 자본의 주머니에 칼을 박았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력사상 처음으로
부르조아지들의 면상에
강타를 안기시였다
광야의 세찬 바람도
력사의 이 대사변을 기다렸는가
《ㄷ. ㄷ》에서 타오른 해불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그것은 누리에 붙는 불이였다

《ㄷ. ㄷ》의 탄생
그것은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의 선포
세계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의 선언이였고
조선의 자주성의 태동이였다

《ㄷ. ㄷ》의 결성
그것은 조선식사회주의의 뿌리
인류의 리상사회를 안아오는 해돋이였다

《ㄷ. ㄷ》의 진두에 서신 **김일성** 동지
그이는 진정 반제투쟁의 기수이시였고
《ㄷ. ㄷ》의 모든 승리의 기치
불타는 동지애의 기치였다
그이의 두리에 몽친 열혈투사들
그들은 모두 영웅들이였거니
비록 말은 적었으나
소박하고 충실한 이들
열병대오에 선 병사들처럼
령도자를 우리러 뜨거운 심장을 바쳤다

화전에서 타오른 불길!
만주광야를 뒤덮고
《ㄷ. ㄷ》에서 조선의 공청이 자랐다
조선의 용맹한 젊은이들 선언했더라
-제국주의자들아 함부로 날뛰지 말라

김일성 동지께서는 믿으시였다
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신 두자루의 권총
수백수천의 기관총 대포로 울리리라
그이께서는 선언하시였어라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김일성령수의 부름따라
조선이 자리를 박차고 일떠섰다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았다

조선의 명장 **김일성** 동지
선군의 검 백승의 검을 높이 드시였다
《ㄷ. ㄷ》의 기치밑에 빨찌산부대 태어났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총성을 울렸다

《ㄷ. ㄷ》는 공격전에 나섰다
김일성사령관의 뒤를 따라
총을 쏜 동지들
제국주의압제자들과의 결사전에 나섰다

오! 조국땅 보천보에 타오른 불길
《ㄷ. ㄷ》가 지핀 해방전의 불길
김대장의 열화같은 목소리

하늘땅을 진감하였어라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췌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ㄷ. ㄷ》의 붉은기 높이 들고
김일성 빨찌산들 원췌를 죽치며
불바다를 헤쳐나갔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결전장에서
백승의 새 역사를 수놓아갔다
해방된 조국땅 한줌의 흙에도
《ㄷ. ㄷ》 투사들의 피가 뿌려졌거니
《ㄷ. ㄷ》의 혈통을 이은
수백만 심장들이 세운 기념비들
영원한 빛을 뿌리어라

《ㄷ. ㄷ》의 투사들
당과 혁명의 주추들이 되었거니
《ㄷ. ㄷ》의 뿌리에서 태어난
강철의 조선로동당
오늘의 승리를 안아오고
래일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쳤나니

조선로동당의 구호
그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의 기치 높이 들고
조선은 힘찬 진군을 시작하였다
인민들은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으로 뭉쳐
산악처럼 일떠섰다

오늘의 역사가들이
두툼한 책에 기록하는 빛나는 위훈
화강석기념비에 새겨진
불멸할 위훈의 자욱자욱

×

내 마음속으로 조선의 목소리를 듣는다
-쉬-조용히!
김정일 동지께서 말씀하신다
열화같은 그이의 목소리
제국주의자들의 머리 위에 철추를 내리며
강산을 울리는 우뢰소리런가

담력과 배짱이 강하신분
위대한 **김정일** 동지

이 행성의 운명이
그분께 달려있다!
세계여 들으라!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심장으로 들으라
그이의 말씀은 신념의 선언이거니
이는 《ㄷ. ㄷ》 정신의 분출
이는 《ㄷ. ㄷ》의 리념과 사상이거니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다듬어
제국주의자들에게 총말을 고하리라
평양은 세상사람들에게
신심의 나래를 펼쳐준다

-절대로 노예로 살수 없다!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ㄷ. ㄷ》가 선언했던 자주의 기치
그 위업 계승하시는

김정일 장군

내 보노라
김일성 광장에 굽이치는 철의 대하
붉은기를 억세게 틀어쥔
일심단결된 수백만대오
내 들노라
그날에 울린
《ㄷ. ㄷ》의 불타는 목소리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로동자, 농민, 병사들이여!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이여!
녀인들이여!
총대를 더 억세게 틀어쥐라
영웅적조선인민
제국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머리우엔
《ㄷ. ㄷ》의 기발이 휘날리거니
한마음한뜻이 되어
제국주의와의 판가리싸움에 나서리

바란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더냐
평화는 지켜야 하는 법
이 행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불패의 힘은
주체, 선군, 총대!
그것은 뜨거운 심장과 피와 분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찬란한 미래가
하나로 응결된 융합체!

조선의 사회주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참된 사회주의
선군의 무지개 비끼여 더욱 빛난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

김정일 동지

눈바람 비바람 사나와도
가파로운 험한 령 넘으시며
언제나 전선길 걸으신다
병사들이 기다리는 초소를 찾아
그들과 때식도 함께 나누시고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신다

김정일 동지

그이는 진정 사회주의수호전의 기수
병사들을 위한 최고사령관이시나니
병사들 그이의 사상과 배짱을 따르고
그이를 받드는 길에
총폭탄되리라 맹세 다지여라

위대하여라 자주적인 조선인민
자기 운명의 주인된 긍지높은 인민이어
창조자 건설자 미래의 개척자
사상과 정의의 힘으로
백승을 떨치는 인민이어!
그대는 진정 사상과 신념의 강자!

조선사람의 손을
결코 부드럽다고만 생각지 말라
전야와 파수원을 가꿀 때
공장들을 일떠세울 때
미래의 설계도를 펼칠 때
그 손길 부드럽고 알뜰하지만
총대를 들어줄 때는
평화를 위한 무기를 들어줄 때
그 손탁 천년바위처럼 역세여라

이 행성을 들어친 그 힘
주체, 선군에서 오거니
내 진정 자랑하노라
조선의 역센 손!
이 세상에 처음으로
《ㄷ. ㄷ》의 횡불을 든 조선의 손!

오늘 제국주의는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발악한다
군사적공세와 봉쇄로

끓겨죽이고 말려죽이려 한다
저주받을 양키들
이르는 곳마다 류혈참극을 빚어낸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타고앉았다
꾸바와 베네수엘라를 삼키려 한다

일어나라 인민들이여

《ㄷ. ㄷ》의 기치 높이 휘날리며
원썬와의 관가리싸움에 나서라

김정일 장군께서는 가르치신다

자기 운명은 자신이 지켜야 하리!

공장의 기대와 작업대들
멸적의 기관총되어 불을 뿜으리라
총대는 만탄창되었거니
사람들이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총, 총쏘는 법을 배우라
《일당백》이 되라
양키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마약
보라!
양키들의 군사기지들
세계를 거미줄처럼 덮었다

보라!

저주로운 미군땅크의 무한궤도
남조선의 녀학생들을 깔아죽인다
침략자 양키들의 검은 군함
남조선항구에 빠졌이 드나든다
섬나라 《야스구니진자》 송배자들
남조선의 군부상층들
양키들의 피리에 춤을 춘다

이 행성의 모든 사람들이여
선군의 무기를 들어줘라
선군의 포화로
제국주의자들을 사방에서 박살내라!
선군으로 숨쉬고 힘을 키우며
선군으로 창조하는 주인이 되라!
선군으로 활로를 열어나가라!
그러면 그 어떤 봉쇄도
그 어떤 전쟁도
그대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리라
원썬들 감히 접어들지 못하리라

용맹한 땅크병이여
조종간 역세게 들어줘고
원썬들 향해 전속 앞으로!

선군의 기발 더 높이 휘날리며
 제국주의압제자들에게 불벼락 안기라!
 무한케도 지축을 울리며 땅크 달린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질풍같이 달린다
 땅크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쓰레기들을 짓몽개며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라!

×

지구여
 잠시 그대 자전을 멈추라
 그러면 저 멀리 들려오리라
 휘발하강변에 울려 퍼진
 그날의 필승의 노래와 함께
 우뢰처럼 터져오른 《ㄷ. ㄷ》의 함성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선군! 백승의 선군!
 이는 세상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것
 우리모두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줄기
 《ㄷ. ㄷ》가 추켜든 화불이여!
 해와 달이 영원하듯 이 행성의 등대되어
 더 붉게 타오르라!

《ㄷ. ㄷ》의 불길이여!
 추악한 제국주의무리 깡그리 불태우고
 온 세계를 붉게 물들이라
 더 밝은 빛을 뿌리라

투쟁과 영광의 상징
 《ㄷ. ㄷ》의 기발이여!
 이 행성우에 영원히 영원히 휘날려라!

(필자는 로씨야시인임)

◁ 평론 ▷

새로운 서사시적화폭의 창조와 구성의 기교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에 대하여-

리창유

최근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박운 작)은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고있다.

작품은 원쑤 미제의 서해안상륙기도와 무분별한 《금화공세》를 단호히 짓부시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앞당겨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준 소설이다.

소설이 거둔 성과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폭넓고 깊이있는 구성속에서 훌륭히 창조해낸 작품의 창작기교에 국한시켜 고찰해보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성은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아야 진실하게 될수 있다. 구성을 형상생리에 맞추는것은 결국 작품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의 요구에 튼튼히 발을 붙이게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다는것은 인간관계와 갈등, 이야기줄거리를 모

두 생명유기체와 같은 인물형상의 고유한 생활의 흐름에 맞게 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생활의 흐름, 다시말하여 생활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하는것은 문학예술이 밝혀내야 할 첫째가는 문제이며 항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흐름은 작품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종자와 그에 따르는 문제설정으로 규정지어진다.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이 제기한 기본문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아침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이 승리가 가지는 세계사적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형상적 해명을 주려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령군술, 불같이 뜨거운 조국애, 혁명동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인민에 대한 고매한 덕성을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내각의 중요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뿐만아니라 전선시찰과 공장, 기업소, 농촌 현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연고자들과의 관계속에서 폭넓게 형상하여야 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제한된 공간속에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로 승화시켜 그려야 하였다.

실제상 이 장편소설의 구성이 시간적으로는 상

대적으로 짧지만 인간관계의 폭이 매우 넓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의 흐름과 그 요구에 따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4계단 전략적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진지방어를 벌려 이미 차지한 계선을 튼튼히 지키면서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는 미제놈들의 기도를 제때에 분쇄하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던 주체 41(1952)년 한해동안에 있는 몇몇 중요전투들과 현지지도의 로정들을 중요사건 혹은 역사적 배경으로 취급하고있지만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켰고 시대적화풍을 넓혀나갔다.

미제놈들의 서천상륙기도를 제때에 간파하시고 서해안방어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날뛰던 클라크의 《금화공세》를 일격에 분쇄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

어제는 평원군 원하리의 농민들을 만나시여 전 시농업생산을 늘일 방도를 의논하시고 오늘은 룡천군 하장리와 락원기계제작소(당시 명칭) 당세 포회의를 몸소 지도하신 아버지수령님.

불비 쏟아지는 전선의 용사들을 찾으시여서는 그들에게 무적필승의 용맹을 안겨주시고 도시건설부문과 건축부문 설계책임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승리할 래일의 복구건설과 수도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역사적인 그 나날들...

작품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사실과 실재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서사시적화풍을 폭넓게 그리면서도 그에 관련한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영웅적위훈을 세운 인민군장병들, 그리고 내각의 중요일군들과 후방인민들과의 관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훌륭히 형상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세계사적의의며 세계평화를 진두에서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형상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쏘련의 쓰딸린을 비롯한 중요정치가들, 중국의 모택동, 주은래며 중국인민지원군의 중요지휘성원들을 등장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의 수는 이름이 밝혀진 범위에서만 하더라도 근 70 여명에 달한다.

이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방대한 역사적사실을 편관시켜 전쟁 한해동안에 있는 몇몇 사건을 폭 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의 구성력은 참으로 놀랄만한것이다.

자칫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의 역사적사실을 형상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경우 작품의 구성은 평면성과 단순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것은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밀접한 내적련관을 가지기 힘들게 되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는 매 인물들간의 내적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그 모든 인물

들의 운명선들이 궁극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을 주축으로 하는 주선에 튼튼히 맞물리게 함으로써 어느 한 지선이라도 들어내거나 바꾸어 넣을수 없이 유기적으로 튼튼히 맞물려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의 구성이 립체적으로 짜여있다고 말할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선들이 많은나 구성이 산만하지 않게 보이는 비결이 있다.

작품의 몇장면에 약간씩 나오는 인물인 《설악산 2호》라는 대호를 가진 《뉴욕타임스》 기자 리지아선만이라도 두고 보자.

그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외로 파견한 지하공작원 리신해의 딸로서 미국에 영주하면서 단독으로 공작활동을 벌린다.

이 인물선이 부차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지선이라고 하여 작품에서 들어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쓰딸린이 《까계배》 도교선을 통하여 입수한 중요한 정보를 위대한 수령님께 시급히 전달하기 위하여 쏘련 국가안전위원회 특수경찰 책임자인 드루가대장을 우리 나라에 파견할 타당성이 없게 되며 미제의 신행식승기나 포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도 흥미진진하게 엮어질수 없게 된다. 더우기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리신 원대한 작전의 한 분야가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지지 못하였을것이다.

또 작품에 등장하는 인민군전사인 조순근의 형상이 극히 부차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지선으로 그려졌다고 하여 그의 선을 구성에서 들어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작품에서 중요인물로 등장한 박정덕과 류경수가 생사여부를 모르는 그 전사의 부모를 찾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며 조순근이 남조선군에 복무하던 한 고향내기인 김덕만을 설복하여 돌려세운 후 부상당한 몸으로 그의 등에 업혀 적후에서 아군진지로 돌아오는 희한한 장면을 묘사할수 없었을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을 주축으로하고 수많은 인물들의 독자적인 선들을 지선으로 하여 이야기가 복잡하게 엉켜있지만 이 지선들은 한줄에 꿰 것처럼 밀접한 내적련관을 가지면서 주선을 보강하는 위치에 놓여있음으로 하여 작품의 구성은 어느 모로 보나 조형미가 있게 립체적으로 잘 엮여져있다. 이것은 외궐을 타고 이야기가 평면적으로 흐르는 구성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 즉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을 주축으로 하는 해살무늬형의 립체적인 구성형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시공간상으로 지선들이 겹놓이기도 하고 대부분 경우에 지선들 호상간에는 아무러한 내적련관이 없다 하더라도 주선과 내적련관을 가짐으로 하여 그 어느 하나라도 들어낼수 없이 이야기가 잘 맞물리게 된다. 이리하여 이 작품의 이야기는 외형상으로 볼 때 기본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의 길이가 인물들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너비(횡적인 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짧다 하더라도 현재(작품에 취급된 전쟁시기)를 중심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부단히 오르내리다가 때로는 미래까지도(지선에서 이야기된 개별적인물들의 후기를 작가의 서술문으로 준 부분들) 제시하기도 함으로써 구성의 깊이를 잘 보장하고있다.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의 구성에서 찾아보게 되는 우점으로서는 또한 주선을 굵고 뚜렷하게 그어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겹놓인 지선들을 주선을 중심으로하여 튼튼히 잘 맞물리고 그것들 호상간의 비중을 주선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준것이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주선은 어디까지나 수령의 활동과 사색과정에 대한 이야기선이라고 할수 있다. 주선을 이루는 이야기는 수령의 심오한 내적체험과 남다른 심리세계, 비상한 천품과 위대한 품모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작가의 서술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수령과 중요상대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수령의 형상선이 주축으로 된다고 하여 그것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생겨나는 이야기와 별개의것으로 고찰하여서는 안된다.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의 주선을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은 어디까지나 수령님께서 미제놈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을 불의에 기습할 목적으로 벌린 서해안 상륙기도를 좌절시킬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내놓으시고 군단장 박정덕에게 그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신 이야기며 또 무분별한 《금화공세》를 물거품이되게 하심으로써 전쟁국면을 놈들의 패배로 치닫게 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과 후방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하신 력사적인 로정들에 갖든 이야기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내각성원들에게 혁명의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할 방도를 제시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에게 기울으신 동지적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등에서 주어지고 있다.

이 주선에서도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해안의 탁월한 전략전술로 미제놈들의 서해안 상륙기도와 《금화공세》를 짓부시게 하심으로써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교묘하게 획책하던 놈들의 기도가 전면적으로 파탄되는 이야기이다.

이 주선의 기본이야기는 작품에서 굵고 명백한 주축을 이루고있으며 주선의 다른 이여의 이야기 즉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마련하시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중요사적들이 실재적인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폭넓게 펼쳐져있다. 다시말하여 작품에서는 주선에서도 기본을 이루는 이야기선에 형상의 초점이 집중되도록 위대한 수령님과 박정덕과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다른 상대인물들과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선들은 이 기본이야기를 보강하는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주선의 주축을 굵고 명백하게 세울

수 있게 하였다. 때문에 작품에서 박정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부각시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상 작품에서 어버이수령님과 박정덕과의 관계 - 이것은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뿐만아니라 박정덕으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따라배워 실천행동으로 수행하는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 선군투사로 자라는 과정이기도 하다.

1 차진공때 락동강계선까지 자기 사단을 이끌고 나갔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의 포위속에서 사단의 위치를 알리지 못한 박정덕, 놈들도 그가 이끄는 사단이 더는 존재하고있지 못할것이라고 떠들던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그 사단이 존재할것으로 믿으신다. 그러던 박정덕은 적후에서 전과를 확대하면서 사단을 이끌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으며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수도 평양방위를 위한 전선서부 군단장으로 활약한다.

미제의 서천상륙기도를 제때에 간파하였으나 잠간 자리를 뜬 사이에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조직한 불순분자들의 암해책동을 즉시 포착하고 놈들의 상륙기도를 단번에 좌절시킨 박정덕, 그는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의도를 항상 한치의 드림도 없이 훌륭히 수행한 유능한 군사지휘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박정덕이 놈들의 테로음모에 의하여 부상당하게 되자 작주휴양소에 보내신다. 그러시고는 전선동부와 관련한 작전임무를 주시고 그후 전선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하신다.

박정덕은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놈들의 《금화공세》를 짓부실 작전안을 세운다. ...

일반적으로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그에 따르는 다면적인 해명을 위한 수많은 상대인물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하여 어떠한 문제해명을 중심에 놓는가 하는 기본이 없이 그 개개의 문제해명을 똑같은 비중으로 놓고 이야기를 펼친다면 이러저러한 상대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벌어지는 주선의 이야기가 구성의 기본골격이라고 할수 있는 주축이 없이 똑같은 비중으로 《조립》되어 펼쳐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기본이야기줄거리도 뚜렷하게 안겨오지 않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은 주선의 기본대가 명백한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상대인물들과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주선의 이야기가운데서 박정덕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주축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일부 평자들은 이 소설에서 중요인물인 박정덕의 형상의 몫이 지내 크다보니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제가 작게 보이지 않는가고 반문할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지나친 속단이다. 왜냐하면 중요인물 박정덕이 격이 높게 형상된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과 주체

적인 군사전법들이 빛나게 실현되고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었음을 잘 알 수 있으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그의 불같은 동지애와 사랑, 크나큰 믿음의 세계가 더욱 뜨겁게 안겨오고있음을 형상적으로 깊이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지선들가운데서도 개개의 인물선의 비중을 균일하게 하지 않고 문제해명에 따르는 형상적몫에 따라 그 크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지선은 어디까지나 주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혹은 연결될 때까지) 상대의 인물선을 말한다. 이러한 지선들은 수령의 형상선과 독자적으로 설정되어 펼쳐지다가 주선에 합류되기도 하고 주선에서 갈라져 따로 펼쳐지기도 한다. 개개의 인물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선들은 형상과제에 따르는 작중인물들의 형상의 몫에 따라 그 크기와 비중이 결정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상대인물의 선이 중요위치에 놓여있다고 하여 다른 이여의 지선들을 거기에 많이 인입시킨다든가 그를 통하여 작품의 기본문제해명을 시도한다면 수령의 형상적몫이 적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령형상소설의 풍격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중요인물인 박정덕선에 비중을 많이 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돋구어주는 방향에서 그의 몫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 지선으로서의 그의 인물선이 수령형상선을 가리우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여기에 이 소설에 지선이 많을뿐 아니라 적지 않은 지선들이 박정덕선과 연계되어있으나 산만하지 않고 또 수령형상선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인입되어 온을 내게 된 성과의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상 작품에는 중요지선인 박정덕선과 연계된 개개의 지선들 즉 부관인 전무성, 그의 애인인 전선사령부 통신관 김인정, 장기명수인 전사 리만호의 선,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연 신기철, 박원진영웅들의 인물선, 윤애사를 비롯한 중군작가들의 선, 동향내기인 남조선군의 병사인 김덕만을 둘러세운 조순근선 등이 서로 겹놓이거나 평행으로 놓여있으나 이 선들은 궁극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주선을 보강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에는 이밖에도 정전담판회의장에서 미제놈들을 죽쳐대는 최고사령부 참모장 남일의 선, 장령인 류경수며 최현의 선, 내각과 행정경제기관의 중요성원들인 홍명희, 박정애, 허정숙, 리용, 김정희의 선, 수령님께서 전선과 후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원하리의 농민 김봉덕과 그의 딸 김상금, 락원의 신포향, 하장리의 전무순, 사령부작식대원인 장명선아바이, 책임부관 김명수며 부관 공정수, 외국기자 월프레트

버체트, 중국립시대리대사 사성문, 조선의 드루가대장 등 수많은 인물선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과 직접 연계되어있는 지선들이다.

작품의 크고작은 이 지선들은 작은 시내물이 저저마다 큰강에 합류되어 바다로 흐르듯이 제 나름의 각이한 생활경로를 펼쳐보이고있으나 주선을 보충하고 보강하는 위치에 놓여있음으로 하여 수령형상의 몫을 크게 하고 또 자기의 독자적인 형상몫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있다.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의 구성에서 특히 주목할만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품모와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수 있도록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을 실재한 인물과의 관계속에서 역사문헌적가치가 있게 형성한것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역사문헌적성격을 살리자면 중요인물들의 관계와 사건줄거리를 비롯한 작품의 기본대가 역사적사실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되자면 작품의 형상체계가 역사적사실의 기본흐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수령의 혁명활동로정, 수령이 기억하고있는 인물과 사건, 생활적내용이 실지 있는 그대로 재현되어야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중요인물인 박정덕을 비롯한 수많은 연고자들은 다 원형에 기초한 실재적인 인물들이다. 뿐만아니라 부정인물집단을 이루는 미제의 호전군사자들, 그에 추종한 인물들도 다 실재한 인물들이다.

작품에서는 실지 있는 역사적사건과 실재한 원형에 기초한 방대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실지 있는 그대로 실감있게 형상적으로 재현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역사문헌적의의가 있고 총서작품으로서의 성과의 한 측면이 있다.

작품에서는 역사문헌적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시기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로정이며 실지있는 의의있는 역사자료를 직접적으로 도간도간 삽입하고있다.

레전대 《금화공세》를 짓부신 전과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조중포로대표들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쟁포로대표자대회가 전세계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한 후 미군 dots준장에게 제기한 요구조건사항과 같은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자료들은 그 자체로도 역사문헌적가치가 있고 또 작품의 이야기를 실재한것으로 실감있게 펼쳐보임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교양적 가치를 가진다.

공부정인물의 개인경력과 생활적취미 등에 대한 자료도 생활소재의 실재성과 그 의의를 강조함에 있어서 자못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된

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적지 않게 삽입하고있다. 쓰팔린, 모택동 등 인물들의 생활자료, 부정인물 클라크의 가계와 녀성관 등이 그 레증으로 된다.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은 또한 여러 긍정인물들의 지나간 생활경로와 련정관계 등을 처음에는 집약시켜 서술하고 그것을 이야기의 전개과정에 점차 확대시켜 보여주는 독특한 형상수법으로 지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예술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야기의 속도감을 보장한 특징적인 구성수법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부차적인 인물일지라도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후의 운명선이 타당한 계기를 통하여 서술됨으로써 그 인물의 생활경로에서 찾아보게 되는 특징적인 점들이 일목료연하게 느껴진다.

박정덕의 지나간 과거생활에 대하여 소설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있다.

《농가, 석하리의 고향집, 초가이영, 가물거리던 등잔불... 그리고... 광야, 광야... 비바람, 가도가도 끝이 없는 수림과 잡관목들... 광야에 메아리치던 말울음소리, 말발굽소리 ...

번개치고 눈보라 울고 바람쌌던 그 길, 정처없이 달린 그 길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던가. 그것은 젊은 녀의 몸부림이었다. ...

외로운 새는 몸부림쳤으나 나래를 퍼덕일 창공이 없었고 갈길 잃은 배는 폭풍속을 헤매며 항구를 찾았으나 등대가 비치지 않았다. 젊은 녀이 그린것은 안식의 항구가 아니었다.

해비치는 투쟁의 해안, 그로록 그려온 혁명의 품, **김일성**장군님의 전설적인 빨찌산부대였다.

가고싶었던 길, 에돌아온 길, 닳을 내린 곳...

해방후에야 비로소 박정덕은 것처럼 그리던 태양의 품에 인생의 닳을 내리고 새 삶의 길을 찾았다. ...》

작품의 첫 부분에 서술된 그의 과거사는 극히 함축된 시적표현으로 이렇게 간단히 주어지고있다. 그리고는 작품의 도간도간 그의 결혼생활이며 두고 떠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나중에는 안해가 그에게 보낸 편지가 서술되고있다.

전선사령부 통신군관인 김인정의 과거사도 이런 수법으로 소개되고있다.

그는 전선에서 군관이었던 오빠 김광선이 전사

한 소식을 들은 후 어머니마저 미제의 함포사격에 의해 폭사하자 전선과전장을 손에 쥐고 련차에 오른다.

작품에서는 그의 과거생활을 회상의 수법으로 이렇게 간단히 집약시켜 서술하고있다.

《어느때든 그 녀자가 인생의 그 뒤구간으로 돌아 갈수 있을까?

거기에는 사랑과 우정, 진심과 희망이 있었고 애모쁜 속삭임과 랑만의 채광이 있었다. 다정한 학우들, 대학기숙사 그리고 축구경기장, 문수봉의 애어린 나무모, 철학부의 그 미남자, 소비조합화물차... 하지만 이제 그 모든것은 지나가버렸다.》

작품에서는 매 인물의 과거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이렇듯 단번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주지 않고 때로는 집약적으로 주고 그 다음 이야기의 진전과정에 보다 상세하게 생활적으로 주고있다.

말하자면 모든것이 단번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도 작품의 중간 혹은 마지막에 가서야 다 알수 있게 하고있다.

이것은 작품의 첫 부분만 보아도 뒤가 빠드름히 내다보이는 구성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을 보장하는 구성을 지향하면서 작가가 탐구해낸 하나의 독특한 형식의 이야기전개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

이상에서 나는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이 거둔 창작적성과를 구성의 측면에 집착시켜 론의하였다.

총서에 속하는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구성의 완벽성을 기하는 문제는 그의 력사문헌적가치와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로 하여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 수령의 형상선을 주축으로 하고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사건속에서 원형의 실재한 생활을 펼쳐보이는 구성형식을 새롭고 다양하게 창조하는 문제는 사실상 일반장편소설에 비추어 볼 때 비할바없이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을 기울일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하여 창작에서 공인된 《처방》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보다 새로운 형상세계의 높이에서 독특한 구성형식을 탐구하는것, 그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창작목표의 하나이며 새로운 형식의 창조이기도 하다.

|| 추억에 남는 시 ||

용 서 하 시 라

-돌격을 앞두고-

김 철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용서하시라 선생님이시여
화학숙제도 제대로 안해오고
대수공식도 외우지 않아
선생님을 애먹이던 이 제자를
선생님이시여 용서하시라

그러나 용서치 마시라 조국이여
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하여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치 마시라

허나 나는 그대의 아들
내 혈전장에서 용맹하려니
잊지 마시라
내 최후의 돌격전에서
기발들고 나가다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여
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
그리고 용서하시라

나는 1 월을 사랑한다

홍준성

창밖엔 함박눈 펄펄 내리고
때없이 눈보라 기승부러도
뜨거움에 이 가슴 젖어만 드는
1월, 1월을
나는 사랑한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지
총잡은 병사들이 보고싶어 왔다시며
긴긴밤을 달려오신 피로도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던 장군님 어깨우에
흰눈이 조용히 내려쌓였지

그렇게 찾아오신 그 걸음으로
제일 먼저 병실부터 들리시여선
훈훈한 별세상에 온것 같다고
훈련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마디마디 정을 담아 말씀하실 때

방울방울...
물방울 떨어지는

야전 복차림의 그이를 우러르며
우린 왜 목매여 목이 메어서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셨던가

진정 차디찬 겨울은
장군님 야전복자락으로
다 막아주셨기에
병사들은 언제나
따뜻한 봄날에만 살고있었으니

아, 정녕 병사들의 아버지
한없이 자애론 그이를 모시여
함박눈 내리고 찬바람 몰아쳐도
1월은 따뜻한 내 삶의 봄!

하기에 사랑한다
심장으로 온넋으로
위대한 태양의 그 품에 안겨
가장 값높은 내 삶이 빛나는
나는 1월을 사랑한다!

위대한 수령님 찬양
95년

전국문학축전작품

□단편소설□



고향으로 가는 길

정 기 종 그림 김 광 석

1953년 초봄이었다. 아직 승리의 날까지는 4개월을 앞두고있던 그때 내가 속해있던 보병대대는 피흘려 싸우던 천계령을 다른 구분대에 넘겨주고 후방으로 들어갔다. 휴식도 하고 대렬정비도 하기 위해서였다.

대대는 철도역을 끼고있는 어느 한 산간마을에 자리잡았다. 대대라야 부상병들까지 후송하다나니 정원의 반수인원도 되나마나 했다. 그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었으므로 죽도록 피로했었다.

특무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주걱으로 늪국통을 땡땡 두드리며 소리치는것도 아랑곳 않고 정신없이 자고 또 잤다. 그렇게 죽은듯 뿔아떨어진 나를 중대장대리임무를 맡고있던 우리 소대장이 코를 잡아 비틀어 깨웠다. 나는 중이 났으나 하는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불에 타서 엉망이 된 솜모자를 눌러썼다. 작은 옷방에 여러문명이나 가득 들어차있었으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저녁때였다. 하루동안 내쳐 왔는지 아니면 벌써 이틀째나 자고있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소대장이 나를 마구 잡아흔들었다.

《그만 잤으면 됐어. 그래도 구대원이라구...》

그는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뜨직뜨직 말했다.

《대대장동지가 동물 자기 연락병으로 보내달라누만.》

《예?...》

나는 놀랐다 소대장이 롱을 하는게 아닌가 해서 자꾸만 깔깃깔깃해지는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그를 쳐다보았다. 흔히 연락병이라면 아주 작고, 날래고, 귀염성스러운, 노래에도 있듯이 《랑볼 붉은 연락병》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나로 말하면 볼품없이 큰 키에 수염러자리가 거뭇거뭇해지고 있는 구대원이 아닌가!...

소대장은 나의 얼뻔해진 표정에 그만 피식 웃고말았다.

《그래 가겠나, 안가겠나?》

《안가도 된다면... 안가겠습니다.》

《가야 해. 가되 면도는 하고 가라구. 그냥 갔다간 대대장동지가 그걸 다 손톱으로 뽑아던지라고 할거야!》

소대장은 자기의 야전가방에서 몹시 아끼는 전리품 면도칼까지 꺼내주었다.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대대장은 항일투사로서 전 대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휘관이다. 일상시엔 엄격하고 싸움마당에선 용맹한것으로 하여련합부대적으로 잘 알려져있다. 전쟁 첫날부터 보병대대를 지휘하고 있는데 항일투사이며 훌륭한 군사지휘관으로서 왜 그 이상의 직무로 옮겨가지 않는지 이상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자신이 대대장이상의 직무는 자기능력에 닿지 않는다면서 매번 거절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그는 하루만 면도를 안해도 광대뼈어렵까지 온통 재가루를 뿌려놓은것처럼 수염뿌리들이 시꺼멓게 돌아나는 것으로 또한 유명하다. 그때문에 그는 매일 면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들이는데 그래서인지 수염을 밀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무섭게 달군다고 한다.

나는 면도를 하고 불에 탄 솜모자도 기웠다.

그러느라고 날이 어스크레해져서야 보충을 메고 멀지 않은 대대부를 향해 떠났다. 길을 가면서 왜 대대장이 나를 굳이 연락병으로 불렀을가하는 생각을 거듭하였다.

...대대장이 나를 알게 된것은 천계령의 서남쪽 돌출부를 차지하고있던 우리 소대 전호속에서였다. 그때 나는 박격포탄파면에 엉마처럼 찢겨진 배낭속에서 군공메달을 꺼내어 군복안섶에 수류탄고리로 단단히 꿰매달고있었다. 대대장이 온것도 모르고있다가 그가 《동무! 이름이 뭐요?》하고 물어서야 벌떡 일어났다. 나는 규정대로 최형이라는 이름을 뱉었다. 대대장은 실눈을 하고 나를 유심히 보았다.

《무슨 장수이름 같군... 몇살인가?》

《스물한살입니다.》

《고향은?》

《화도입니다.》

《화도?... 그게 어텐데?》

나는 흥남알바다에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섬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음— 그러니 고향친구로군!》

그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교통호를 따라 걸어갔다. 나는 다시 쪼그리고 앉아 하던 일을 마쳐 끝내었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즉 대대장은 내가 《고향친구》라 해서 그때 벌써 점찍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대대장은 화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았는가?! ...

대대부에 가서 보고하니 대대장은 반가와했다.

《아, 고향친구!... 같이 싸워보자구.》

나는 아무말없이 허리를 꼴꼴이 편채 그를 마주보기만 했다.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대대장은 나더러 쉬엄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며 탁자있는데로 급히 갔다. 그가 송수화기를 들며 다시 나에게 손짓을 해보여서야 나는 보총을 벗어 벽에 세워놓았다.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서 대대장만 쳐다보았다.

사실말이지 나는 그때 그 전화가 나의 한생에서 가장 가슴아픈 추억의 하나와 이어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저 대대장의 얼굴표정에서 무엇인가 분간해보려고 애쓰며 묵묵히 서있었을뿐이다.

《...예, 말씀하십시오. 듣고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대대장은 흥분하고있었다. 송수화기를 다른 손에 바꾸어쥐고 또 몇마디 《알았습니다. 예, 예.》하더니 별안간 아주 낮은 소리로 속삭이듯 묻는것이였다.

《저 ... 한가지 제기할수 있습니까?》

상대가 허락했는지 그는 서둘러했다.

《거기 새로 조직된 방어려단엔 좀 늦게, 한 이삼일 늦게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무어라고 나무라는것 같았다. 공명판을 울리는 새된 소리가 나의 귀전에까지 날아오군 했다. 그러자 대대장은 입을 꼭 다물었다. 두눈이 번쩍이고있는것을 나는 보았다.

이윽고 상대의 추궁이 끝났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대장이 또 서둘러했다. 《제발 부탁하는데 이번 전투까지 마쳐 치르고 가게 해주십시오. 3일후엔 거기 가서려단을 인계받겠습니다.》

그제서야 나도 대강 사태를 짐작할수 있었다.

드디어 우리 대대장이 새로운 직무로 옮겨져 있었는데 그는 당장 있게 될 어떤 중요한 전투임무를 마쳐 수행한 다음 가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였다.

전화를 걸어온 상급참모부의 상관이 어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아마 려단장의 새 직무에 즉시

착수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을것이다.

대대장의 숨결이 거칠어지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억눌린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강동무! 내 오늘 그저 동무로서, 산에서 같이 싸워온 전우로서 한마디 좀 하지요. 그래두 난... 강동무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믿었었는데... 뭐 내가 정든 대대를 뜨기 싫어서 또 구실을 붙이는줄 아요? 물론 명령이니 군말없이 복종해야지. 허지만 강동무, 이번 전투까지 치르고 가도 될게 아니요. 바로 거긴... 내 고향이란 말이요. 17년만에야 오는!... 그래서 부탁하는거요. 강동무! ...》

침묵이 흘렀다. 오래 계속된 침묵이였다. 아직 영문을 다 알지 못하는 나도 꼼짝하지 않고 굳어진채 기다리고있었다.

마침내 저쪽에서 무어라고 했는데 아마 좀 기다리라고 한것 같다. 대대장은 무거운듯이 송수화기를 들고있던 손을 내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수그린채 굳어져버렸다.

어느덧 대대부는 캄캄해졌었다. 나는 등불을 켜 생각을 했다. 조심스럽게 성냥을 꺼내어 드욱 굵자 대대장이 흠칠 몸을 떠는듯 했다.

탁자 저쪽의 벽가에 가스등이 걸려있었다. 나는 두번째 성냥가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리로 다가갔다. 그 순간 요란스러운 전화종소리가 또 울렸다. 어느새 대대장은 송수화기를 거머쥐고 《예. 대대장 듣습니다!》하고 쨍쨍 웨쳤다. 나는 가스등에 불을 달며 면도칼에 깎이여 퍼렇게 된 그의 볼편을 바라보았다.

대뜸 그의 얼굴이 환히 밝아진듯싶었다. 퍼릿한 두볼을 실룩거리며 달달 말라서 터갈린 입술을 우물거리더니 《고맙습니다. 참모장동무!》하고 거친 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청은 수락된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든 대대와 함께 자기 고향을 해방하는 전투를 하게 된것이다.

그날밤 대대는 철도역으로 나가 이미 준비되어있던 군용렬차에 올랐다. 다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궁금해했다. 방금 전선에서 교방해들어온 대대를, 피흘리고, 지치고 인원보충도 못한 대대를 또 기차에 태웠으니 그럴만도 했다.

지휘관들은 자라고 명령했으나 전사들은 거의나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대대장도 화차벽에 기대어 앉아 졸담배만 태우고있었다.

몹시 추웠다. 깨어진 화차벽 널빤새로 휘파람소리를 내며 쓸어드는 찬바람때문에 가슴이 막오그라들 지경이였다. 누군가 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이보게, 동문 알지? 지금 우린 어디로 가고있나?...》

나는 머리를 돌려 성가시게 구는 그 친구를 흘

겨보았다

《어데로 가긴, 전선으로 가지.》

그러자 그 친구는 코방귀를 끼었다.

《원, 대대장련락병이라는게... 우린 지금 전선 쪽이 아니라 황해도지경을 달리고있어.》

《?!...》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먼구스러워 코를 쿵쿵 내뿜며 대대장쪽을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군용외투가 흘러내린것도 모르고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굴뚝같이 담배연기만 내뿜고있었다.

《바로 거긴... 내 고향이란말이요. 17년만에야 오는!...》

대대장이 송화구에 대고 부르짖던 그 말이 다시 귀전에 쟁쟁 울려왔다. 하다면 그의 고향은 어데일가? 전선을 떠나 고향을 해방하는 전투를 위해 황해도지경을 달리고있다면 혹시 그의 고향은 어느 바다가의... 아, 잠깐!... 비로소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그 역시 어느 섬태생이 아닐가?... 수천수백에 달한다는 우리 나라의 많은 섬들가운데 어느 하나인지도 모른다.

나는 머리를 끄덕거리며 돌비록처럼 꼼짝 않고 있는 대대장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구렁소리에 놀라 잠을 깨보니 기차는 어느 한적한 산기슭에 멎어있었다. 우리는 모두 화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얼마후 기차는 기적소리도 없이 떠나가버리고 대대는 철길우에 정렬했다. 규정의 보고들이 있는 다음 대대장은 대대의 전투임무에 대해 말해주었다. 비로소 우리는 상급참모부에서 우리 대대를 서해상의 섬들을 해방하는 전투에 투입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공격이도가 섬에 있는 적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비밀, 은밀성이라고 대대장은 강조했다. 섬에 있는 적들과 내통하는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낮동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숙영하며 전투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후 우리는 소음을 죽이며 행군해갔다. 수백의 군화발들이 두덕두덕 언땅을 구르며 가고 하늘에서는 추위에 떨던 파아란 별들이 우리를 따라 새벽을 향하여 흘러갔다.

그렇게 한동안 갔을 때였다. 별안간 대대장이 나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이듯 말했다.

《련락병, 들리지?》

《...》

아마도 그때 나의 생각은 다른데 가있었던것 같다.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몰라 머뭇거렸다.

《잘 들어보라니까. 응?... 들리지?》

《...》

나는 귀전을 마구 문질렀다. 그러자 땡땡 얼어붙은 야밤의 적막을 흔드는 무거운 발걸음소리와 가쁜 숨소리가 고막을 울리었다. 나는 어정쩡해서 눈을 두릿거리며 새벽어스름에 덮인 야산들을 둘러보았다. 그때 대대장이 또 거센 음성으로 속

삭이였다.

《저쪽이야, 잘 들어보라, 응?... 파도소리요!》

그는 나의 귀전에 졸곧 뜨겁고도 소란스러운 숨결을 퍼붓고있었다. 흥분에 못이겨 나의 어깨를 짹 들어잡고 가는통에 나는 자꾸만 비칠거려다.

《저 앞바다에 내가 나서 자란 섬이 있소. 오석도라구... 해방후에도 적들이 차지하고있어 아직 가보지 못했어 ...》

그는 자기자신이 행군도중 일체 발언을 금지시켰다는것도 잊은듯 했다.

《정말 오고싶었소. 산에서 싸울 때도 늘 고향에 가는 꿈을 꾸곤 했소. 고향에 돌아가면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리라 생각했드랬지. 그래서 어느해 겨울 밀영에서 군정학습을 할 때 글짓기가 있었는데... 난 꿈 이야기를 썼소. 현대 그 글을 김일성장군님께서 보아주실줄이야...》

《김일성장군님께서요?》

《그래, 장군님께서선 내가 아들녀석도 고기배를 타게 하겠다고 쓴걸 보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이왕이면 왜 자그마한 목선에 태우겠는가. 큰 기계배에 태워야지 하시지 않겠소. 꿈을 꿀바엔 좀 더 욕심을 부려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라를 해방하고 산갈이 큰 배들을 무어 바다에 띄우자. 그땐 동무의 아들을 큰 기계배의 선장으로 키우자고 하셨소. 정말 좋은 밤이었지. ...》

어느덧 술한 전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한덩어리가 되어 움직여가고있었다. 그들중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다.

《대대장동지! 지금 아들이 몇살쯤 됐습니까?》

《아들?!》

대대장은 나의 어깨우에서 손을 내렸다. 나는 그가 몹시 당황해하는것을 느꼈다.

《그래 아들일거야. 아들이구말구》하고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건 틀림없어. 17년전 내가 섬을 뛰쳐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해산달이였으니까... 그애 나이도 인젠...》

그는 말끝을 맺지 못했으나 우리는 그가 말하려고 한 의미를 충분히 짐작했다. 그리하여 다들 한동안 아무말없이 걷기만 했다. 그러다가 별안간 내가 밟어서는 통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부딪쳤다.

《왜 그래, 련락병?》

대대장이 물었다. 나는 잠시 귀를 강구하고있다가 흥분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대대장동지, 파도소리가...들립니다!》

분명 그것은 파도소리였다. 거창한 바다의 장려한 숨결, 대기를 흔드는 물결의 설레임소리... 그렇듯 귀에 익은 파도소리를 그제야 듣게 된것이 놀라왔다. 나는 보충부혁을 짹 부르고 남다른 느낌에 몸을 떨었다.

대대장이 나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

날이 밝자 대대는 어느 골안에 숙영을 폈다. 밤이 되면 두개의 섬을 동시에 공격한다고 했다. 대대장은 중대장들을 불러 경계조직을

한 후 휴식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는 나더러 면소재지로 가라고 했다.

우리는 간조때의 황량한 바다기슭을 따라 걸었다. 동해의 섬태생인 나는 것처럼 한산하기 그지없는 바다의 풍경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비릿한 해감내가 코를 찔렀다. 멀리 밀려가는 누르끼레한 물결은 흙탕물의 이랑을 지으며 부글부글 끓어번졌고 물결우에 떠밀려가는 성에장들은 서로 부딪쳐 깨여지고 부서지고 시꺼먼 갑탕에 구겨박히기도 했다. 거품처럼 승승구멍이 나고 잔뜩 부풀어오른 거뭇거뭇한 성에장들이 자맥질하며 떠가는것을 바라보며 나는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대대장의 눈길은 멀리 흐릿한 하늘가에 아슴푸레 바라보이는 섬쪽을 견주고있었다.

《날이 흐려서 잘 알리지 않는군... 그때도 이런 날씨였지. 춥고 바람이 세고》

나는 그가 17년전의 멀리 흘러가버린 과거를 바라보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하여 그를 방해시키지 않을 작정으로 조금 뒤전에 떨어졌다. 그런 줄도 모르고 대대장은 계속했다.

《거긴 바로 선바위톱이었지. 거기서 난 수업이 무릎에까지 닿았다는 김렬이라는 옛날 장수애기를 했구.》

나는 그의 뒤에서 아무 기척도 없이 걷고있었다. 그가 말하는 선바위톱이며 수업쟁이장수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척 궁금했으나 잠자코 입을 다물고있었다.

대대장은 얼마후에야 머리를 돌렸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도 김렬이란 장수가 나오던가?》

내가 그런 장수이름을 들은적이 없다고 하자 그는 자못 놀라운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고려때 만노라는 녀진족의 왕을 처이긴 장수가운데 김렬이란 구레나룻을 기른 장수가 있었지.》

그도 저 섬태생인데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섬에 와서 귀양살이를 한 어느 별감이 장수감이라고 보고 어릴때부터 무술을 배워주었다더군. 열여섯 살때 물으로 나가 군사노릇을 시작하고 마흔다섯 나이에 벌써 병마사가 되어 나라의 서북변장을 맡아 지켰지, 그러던 어느해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오는데 그새 구레나룻이 비자루처럼 자라 무릎에까지 드리웠다나. 그래서 배에 오르내리거나 진지상을 받을 때, 또 조상들의 령전에 절을 할 때면 두명의 시녀가 수업을 들어줘야 했다는거요.

그런 얘기를 우리 섬사람들은 자랑삼아 하곤 했지. 그래서 수업이 많은 나를 볼 때마다 우정릉으로 님자, 김렬의 자손이렷다? 하곤 했어. 글쎄 우리 집안은 밀양 박씨인데두 말이지...》

그는 미소했다. 그런데 바르르 떨리고있는 그 입가의 미소뒤에는 가슴을 어이는듯 한 눈물의 추억이 숨어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지.》하고 대대장은 말을 이었다.

《난 아직 이렇게까지 마음이 어수선했본적이

없어. 만삭이 된 집사람이 선바위톱까지 쫓아와 울며불며 매 달리던 일이 자주 떠오르니... 왜 그럴가?... 그때 시간을 끝면 왜놈경찰이 달려들리라는걸 알면서두 그 사람은 그냥 내 팔을 꼭 잡구 놓아줘야 말이지. 아마 그 사람은 그때 그제 영리별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러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나. 갑자기 김렬장수애기가 떠올라 우스개소리처럼 말했지. 이렇게 자주 울고불고하면 나두 이다음 수업이 비자루처럼 자란 후에야 돌아올테요! 하구 말이지. 현대 이렇게 17년세월이 흘러서야 돌아왔으니 ... 일두 참!》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한 련락병에 불과한 나를 상대로 조용히 펼치던 추억의 제1장은 끝난것이다. 그후의 계속은 자기 마음속에서만 펴보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갔다. 마을에 들어서서야 소달구지를 몰아가는 한 늙은이에게 리인민 위원회가 어데 있는지 물어보았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양철치봉을 씌운 낡은 목조가옥뜨락에서 서둘게 장작을 패던 한 처녀가 우리를 보고 허리를 폈다. 대대장이 리인민위원회인가고 묻자 처녀는 팔꿈찬 눈길로 우리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예. 그래요 그런데 누굴 찾으시나요?》

《?...》

웬일인지 대대장은 처녀의 얼굴만 지긋게 뜯어 보고있을뿐 그가 묻는 말도 못들은듯 했다. 나도 처녀를 살펴보았다. 물날은 병사용솜동복을 가끈히 졸라 입고 실로 뜬 하얀 목도리를 두른 낮색이 창백한 처녀였다.

처녀가 또 물었다.

《군관동지. 누굴 찾으시나요?》

그제서야 대대장은 버릇처럼 투박한 손바닥으로 퍼킷한 볼을 쓰다듬으며 말을 떠들거렸다.

《음- 우린 말이요. 면당위원장과 분주소장을 찾는데...》

《예- 그런줄 알았어요.》 처녀가 미소했다.

《어서 오세요. 그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기다리고있는걸요. 난로에 불도 피우구. 자, 들어가시지요.》

처녀는 자기가 힘들게 조겐 장작개비를 한아름 안았다.

《면당위원장동지랑 이제 곧 오실거예요.》

우리는 처녀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장작불이 이글거리는 쇠난로가 방가운데 있고 형편없이 낡은 의자들이 몇개 구석에 있었다. 띄창은 가마니로 가리우고 찢어진 도배지들이 내리드러운 천청가림대엔 낡은 고기그물이 걸려있었다.

벽체마다 총탄자욱이 승승했다.

처녀의 말이 앞바다의 오석도에 등지를 틀고있는 적들이 습격해와서 죄다 들부시고 망가뜨려놓은 후부터 사무실로 쓰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처녀는 활활 타는 난로옆에 의자 두개를 옮겨 놓더니 어서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인상적인 맑은 목소리로 섬에 있는 적들이 물에 올라 마을

들을 습격하여 많은 가족과 식량을 약탈해갈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곤 했다고 하지만 인젠 놈들을 다 잡아죽치게 됐다고 하더니 불안한 두눈을 흐뜨며 입을 다물어버렸다.

나는 처녀가 대대장의 찌르는듯 한 눈빛에 겁을 먹고 추위를 타는듯 입술을 바르르 떠는것을 보았다. 가뜩이나 창백한 얼굴이 파르스름해졌다.

대대장이 거친 음성으로 물었다.

《몇살이지?》

《열일곱살입니다.》

《이름은?》

《박순금.》

《집은 어텐가?》

《저 ... 섬에 ...》

《오석도에?》

《예.》

《그럼 부모는?》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앓다가 돌아가구... 늙은 아버지 혼자 지금 섬에... 전 해방후 학교를 다니려구 섬에서 나왔는데... 그만 미군놈들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음 ...》

대대장의 퍼릿한 턱이 실룩거렸다. 잠시후 그는 입에 주먹을 가져다대고 헛기침을 짓고는 난로안의 불길로 눈길을 옮겼다.

한동안 방안에 야릇한 침묵이 흘렀다. 문밖의 처마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참다못해 내가 물었다,

《면당위원장동지랑은 어데 갔소?》

《저 - 기 도래굽이쪽으로 갔어요. 오늘밤 섬을 공격할 때 쓰자고 거기에 배들을 모아놓았는데 ...》

처녀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대대장이 엄한 눈길을 그에게 던졌던것이다.

《동무가 어떻게 그걸 다 아오? 비밀에 속하는것을... 누가 말해주던가?》

《저, ... 그건.》 처녀는 두손을 맞잡고있었다.

《저만 알아야 한다면서...》

《참, 한심들 하군!》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습관된 동작으로 권총집을 옆구리쪽으로 돌리고 군복상의를 쪽 잡아당기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그때 문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토방에 올라선 사람이 문을 열고 그 뒤에 섰던 젊은 사람은 대대장을 보자 불에 그슬린 군모채양에 손을 올려붙이며 멋지게 거수경례를 했다. 면당위원장이라고 짐작되는 앞의 사람은 외팔이었다. 한손을 쑥 내밀며 그가 먼저 말했다,

《대대장동지이지요?...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중입니다. 배들도 다 준비해왔구 또 물길안내를 해줄 적임자도 골라왔구요. 바로 이 체넵니다. 박순금이라구...》

대대장은 저으기 놀란듯 한 표정으로 처녀를 돌아보았다. 면당위원장이 방안에 들어서며 또 말을 이었다.

《이 앤 어릴적부터 섬에서 물으로 나들며 살았구 제가 직접 배도 타봐서 여기 물길사정엔 행

하지요. 웬간한 어부들보다 나으니 도움이 될겁니다.》

《아니, 필요없소.》

대대장의 말이였다. 그때에야 면당위원장은 대대장의 류달리 퍼릿퍼릿한 얼굴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물길안내가 없인 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섬주변은 지형이 매우 복잡해서 큰 배들도 물살에 밀리다가 암초에 부딪치곤 하는데... 더구나 요즘은 해빙기가 아닙니까. 큰 성에장들이 떠다니는 때라 위험합니다.》

《일없소.》 대대장은 여전히 꾀꿀했다. 《문제는 배를 얼마나 준비했는가 하는건데 ... 그것부터 들어봅시다.》

분주소장이 제격 나서며 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었다.

《모두 열아홉척 모았습니다. 고기잡이 배들이지요. 필요하면 해주수산사업소에 연락해서 발동선을 몇척 끌어올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되오. 섬에 있는 적들이 전혀 검색채지 못하게 은밀히 버락치듯 죽쳐야 하오.》

대대장은 의자에 앉으며 그들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섬에 있는 적들의 병력이 얼마쯤 되오?》

《작은 섬까지 한 천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좁 많군.》

《위낙은 그 절반쯤 됐는데 요즘 패잔병들이 많이 쓸어들어가는통에 ...》

《일없소. 그깟놈들! ...》

그러면서도 대대장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난로안의 장작불이 탁탁 뛰었다.

고기그물이 걸려있는 구석쪽에서는 박순금이 숨소리도 없이 서있었다. 다들 그에 대해 잊은듯했다.

마침내 대대장이 말했다.

《제일 중요한것은 비밀, 그리고 은밀성이요. 어떻게 하면 소리없이 감쪽같이 섬에 오르겠는가! 이걸 토론하지요.》

세사람은 이마를 맞대고 열심히 토론하기 시작했다. 전마선, 돛배, گل배들의 수자와 거기에 탈수 있는 인원수를 계산했고 썰물때를 타서 한밤중 불의에 들이치자면 언제 출발하며 바다에서의 신호는 어떻게 주고 받으며 성에장들과 부딪치지 않으려면 얼마만한 길이의 장대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등 모든것을 세밀히 따져보았다.

마지막으로 물길안내문제가 또 논의되었다. 면당위원장은 오석도주변의 사나운 물길에 대해 설명하면서 밀של물 때 어떤 물궤에서는 초당 수백톤의 물이 격류처럼 휩쓴다고 한팔을 내저으며 그 세찬 광경을 그려보였다. 까마귀 오자에 돌석자를 쓰는 섬이름도 그 물길때문에 생겨났다고, 옛날옛적 어느 공주의 보석을 훔쳐가지고 신선나라를 찾아가던 까마귀가 여기 바다에서 룡트림하듯 세차게 꿈틀거리는 물결에 짹짹 놀라 그만 입에 물고있던 보석을 떨어뜨렸는데 그 자리에 섬이 솟아났다는 전설까지 끄집어냈다. 지금 물길사정에 밝은 장정들이 다 전선에 나가있으므로 순금이야말로 적임자라고, 그가 없이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대장은 순금이를 돌아보았다. 처음 보는듯 주의깊게 그리고 애뜻한 눈빛으로 여겨보고있었다. 그러나 종시 아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에 또 만납시다. 그새 수고해주시요.》

대대장은 문가로 다가가 문손잡이를 잡았다.

순간 흥분에 떨리는 순금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대장동지!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전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담부터 배에서 살며 자라서 여기 물길을 잘 압니다. 정말 눈감고도 갈수 있습니다. 절 믿어주시요. 예?!...》

대대장은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때 그의 목에서 울대뼈가 꿈틀거리리는것을 보았다. 끝내 아무 말없이 입을 꼭 다물고 갓 면도를 한 푸릿푸릿한 안면근육을 움쭉거리며 그는 순금이와 또 다른 두사람을 홀 스쳐보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대대장은 전투를 준비하며 매우 바쁘게 보냈지만 간혹 깊은 생각에 잠길 때도 있었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그리도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

다시 밤이 왔다. 대대는 배들이 준비되어있는 도래곶이로 은밀히 행군해갔다. 그곳에서는 면당위원장과 분주소장 등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의외에도 그들 가운데엔 순금이도 있었다. 면당위원장이 자기의 등뒤에 숨은 순금이를 돌아보며 변명하듯 말했다.

《원, 어찌나 때를 쓰는지... 때여놓을수 있어 야지요.》

대대장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리라고 짐작했던것처럼 머리를 끄덕이고는 갑자기 나를 소리쳐불렀다.

《련락병! 이 동무를 지휘선으로 정한 배에 태울것!》

그때 나는 처녀가 흠칠 몸을 떠는것을 보았다.

아니, 보았다기보다 그렇게 느꼈다. 처녀는 갑자기 머리를 편뚝 쳐들고 무슨 말인가 하려했으나 찬바람을 들이키며 헉 흐느끼고말았다.

대대장은 어느새 면당위원장과 분주소장을 이끌고 걸어가고있었다. 여러 편대로 나눈 기습조들의 승선을 조직하느라고 바빠 돌아가야 하는것이다. 나는 순금이와 같이 대대장지휘선으로 정해진 크지 않은 전마선으로 갔다. 벌써 거기에도 대어섯명의 전투원들이 오르고있었다.



배에 오르자 순금이가 말했다.

《그런데... 대대장동지 왜 그럴가요. 침부리 나를 이상하게 무섭게 보면서 ... 뭐, 나때문에 성난것처럼! ...》

나는 그만 소리내어 웃고말았다. 그다음 우리 대대장동지가 얼마나 훌륭한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마 시꺼먼 수염때문에 무서워보일거요. 면도는 했지만 턱이 시꺼멓거든.》하고 말해주었다.

《그렇가요?... 그래도 수염이 많은 사람들은 다 맘이 어질다던데 ...》

우리는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대대장이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료해시키며 걸어왔던것이 다.

이윽고 우리 대대가 탄 19 척의 크고작은 배들은 도래곶이에 남은 면당위원장 등의 배웅을 받으며 기슭을 떠났다. 우리가 탄 전마선은 내가 노를 저었다. 얼마후 기슭에서 멀어지면서 커다란 성에장들과 자주 맞다들리곤 했다. 순금이가 나를 도와나섰다. 섬약해보이는 처녀였지만 노를 젓는 솜씨가 대단했다. 우리는 서로 엇바꾸어 노를 저으며 성에장들을 피해갔다.

그날밤의 바다는 실로 음산하고 무시무시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성에장들이 쿵쿵 부딪치는 가 하면 끊임없이 밀려가는 거친 큰 파도소리 가운데 어대선가 가늘고 새된 흐느낌소리며 바람소리가 서로 뒤섞이며 차디찬 밤의 대기를 헤가르곤 했다.

오래도록 입을 다물고 캄캄한 어둠속을 저어갔다. 이윽고 대대장이 전지불로 약속된 신호를 하자 예닐곱척의 배들이 불빛을 껌벅이며 방향을 돌렸다. 오석도와 떨어져있는 작은 섬을 공격할 구분대였다.

인제는 오석도가 가까워진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처음으로 대대장이 순금이에게 물었다.

《썰물이 질때가 멀었소?》

순금은 나에게 노를 넘겨주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요즘은 저 칠성별이 바다에 꼬리를 드리울 때에야 썰물이 집니다. 그러니... 보세요.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음...》

대대장은 처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처녀의 그 대답을 대견하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나 역시 처녀가 돋보이고 정차게 여겨져 가만히 물었다.

《그런건 어떻게 다 아오?》

《애기때부터 배를 타고 자랐는걸요.》 순금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배우에 고기그물로 그네를 매고 거기에 나를 얹혀놓곤 했어요. 하늘에선 따가운 해별이 내려지 지구 발밑에선 조기나 게들이 와글거리구... 그렇

지만 내가 제일 무서워한건 조기가 부레를 볼록 해가지구 개구리처럼 막 울어떨 때였어요.》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계속을 기다렸으나 처녀는 이윽도록 입을 다물고있었다.

참다못해 내가 또 물었다.

《왜 배우에서 살아야 했소?》

《어머니가 돌아간 담부터 ... 저를 말아키워준 분이 그렇게 했어요. 어부였으니까요.》

그러자 대대장이 피곳 시선을 돌렸는데 그의 두눈에서 불빛이 명멸했다. 숨가쁘게 마치 속삭이듯 그가 물었다.

《어머니 언제 돌아갔소?》

《제가 다섯살 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기억은 ...있겠군. 응?》

《안요.》 순금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전 어머닐 잘 기억하고있어요.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옛말이랑... 어머니 매번 수염이 무릅에까지 닿았다는 장수가야길 했어요. 그 장수는...》
별안간 처녀는 한손을 입가에 가져갔다.

《대대장동지, 왜 그러세요?》

《아, 아니요》 그는 숨구멍을 틀어막히운듯 괴롭게 헐떡이고있었다. 《어서 계속하라구 응? 그래 그 장수가 어쨌다구?》

《그 장수는》하고 순금이 계속했다. 《수염이 너무 길어 두명의 시녀들이 따라다니며 그걸 들어줘야 했단가요. 그런데 그 얘길 할 때마다 어머니 우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옛말하다 말고 우냐?> 하고 물으면 어머니 저를 꼭 껴안고 네 아버지가 생각나 그런다고, 아버지지도 이제 비자루같은 수염을 기르고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구 말하곤 했답니다.》

처녀는 저도 모르게 흐느낌스리를 내었다. 눈물의 추억이 그를 오혈에 잠근것이였다. 나도 한순간 머리속에 번개친 생각에 그만 노잣던것마저 잊고 멍하니 서있었다. 그러니 이 처녀가 대대장동지의 딸이 아닐가?

그 순간 무엇인가 우리모두를 뒤흔들어놓았다.

쿵!— 하는 둔중한 소리, 대대장이 비틀거리는 순금을 꼭 붙안았다. 또다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무섭게 요동을 쳤다. 커다란 성에장이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던것이다. 나는 머리에 들쭉워지는 물벼락에 진저리치며 가까스로 허리를 폈다. 그 순간 순금이 부르짖었다.

《대대장동지, 보세요! 썰물입니다. 이제부터 제일 위험합니다.》

대대장이 무어라고 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순금이가 또 새되게 소리쳤다.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썰물을 타고 사선으로 헤쳐가다가 섬에 붙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바다로 밀려나가는데 밀물때에야 돌아올수 있어요. 알겠어요?》

얼마나 거센 물결이었던가! 오석도를 휘감으며 격랑치는 물결이 우리가 탄 배를 가랑잎처럼 날려보내고있었다. 배는 매 순간순간 세찬 파도속으로 선수를 들어박는가 하면 갑자기 허공 쳐들렀다가 아찔한 밑으로 떨어져내리기도 했다. 그리

는속에서도 대대장은 뒤따르는 배들에 전지불신호를 계속했다. 그리하여 모든 배들이 사선으로 물결을 타며 섬으로 접근해갔다.

한순간, 두번째인가 세번째인가 들이닥친 둔중한 타격에 우리 배는 선수를 휩 돌리며 핑그르— 돌았다. 또 하나의 성에장이 선미쪽을 들이받은것은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모진 일격에 배에 탔던 우리모두는 한쪽으로 꺾 밀리며 나딩굴었다. 대대장이 또 소리쳤다.

《런락병, 장대!...배가 얼음장에 끼웠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있었는지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대대장이 또 소리쳤다.

《장대로 얼음장을 밀라!》

쨍쨍한 그 웨침소리가 우리모두를 정신차리게 했다. 하여 미리 준비해두었던 장대로 우리 배를 압박하는 성에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찬 물결은 밀어낸 성에장을 또 배전에 힘껏 밀어던지곤 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기관총이 급사격을 개시했다. 우리의 웨침소리에 놀란 적들이 어림짐작으로 마구 쏘아대는듯 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적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물사격을 퍼붓는다면 전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등골로 차디찬 전몰이 스쳐갔다. 나는 노대를 쳐들며 그것으로 우리 배를 막고있는 성에장을 밀어던지려 했다. 그러나... 주춤거렸다. 순금이가 나의 팔을 꼭 틀어잡았던것이다.

《안돼요! 동문... 노를 저어야 해요!》

어느 처녀는 몸을 날려 배전너머의 성에장으로 건너뛰었다. 너무도 돌발적이어서 누구도 처녀를 막지 못했다.

순금은 성에장우에 쓰러졌다. 아마도 세계 무릎을 짓조든듯 두손으로 무릎을 싸안고있었다.

대대장과 내가 동시에 《순금이!》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처녀는 그 웨침소리엔 아랑곳 않고 장대를 들고 일어서더니 배를 밀기 시작했다.

《그쪽에서도 같이 밀어요. 어서요!...》

장대를 쥔 전사들 둘이 우리 배에서 성에장을 밀어냈다. 이렇게 우리는 성에장을, 처녀는 배를 밀기 시작했다. 죽기내기로 용을 쓰며 서로를 밀어던지고있었다.

한순간 나는 순금이 목에 두르고있던 하얀 목도리가 흘러내려 물속에 떨어지는것을 다음 순간 시꺼먼 물속에 사라져버리는것을 보았다. 그러건 말건 처녀는 안간힘을 쓰며 부르짖는것이였다.

《좀 더 세게! 좀 더 ... 힘껏!》

하여 무서운 그 시각이 왔다. 아무도 예견치 못했던 그 무서운 일이 별안간, 너무도 불시에 들이닥쳤다.

우리 배와 순금이 뛰여오른 성에장이 조금 벌어지는 찰나 세찬 급류가 우리 사이로 덮치듯 밀려들었다. 그 무서운 충격에 우리 배가 휩 방향을 돌리더니 적탄이 비발쳐오는 섬쪽으로 쏘살같이 미끄러져갔다.

가슴이 섰했다. 온몸에 소름이 짹 끼치였다.

창끝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찢른 무서운 예감!... 아니나다를까 순금이가 보이지 않았다. 순금이가 올랐던 성에장이 우리 배와는 정 반대쪽인 시꺼멓고 차디찬 날바다의 파도너머로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몸부림쳤다. 노젓는것도 있고 캄캄한 어둠속으로 손을 내뻗었다. 목이 꼭 잡겨 아무 소리도 나가지 않는것도 모르고 계속 울부짖었다. 그러나 목터지게 《순금아!-》하고 거친 소리로 비통하게 웨친것은 대대장의 목소리였다.

《순금아! -》

두번째의 그 웨침은 갈가리 찢겨지고 터진 목소리였다. 이윽고 우리 배는 선바위톱 모래불에 선수를 꼭 들이박았다. 세찬 충격에 우리들은 일시에 앞으로 쏟아지고 구겨박혔다. 그때에도 제일 먼저 뒤흔들어진것은 대대장이었다.

《돌격앞으로!-》

그것은 단순한 구령이 아니었다. 피터지는 울부짖음, 아니 무시무시한 퇴성과 같은 것이었다.

런이어 기슭에 달은 배들에서 전투원들이 쏟아져 내리며 함성을 질렀다. 뒤미처 어둠속을 내달리며 총탄을 퍼붓고 수류탄을 던졌다. 뒤에서는 배전의 중기관총들이 세차게 두루룩거렸다.

나는 대대장을 따라 달려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눈밝혀도 내가 찾는 모습은 없었다. 두불이 눈물로 흠뻑 젖어버린줄도 모르고 헉-헉 모지름쓰며 달려갔다. 가슴은 쓰리다못해 막 터져나가는듯 했다. 하지만 걸음마다 숨구멍을 틀어막고 목줄띠를 비틀어대는 이 무서운 불행은 다 환각일뿐 이제 곧 얼굴이 해쓱하고 맑은 목소리를 가진 순금이가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소리없이 웃으며 눈앞에 나타나리라 하는 그 절절한 믿음만은 끝내 버릴수 없었다.

한시간후에 전투는 끝났다. 전투원들은 전장을 수색하고 포로들을 집결하고 로획한 무기, 탄약들을 점검했다.

나는 날이 밝아서야 섬의 선바위톱쪽에 서있는 대대장을 발견했다. 썰물이 진 그 바다기슭에 술한 발자국들이 찍혀있었다. 그 발자국마다에 물이 고여있었다. 그의 가슴속 비애가, 극심한 고통이 그 자국마다에 고여있었다.

나는 몸을 떨며 눈을 꼭 감았다. 지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까, 시꺼먼 물결위에 떨어져 내리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하얀 목도리를 생각하고있지 않을까?...

가슴이 저릿저릿하여 참고견딜수 없었다. 하지만 대대장 가까이로 다가갈 용단은 끝내 내리지 못했다.

한낮이 되자 대대장은 오랜 세월 함께 싸워온 대대의 전우들과 작별하고 물으로 나가게 되었다.

려단장의 새 직무가 그를 기다리고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물었다.

《함께 가겠나?》

《...》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아니, 나는 그와 같이 갈수 없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매일, 매순간 그는 찢기는듯 한 아픔을 맛보게 될것이다.

이윽고 대대장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 잘 싸우라구. 응? 고향친구! ...》

《안녕히 가십시오, 대대장동지!...》

나는 울었다. 어깨를 떨며 흐느끼었다.

이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그때로부터 거의 15년 가까이 흐른 1968년 여름 어느날 나는 출장길의 한 역두에서 잠시 그와 마주친 일이 있었다. 그는 침대칸으로 오르려던 참이었고 나는 금시 흠에 내려서있었다.

평생 잊을것 같지 않던 그 모습, 간혹 소문으로나 듣던 전날의 대대장, 그는 상장이었다.

《상장동지!》

나와 동시에 또 누군가가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는 눈앞에 딱 마주서있는 나를 지나 내 뒤편에 서있는 대좌에게로 웃으며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서로 손을 맞잡고 반가운 인사말을 나누는 그들 두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 비켜서긴 했으나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후 그들이 기차에 오르고 기적소리와 함께 멀리 사라져 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싶어하던 나의 옛 상관, 오늘도 군복을 입고 그는 어디로 가는것일까? 그는 지금도 전화의 그날처럼 고향으로의 길을 계속 이어가는것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멀고 험난한 조국으로의 길, 고향으로의 길을 걸어왔건만 아직도 가닿지 못한 길 끝나지 않은 길이어서 평생 군복을 벗지 못하고 가고 또 가는것이 아닌가?! ...

지금도 조용히 그 시절을 추억할 때면 제일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세찬 파도이다. 기슭을 향하여 어제든 오늘도 쉽없이 밀려드는 파도, 물갈기를 날리며 거세게 울부짖는 파도소리, 아직도 가고 또 가야 할 혁명의 먼길에 대하여 가슴에 새겨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어느덧 나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뜨거움에 젖어들곤 한다. ...

새해의 첫 전투는 들에서도

한승길

찬바람 몰아치는 눈덮인 들에
공동사설 구절구절 명령처럼 외우며
붉은기를 대오앞에 군기처럼 휘날리며
병사마냥 우리는 달려왔다

선군의 또 한해
공동사설— 작전도는
또다시 농업전선에 큼직한 화살표를 그었나니
로동자도 사무원도 당일군도 녀맹원도 펼쳐나
새해의 첫 전투는
들에서도 벌어지나니

쌀! 그것이 목숨이어서
당! 그것이 곧 생명이어서
생사를 가름하는 돌격전인양
병사가 참호를 타고넘어 내달리듯
논두렁을 타고넘어 내달리는 사람들과

땅이 추위에 얼지 않도록
두텁게들 갈아라 이 땅우에 거름을
만일 래일에 전쟁이 터진대도
원썬들의 총탄알이 파헤치지 못하게
두텁게들 갈아라 이 땅우에 거름을

땅이 있어야 쌀이 있고
쌀이 있어야 땅을 지키나니
확성기가 울리는 전시가요는
사회주의수호전에 우리들을 부른다

아, 원썬들 노리는 이 땅에
갑옷을 입혀가는 심정이런듯
빈틈없이 거름을 덮어가는 협동벌
가을이삭 총알처럼 여물리자고
새해의 첫 전투는 들에서도!
새해의 첫 전투는 들에서도!

흰눈덮인 벌우에서

리영일

새해라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흰눈덮인 벌우에서
우리는 심장의 불을 활활 지피고
더 높은 비약의 첫걸음을 뗐다

김이 문문 나는 두엄달구지
포전머리에 선참 들이대는 저 로인
락동강을 넘나든 우리 마을 로병아바이
겉싸게 걸이대로 일 제끼는 저 녀인은
다섯자식 모두 군대에 보낸 후방가족어머니

흥이로다
도로를 짝 메운 거름반출대오의 앞장에서
기세를 돋구는 가두녀인들의 땡파리소리
멋이로다
사열대오인양 늘어선 거름실은 자동차들
종구나 새해의 첫 발걸음
여기 벌에서 시작하여

너도나도 농업전선의 전초병되니
가슴속엔 산처럼 로적가리 솟구친다

달리자
그리고 날자
또 한해 시작이 좋으니
올해의 결실은 그 얼마나 풍만하랴

새해의 설날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신
우리의 어버이장군님
온 나라의 전야를 돌보시며
새 승리의 언덕으로 우리모두를 부르시거니

장엄한 새해의 진군이다
뛰는 심장처럼 붉은 기폭이 펄럭이는
흰눈덮인 벌우에
오곡백과 주렁진 가을은 이미 약속된것이다
우리는 기어이 쌀로써 강성대국을 안아오리라

거룩한 자옥

리영춘

위대한 인간, 위대한 위인에게 매혹된 인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해가는 그리움속에 그분이 지니었던 사상과 덕망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더욱 절감하게 되며 또 그로 하여 본분을 다해나갈 뜨거운 마음을 키워나가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바로 그러한 인민들이다. 나는 이러한 인민들을 취재길에서 종종 만나곤 하였다.

설을 맞은 나는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새해 농사차비로 드바쁜 서해포항 어느 한 농장으로 찾아갔다.

내가 농장마을에 도착하니 동녘하늘이 희뽁히 밝아왔다.

겨울의 아침대기는 어지간히 맵찔다. 나는 옷깃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으려고 옷깃을 뽁뽁 여미며 관리위원회를 찾으려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주위는 아직 어둑컴컴한데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록모록 피어오르고있었다.

아침대기속에 떠도는 구수한 토정냄새가 쌀쌀한 농촌마을의 정서를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다.

어쩌면 내가 나서 자란 산골 고향마을에 온것같은 정회를 불러준다.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기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소리나는 곳에 눈길을 돌렸다. 날이 채밝지도 않았는데 농장별로 향한 길위에 거뒀한 사람들의 형체가 나타났다.

한둘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었다. 또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잇달아나오고 마을쪽에서는 문여닫는 소리들도 간간이 들린다.

(아니 벌써 일나가는게 아니야.)

나의 가슴엔 이름할수 없는 걱정이 서서히 차올랐다.

선군시대에 사는 농장원들이 달랐다, 올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꼭두새벽부터 포전으로 나가는 농장원들이 선군시대의 인간들의 참모습으로 돋보였다.

(정말 선군시대의 농장원들이 다르군.)

나는 새벽별을 이고 집에서 장만한 거름짐을 포전으로 나르는 농장원들을 만나보고싶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후 포전에 이르니 그들보다 먼저 나온 사

람이 있었다. 그는 50대쯤 나보이는데 거름을 논머리에 쏟고나서 뒤미처 당도한 농장원들을 둘러보며 누구에라없이 인사하였다.

《모두 이렇게 나왔구만요.》

농장원들도 기쁘게 응대한다.

《기사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길을 먼저 걸으셨군요.》

《우린 언제가야 기사장동지보다 먼저 새벽길을 밟겠는지.》

젊은 청년이 늦게 나온걸 후회하듯 머리를 긁적이자 농장원들은 즐거운 웃음을 터치였다.

기사장은 그 청년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걸걸한 음성으로 말했다.

《예로부터 농사군은 새벽이슬을 맞아야 밥사발이 높아진다고 했소. 저길 보라구. 관리위원장동지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벌써 두행보째 거름을 나르고있소.》

나는 기사장이 손짓하는 포전에 눈길을 보냈다.

아직 엷은 어둠이 가시지 않아 툭툭히 볼수는 없었지만 지계를 진 사람이 이리로 오고있었다.

그는 농장원들을 띠여보자 공손히 머리숙여 인사하였다.

《안녕들하세요. 모두 나오셨군요.》

그가 바로 관리위원장이었다. 녀성인 그는 언제나 농장원들한테 먼저 인사한다고 하였다.

《관리위원장, 수고하누만. 농장의 호주구실을 하자니 힘들지?》

젊은 농장원들을 따라나섰던 70고령의 로인이 관리위원장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었다.

녀성관리위원장은 다소곳이 머리숙여 대답하였다.

《예. 힘에 부칩니다. 아버님은 이 추운 날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자구 나오셨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이 그리워서 나왔네. 눈만 감으면 눈덜인 이 포전에 오셔서 뽁뽁 언 흙을 손에 드시고 보시던 수령님의 영상이 생각나서 잠들수 없네. 밤새도록 수령님이 못견디게 그리워서 누워있을수 있더라구. 그래서 이 포전에 남긴 수령님의 거룩한 자옥을 밟아보자구 나왔네.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현지도하신 날이 오면 정말 수령님을 뵙고싶어 못견디겠네.》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곱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꼭두새벽에 그이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진 포전으로 찾아오겠는가.

잠시후 나는 이들과 통성을 하고 무렵없이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나는 먼저 관리위원장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농장을 찾아주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것을 부탁하였다.

녀성관리위원장은 70 고령의 로인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 할아버님이 그때 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할아버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주시오.》

로인은 감격의 그날을 더듬는듯 드넓은 포전을 둘러보다가 논두렁앞에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한겨울 맵짠 이른 새벽 현지지도의 길을 이 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소문도 없이 우리 농장을 몸소 찾아주실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나.

수령님께서는 여기 논머리에 걸음을 멈추시고 뽕뽕 언 한줄의 흙을 친히 손에 쥐시고 찬찬히 들여다보시였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황송한 마음으로 달려가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었지요.

그러시고는 그때까지 손에 들고계시던 차디찬 흙덩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나라에서 비료를 많이 주니까 논에 두엄을 내지 않았다고 가엾게 나무람하시며 이 흙을 보라, 기름기가 없지 않는가고 하시었습니다.

우리들은 얼굴뜨거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논에 두엄을 많이 내야 땅이 기름지고 지력이 높아진다고 하시며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자면 거름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논배미마다에 충분히 거름을 내고야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이 더없이 그리워져서 거름을 지고나오지요.》

로인의 말이 옳다는걸 증명이나 해주려는듯 거름짐을 진 농장원들이 마을쪽에서 줄지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가슴깊이 젖었으면 이른 새벽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름을 지고 어버이수령님 서계셨던

들로 나오겠는가,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닌 수많은 날과 날들의 이른 아침에 ...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을 너무도 잘 알고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들이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을 찾아주신 때로부터 우리 인민들에게 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 견고 걸으신 포전길들은 몇만리길이며 그 길에 남기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또 얼마이겠는가.

서해곡창 드넓은 벌로부터 이름없는 산간오지 외진 농장벌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 밟지 않으신 땅이 어디 있으랴.

눈오나 비오나 평화로운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우리 수령님 농민들과 함께 들길을 걸으시며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어느 한시도 시름놓으신적 있었던가.

바로 그 사랑, 그 헌신의 위대한 자욱이 이 땅 곳곳에 새겨져있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덕망이 우리 농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오늘도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목메게 하는것이 아니라.

어디 드넓은 대지뿐이라!

공장과 어촌들에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은 또 그 얼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방방곡곡에 력력히 어려있어 더더욱 어버이수령님을 못잊어 하는 인민들이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명절날과 생신날도 깡그리 바쳐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고 곳은날, 마른날 가리지 않고 이 땅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 이 땅에 남기신 거룩한 자욱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민의 마음속에 더더욱 깊이깊이 새겨질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 매혹된 인민들은 해와 달이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이 못견디게 그리워 기쁜날,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수령님을 생각하는것이며 수령님의 유혼을 다시한번 새기며 더 많은 일을 하여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릴 새로운 결의에 넘치는것이다.

이것은 오늘날뿐만아니라 수수천년 세월이 다한대도 후손만대 이어진 우리 인민의 소중한 마음이며 그 마음을 안고 새날을 맞고 보낼 생활로 영원할것이다.

위대한 추억 외 1 편

허수산

오늘도 장군님 추억하시네
낮이나 밤이나
따뜻한 봄날이나
눈비 사나운 날에나

나는 어려운 《고난의 행군》 나날에
철령을 넘고 넘으셨다고
별무리 총총한 겨울밤
차디찬 전호벽에 배를 붙이고 선
나의 병사들이 나를 기다리는것만 같아
철령을 새벽에도 넘고 밤에도 넘으셨다고...

우리 장군님 나의 병사들이라고
그처럼 정 기울여 부르신 병사들
그들은 평범한 보통 병사들이었다
저 멀리에 고향을 두고 떠나온
부모의 얼굴이 언제나 그리운 병사들!

장군님은 헤아리셨더라
우리 최전연 병사들의 마음
친부모대신 내가 가야 한다면

때로는 미끄러져 내리는 야전차
어깨로 밀면서도
오르고 오르신 천리 전선길이어!

우리 장군님 무슨 힘으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오르셨던가
사랑이였네 뜨거운 사랑이였네
이 세상 부모들도 따르지 못할
최고사령관의 사랑이였네

병사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그들을 펼칠나는 싸움군으로 키웠고
온 나라를 신군의 총진군길에
모두 불러 세웠나니

병사들에 대한 사랑 끝이 없어
장군님 마음속엔 철령의 산발들이 가까이 있어
라
그 위대한 추억속에
병사들은 더 높이
위훈의 봉우리를 쌓고있어라

취 침 나 팔 소 리

아마 그대 누구든
병사생활 해보았다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
아침기상나팔소리와 함께
저녁취침 나팔소리의 그 진맛을

아침기상나팔소리는
아버지의 엄격한 목소리같더라
저녁의 다정한 취침나팔소리는
사랑하는 고향어머니
잠자리에 불러들이는 따뜻한 목소리같더라

오늘도 추억속에 들려와라
따-따-따 긴 꼬리 그으며
병사들을 부르는
초소의 취침나팔소리 -

병사! 사랑하는 내 조국의 아들딸들아
언제나 고향집 아래목처럼
어서 병실에 들어서라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병실, 위훈의 요람으로

우리 장군님
그 어느 초소에 가시는

병사들의 잠자리부터 먼저 돌아보시거니
찬바람 들세라 창문도 열어주고
병실의 온도도 가늠해보신
아버이 그 사랑 어리여있다

저 멀리 하늘가
별찌가 긴 꼬리 그으며 떨어질 때
그대들은 단잠에 녹여
부쩍부쩍 새날의 새힘 키우리

아마도 빙그레 웃음지우며
꿈을 꾸어도 장군님 뵈옵는 꿈꾸리
신입병사 모포를 차던지면
어느새 분대장 슬그머니 모포깃 여며주리

아 깊어가는
별무리 총총한 초소의 밤이여!
이제 기상나팔소리 힘차게 울리면
병사들 폭풍처럼 떨쳐일어나
새날의 위훈으로 달려나가리

복무의 나날 다정한 벗- 나팔소리여!
그것은 다함없는 사랑의 부름소리
빛나는 위훈으로 부르는
어머니조국의 목소리여라

하 나

문 동 식

거기엔 없었다
한줄기 오솔길도
한점의 불도
한알의 소금
한포기의 풀도

다만 있었다 거기엔
폭설과 눈보라
7 만 10 만 또 30 만...
진드기처럼 달려붙는
《토벌대》의 총칼뿐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제로의 길
하루 또 하루가 백날이 되고
머칠이면 갈수 있다던
그 수백리는 수천리가 되고

했어도
그 대오엔
헛갈림이 없었다
눈빛도 숨결도 걸음도
떠나던 첫 모습 그대로였다

있었다 거기엔
하나의 녀 하나의 뜻
하나의 운명으로
하나의 길로만 곧바로 이끌어준
그런 위대하고 귀중하고 신성한것이

그것은 단 하나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다섯이 된다면
한순간에
흩어지고 부서지고 불속에 재가 되어

광풍에 날리고말
오직 그 하나

오 그것은
물속
불속에서도 변함이 없는것
김일성장군님만 받들고 따르면
기어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억척불변 필승의 신념이었거니

그 신념없다면
우리의 조국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도 없으리

이 철리를 심장에 새기고
나도 너도 우리모두
남패자를 떠난 신념의 화신들
투사들 대오에 발걸음 맞추며
백두의 선군령장 장군님만 따라서
인생의 끝까지 곧바로 곧바로

그렇게
하나만을 품고
한빛으로 살 때
조국은
얼마나 더 위대해질것인가

오, 그래서
너나 우리모두
목숨처럼 소중히 품고살 하나
필승의 신념
오직 그 하나!

탄과 정을 나눈다

박상민

검푸른 바다위에
위훈의 항로를 새겨온
나는 어제날 해병
오늘은 땅속 드넓은 《탄바다》 헤치며
착암기를 조타처럼 틀어잡았다

희망의 기슭향해 돛을 올린듯
탄부의 《항해길》 땅속깊이 뻗어가면
수만년 잠자던 탄밭은
자기의 품을 열어 탄부와 마주앉는다

한바탕 호탕히 웃는 탄부
땀에 씻기고 열정으로 불타는
쇠물빛 눈을 들어 번쩍이는 탄벽과
말없이 사랑의 정 속삭인다

탄이여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찌 어머니와 안해와 자식들앞에
나라의 열과 빛을 책임진 탄부로
땀뿜이 나설수 있단 말인가
한여름처럼 뜨거운 탄부의 심장
탄이여 그렇듯 나를 사랑하기에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려명도
석탄산우에 올라 맞고싶은

탄부들의 불같은 마음이 아니라

탄을 두고 땀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며
어깨우에 얹힌 조국의 무게를 안고 걷는
탄부의 발자욱
막장에 무수한 별처럼 반짝이지 않느냐

공훈탄부아바이의 번쩍이는 앞가슴은
탄부들의 위훈에 찬 력사인듯
탄이여 읽고 읽으라
그리고 안고가라 이 땅 방방곡곡
탄부의 마음과 함께 ...

아 탄부의 위훈
노래로 엮어지는 막장에서
탄부는 탄과 정을 나눈다
우리 장군님 바라시는 석탄산의 높이
기념비처럼 가슴에 세우고

진감하는 발과소리로
조국앞에 땀뿜이 대답하며
탄부는 오늘도 땅속 《항해》길 달린다
한치의 드림도 없이 거세찬 속도로 달리며
탄과 뜨거운 정을 나눈다

밝은 불빛

늙으면 누구나 말이 많아지고
잔 걱정이 생기는가
한밤중 빈방에 전등이 켜졌다고
나직이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 불을 꺼라!

손끝으로 살짝 단추를 누르고
다시 잠자리에 편히 누웠건만
못잊을 옛 추억과 함께
자꾸만 다른 불빛이 눈앞에 얼른거려
나는 잠들수 없네

아버지가 늘 옛말처럼 외우시던
그 무슨 조화던가
고춧불에 등잔도 그림던 이 산골에
어둠을 몰아내며
집집에 환히 켜지던 전등불

문턱에서 눈을 부비며
어리둥절한 아버지에게
바람에 불이 꺼진다고
굽혀 전등을 막아서며
할아버지기 했다는 말
-문을 닫아라

지금 생각하면 누구나 거짓말같고
눈물이 나도록 우습지만
복속에서 복을 모르듯이
나도 밝고밝은 그 불빛에 대하여
다는 모르고
여직껏 나라의 혜택만 입었구나

아 우리 나라 국장에 발전소를 아로새긴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의 만가지 소원을 꽃피우며
이 산골에 벌어진 모든 경사가
령넘어 줄줄이 뻗어내린
그 전기줄에 이어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날마다 이른새벽 창문을 여시고
제일 먼저 발전소를 바라보신 우리 수령님
그래서 올해도 또다시 북방의 험한 산밭을
헤치시고

힘차게 돌아가는 발전기를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우리 장군님

불을 끄고 눈은 감았어도
나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엄한 눈빛인듯
하많은 생각에 잠 못드는
내 량심의 거울도 환히 비치며
참으로 고맙고 귀중한 새 불빛이 빛나네

◁수 필▷

흔적은 사라져가도

김창수

사람이란 별치 않은 일에도 크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

그것은 참으로 뜻하지 않았던 일로 해서 생긴
마음속 파문이었다.

머칠전 군문화회관 미술소조책임자 림영은 요
즘 새 작품창작준비를 위해 이 고장에 내려와 있
는 나에게 자기네 소조원이 창작한 소묘작품이
이제 평양에서 진행되는 소묘축전에 참가할만 한
지 좀 보아달라고 했었다.

그림을 받아 펼치던 나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고장에 있는 수백년 묵은 은행나무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예술적수준이 대단했기 때문이었
다.

《잘 그렸습니다. 입선하겠습니다.》

나는 손까지 내흔들며 장담했었는데 그때에는
그 쉬운 대답이 앞으로 어떤 값을 치르게 되겠는
지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소조책임자 림영은 기쁨으로 볼까지 빨강게 태
우면서 이제 군당책임비서가 은행나무와 더불어
오래 살아온 로인 몇을 불러 군중합평회를 한후
곧 올려보내자 했으니 작가선생이 평양으로 갈
때 축전준비위원회에 좀 가져다주었으면 고맙겠
다고 사뭇 믿음이 어린 어조로 말했다.

나는 어서 그러라고 쾌히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떠나기 전날까지도 작품이 도착하
지 않아 나는 슬그머니 초조해나가기까지 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나는 문화회관앞으로 스택스적 걸어갔다.

림영은 나를 보자 총총히 달려나왔는데 그전 처
럼 밝고 생기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선생님, 안됐습니다. 작품은 퇴났습니다.》

《영? 어쩌서? 누가?》

나는 잘못된 합평회라는 생각부터 들어 다소
성급히 물었다.

《박천수할아버지가...》

《어영? 천수로인이?》

참말로 뜻밖이었다.

그 할아버지라면 나는 너무 잘 안다. 이제 내
가 쓰게 될 작품의 원형인물이기때문이었다.

한생 일밖에 모른 늙은이 ...예술작품들에 대한
조예란 전혀 있어보이지 않는 로인

그런데 반대했다니?

나는 소조책임자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이
르고 박천수로인을 찾아갔다.

저녁무렵이었다.

따뜻한 저녁해별이 령마루쪽에서 흘러내려 비
록 락엽이 진지 오랜 은행나무밑이지만 마주 앉
아 이야기를 나눌만 했다.

나는 아무래도 이 로인이 합평회성원으로 뽑힌
게 그만 우쭐해나서 객기를 부린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들어 웃으며 물었다.

《아바이, 거 소묘그림 ... 진짜 보긴 보셨습니
까?》

《보지 않으니, 봐도 눈알이 쏟아지게 들여다봤
지.》

천수로인은 한생에 처음으로 되는 류다른 의식
에라도 참가했었다는듯 매우 진지한 낮빛으로 대
답했다.

《허허허... 그랬다면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텐데요?》

《그럼, 잘 그렸어. 신통해》

나는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로
인의 말꼬리를 제껴 물고 늘어졌다.

로인은 다시 류다른 모임에 참가했던 그 기분
이 되살아나는지 매우 심중한 낮빛을 지으며 답
변했다.

《빠졌네. 그것이 ... 선생도 이번에 와서 나한
테 착취받고 압박받던 얘기를 자꾸 해달라고 하
지 않았나. 바로 그 그림엔 그것이 없어. 계급성
이 쏙 빠졌다니까.》

《나무에 무슨 계급성이?》

나는 저으기 놀라와했다.

《선생, 선생이야 타고장 사람이니 잘 모를테지
만... 이 나무에는... 피어린 녀이, 이 고장 사람
들의 피가 어려있네.》

나는 로인의 어조속에서 과도쳐오는 뭐라 이름
할수 없는 준렬한것을 감득하며 굳어졌다.

로인은 피뎛노을이 불타는 서산마루쪽을 잠시
눈주어 보더니 계속했다.

《전쟁때... 우리 마을을 강점한 미제놈들이...
이 나무부터 자르라 했네. 리유인즉은... 이 나무
밑에서 토지개혁 만세를 부르구 우리 장군님을
복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군중
모임도 가지구 어느날에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
음으로 대학생이 된 자식들을 평양으로 떠나보내
기도 했다는것이였네. 창고에 갇혔던 우리 부락
세포위원장과 처를 끌어내여 도끼까지 안겨주며
지랄이였어. 그때 량주는 두살잡이 얘기도 데리
고 들어왔었는데... 13살이던 내가 그 애를 열른
뺏아안구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 밖에선 연
방 돼지 먹따는 소리같은 악청이 터져오르더니
드디어 총성이 연거퍼 울리더군. 량주가 다 나무
를 못찍겠다고 팡팡 맞서니 놈들은 그들을 나무
에 비끄러 매여놓구 기관총을 휘둘렀다는것이였
네. 그때 나무에도 아주 큰 상처가 났어. 보라구.
보이지? 세월이 하도 흐르다나니 인젠 그 흔적이
떡 없어지긴 했지만 》

나는 돌아보았다.

로인의 말은 사실이였다.

나는 여직껏 이 나무밑으로 다니면서 그 흔적
은 나무가 병이 들었던 자리거나 벌레가 먹었던
자리라고만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

한순간 준엄한 시절에 대한 그 어떤 경종이 머
리속에서 다시금 커다란 진폭을 가지고 살아오는
듯 한 처절한 심정이 느껴졌다.

천수로인도 다소 격앙된 어조로 계속했다.

《림영선생은... 예술이란 현실에 있는걸 그대로
그리는게 아니라고, 미학관으로 다듬어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고 몹시 섭섭해하더군. 그러나 난...
미끈하게만 그린 그 나무줄기에 보기 흉하더라도

그 흔적을 그려넣지 않는 한 절대로 찬성하지 못
하겠다고 못박았네. 림영이 그래도 머리를 기웃
거리자 군당책임비서동지가 큰소리로 이르더군.
할아버지말대로 해. 총탄맞았던 자리두 더 크게
그려넣구, 나무도 곱게 쓌는것으로만 그리지 말
구 광풍과 맞받아 싸우는것으로 그려!》

나는 어쩐지 그 소리가 나를 때리는 소리로만
들려 몸을 궁싹거렸다.

로인은 나의 기분을 호전시킬양인지 내 팔을
툭툭 치며 다소 밝아진 어조로 계속했다.

《내 너무했다 섭섭해하지 말라구. 그때 나한테
안겨 살아난 그 갓난애가 바로 오늘의 군당책임
비서동지구, 미술소조책임자 림영인 그 책임비서
의 딸이거던.》

《아-》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갔다.

그렇다면 로인이 림영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요
구할 권한이 있는것이였다.

불쑥 나는 어디선가에서 시대를 담은 그 어떤
장중한 음악이 은은히 들려오는듯 한 심정을 체
감했다.

로인도 한결 더 무게가 실린 어조로 말했다.

《뭐 그렇기야 하겠나만... 오늘에 와선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너무 잊고 사는것 같
단 말일세. 갇아야 할 피맺힌 원한도 펴 잊은것
같구... 선생. 이러니 내 계급성소릴 안하게 됐는
가 말일세. 영?》

나는 그만 뜨끈한것이 목안을 짹 메우며 울려
미는 바람에 입은 종시 벌리지 못하고 로인의 손
만 굳게 움켜쥐였다.

장알이 박힌 결결한 손... 절대로 물려서서는
안될 계급의 손탁을 알려주는것만 같은 억센 손
아귀... 세대가 아무리 여러번 바뀐대도 결코 빠
뜨려서는 안되며 작아져서도 안되며 또 희미해져
서도 안되는 선렬들의 녀의 찢김, 력사의 피어린
흔적 ...

그렇다, 나는 오늘 별로 크지 않은 소묘작품
한편을 놓고 나와 함께 이 선군시대를 지켜가야
할 동시대인들의 성스러운 사명감과 계급의 큰
책임을 절감했다. 그리고 어제날의 흔적들은 자
꾸만 사라져가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분명히
살아있어야 할 원한의 흔적들에 대해 생각했다.

잇으면 적대계급의 발굴밑에서 다시 노예로 짓
밟혀야 하는것이요, 파리목숨보다도 못한 인생을
다시 살아야하는것이다.

아, 흔적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져가도 더욱 크게,
더욱 장중하게 메아리쳐야 할 력사의 웨침이여!

련시

첫눈 내린 강반에서

김만영

행 복

오늘은 일요일
가정의 일과에 따라
눈꽃이 핀 보통강반으로
두 아들을 앞세운 우리 부부
즐거운 산보길에 나섰다

겨울이여도
햇빛이 따스히 비치는 한낮은
봄날처럼 훈훈해
눈덩이가 되어 뛰어다니는
숨옷을 풀어헤친 아이들
내 마음에 동심을 둔장질하누나

사각사각
경쾌히 눈뽀하는 소리 들으며
우리 정답게 걸어가는데
멋이로다, 보통강반 여기저기 펼쳐진
사진찍는 신혼부부들의 그 모습

금시 봄향기가 풍겨오는듯
꽃치마 꽃저고리를 입은
새색시들과 둘러리들
어쩔 하나같이
선녀처럼 고울가

부럽구나
신혼부부 한쌍의 원앙새들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환희로이 남아있건만
어느덧 흘러갔구나 십수년세월이

보다 젊고 환희롭던
그 시절 그때를
우리 다시 맞을수 없을가
다시 맞아 한번 더
청춘으로 되돌아갈수 없을가

두어라 아니할 생각
우리 장군님 펼치시는
선군으로 끄떡없는
이 나라 이 제도
이 행복한 생활속에
우리 그때처럼
매양 젊어 살지 않는가

자. 열렬히 축하를 해주자
무엇이 다르랴 저네들과
우리 사랑 자네들처럼
활활 불타고있는데야
첫사랑 그때처럼 변함이 없는데야

강산엔 눈이 내려

강산엔 온통 눈이 내려
모든것이 더 순결하고
한결 더 아름답구나
눈꽃을 피운 길가의 가로수도
은빛주단을 편 잔디밭도

한자옥한자옥
또렷이 눈길우에 발자국을 새기며
걸어온 길 걸어갈 길
류다른 추억과 궁지에 젖고
깨끗한 생의 자옥만을 약속하며

새해의 첫눈길을 걷는 마음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푸는 가슴이어

그렇더라
나의 심장, 나의 열정, 나의 한생 다 바쳐
받들고 또 받들고싶은
이 거리
이 사람들
이 사회주의 없이야
찬눈이 이리도 후더울수 있으랴
겨울이 이리도 아름다울수 있으랴

강반의 겨울풍치(1)

아이들을 위해
겨울이 잔치를 베풀었는가
오늘은 거리의 아이들이
여기에 다 모인듯 하구나

눈덩이우에 하나 더 올려놓으니
제법 양코배기 미제놈
그리고는 저만큼 물러나
《총》을 쓰고 《수류탄》을 던진다
그 다음은 달려가 치고 차고 때리며
《치열》한 《육박전》을 벌려
아예 그림자도 없이 짓부셔버린다

한차례 《전투》를 치르고나서
또다른 놀이가 벌어지누나
나무밑에 한 아이 들어서자
나무를 마구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하얀 눈가루
연기처럼 피어나
아이는 그만 눈사람이 되고마누나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이번엔 엇치락뒤치락
눈이 무슨 숨이기나 한것처럼
눈이 무슨 흰 주단이기나 한것처럼

아이들이 눈을 좋아하는가
눈이 아이들을 좋아하는가
마구 어울려 뒤편벽이 되어
아이들과 눈을 분간키 어려운데

가던 사람 오던 사람
그냥 서서 웃기만 하누나

종구나 아이들아
마음껏 뛰놀아라
겨울은 너희들의 겨울
백조처럼 흰눈은
천진하고 깨끗한 너희들과
얼마나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허나 너희들은 모르리라
눈이 내리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자꾸만 쌓이는
그런 아이들이 이 세계에 있다는것을

추위에 뺄속까지 얼어들어도
한겹의 입을 옷이 없고
덥혀줄 한칸의 집이 없어
무섭게만 생각되는
그런 겨울이 있다는것을

그렇다 너희들은
영원히 그런것을 모르리라
허나 이것만은 꼭 알라
너희들의 그 웃음이 오늘은 왜 이다지도
세상에 크게 울리는것인지
어느분이 그 큰 웃음을 통채로 다 안겨주셨는지
어찌하여 흰눈이
너희네와 친한 동무가 됐는지

강반의 겨울풍치(2)

겨울의 강변은
아이들만 부른것이 아니요
손자 손녀도 없이
하얀 수염발을 날리며 눈길을 걷는
우리 동네 박로인
어쩌면 그리도 걸음이 가볍소

일년 삼백여순날
새벽이면 산보에 눈익은 길이라
앞만 보며 채우쳐 걷다
무엇에 걸리셨는가
눈에 미끄러지셨는가
그만 눈우에 넘어져 어푸러지는 로인

저 일을 어찌나
칠십고령의 로인님이
사람들 모두다 혀를 차며 달려가고

맨먼저 달려간 두 처녀
다급히 부축여 일으키는데

일어섰다 또 한번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으며
쿵-- 넘어지는 로인
아빨싸 이젠 년세가 많아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가봐

웬질 모르는 소리
지난 가을 체력검정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소
자전거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타는
우리네 박로인
하니 그저 이 눈이 좋아
있었어도 있던것 같지 않은 그 유년시절이
못 견디게 생각나

못 건디게 그리워
아이들처럼 눈우에 뽕굴고싶어도
차마 그러지 못해

그저 좀 넘어진척 하시며
한번 뽕굴어보시는게지
한번 즐기어보시는게지

겨울

누가 말했던가
사계절을 하루에 비긴다면
봄은 아침과 같고
여름은 한낮과 같고
가을은 저녁과 같고
겨울은 밤과 같다고

그러기에 겨울은

우리 생활에 꽃향기를 풍겨주고
푸르려 약동하는 젊음을 주고
풍요한 열매로 보태준
수고많은 이 땅, 한그루 나무도
포근한 이불을 덮고 푹 쉬어
새해에는 더 큰 힘을 내라고
눈이 내리는것일가
비단술같이 하얀 눈이 ...

여기 또 오라 첫눈이여

유보도 계단우에 쌓인 눈을
톡톡 털어내고
그우에 앉았노라니
들려오누나 강변을 거닐며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작년에 년간계획을 넘쳐 끝내고
첫눈을 맞았는데
올해엔 창고고안을 끝내고
첫눈을 맞는다는
등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다음엔 또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작년엔 건설을 끝내자
첫눈이 오더니
올해엔 조업을 하니
첫눈이 온다고

둘러보면
애인인듯 다정히 걸어가는
젊은 남녀
색고운 외투를 입고
활기에 넘쳐 걸어가는 사람들
저들은 누구들인가
누가 무슨 말을 했을가

묻지 말자 모른들 어쩌랴
모두가 평범한것 같으면서도
그렇듯 큰일을 한
자랑많은 우리 인민들인걸

하니 해마다 내리는 눈은
단순히 무심한 눈이 아니었구나
그 한송이 한송이가
창조와 위훈으로 값높게 산
지나간 추억을 불러내는
다정한 벚들의 목소리라 할가

오, 첫눈이여
이 땅에 내리는 축복의 꽃보라여
녹거들랑 다음해에 또 오라
다름아닌 여기 선군으로 지구를 들썩이는
바로 내 나라 강산에

그때엔 내 얼마나
징군님 불러오신
불타는 려명에 비껴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하고
더 빛나는 추억을 또다시
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줄것이나

조선속담

근면성

- 손끝이 거름
-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 첫 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
- 초사흘달은 쟀 며느리가 본다
- 찢는 방아도 손이 나들어야 한다
- 열번 갈아서 안드는 도끼가 없다

확신성

- 남의 속에 있는 글도 배운다
-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 죽을데도 살 약이 있다
- 어느 말이 물 마다하고 여물 마다하랴
- 어느 집 방아간에 겨 한줌 없겠는지
- 열에 아홉



(한 처녀돌격대원의 일기중에서)

김용환

X

나는 6.18건설돌격대에 나온지 석달밖에 안되는 신입대원이다. 그래서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돌격대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친절하게 가르쳐주곤 한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되었지만 나도 그런대로 돌격대생활이 몸에 익어가니 그 친절이 오히려 불편스러워날 때까지 있다.

하지만 신입대원은 어쩔수 없는 신입대원이다.

오늘 아침 대대에서는 비상소집이 있었다.

식료공장건설에 쓰일 원목생산보장을 위하여 X지구로 간다는 것이다.

내가 필요한 사품을 절반도 못 꾸렸는데 밖에서는 벌써 대원들을 태운 화물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나를 재촉하고있었다.

《정심동문 들놀이차비를 했나? 배낭만 보아도 배가 불쑥해지누만.》

소대의 익살꾼인 오길삼동무가 사품을 마구 꾸셔넣어 터질듯이 부풀어오른 나의 배낭을 넘김 받아올리며 하는 말이였다.

돌러보니 모두 간편한 차림들이였다.

며칠이면 끝날 원목전투장으로 떠나면서 무슨 요란한 행장이 필요하겠는가.

생활의 타성이란 집요한가보다. 지난날 조금만 먼길을 떠나도 어머니가 끈끈스레 짐을 꾸려주던 버릇이 그만 습관처럼 나타난것이다. 털어버려야 할 습관이다. 어떻게 마음먹고 떠난 결음인가.

그래서인지 자그마한 실수에도 자꾸 신경이 썩여진다.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우선 소대별로 립시천막을 쳤다. 녀성천막은 제일 안침진 곳에 위치를 정했다. 사방에서 천막말뚝 박는 소리가 잡자던 골안의 정적을 깨쳐놓았다.

그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눈보라까지 거대한 날개를 퍼덕이며 덮쳐들었지만 나는 그저 흥겹기만 했다. 영화나 책으로만 보아오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의 일단을 직접 체험해보는것만 같은 랑만에 손이 시린것도, 한밤이 깊어가는것도 전

혀 몰랐다. 우리 고장같으면 김장이 한창이겠지 만 여기 백두산지구에는 눈이 벌써 발목을 잠그는데다 땅까지 길이 넘게 얼어붙어 말뚝 하나 박는데도 여간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천막이 퍼지자 일은 순풍에 돛 단듯이 풀려나 갔다. 좀 깔깔하긴 해도 간 여름의 온기가 그대로 습벵듯 한 노르끼레한 이갈락업을 한아름씩 안고와 잠자리를 만드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굵은 강대나무에 모포를 말아 길게 통베개를 만드는 동무들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어느새 들어다 불을 지핀 도람통난로에서 더운 열기가 물씬 대며 피어올랐다. 밖에 놓았던 배낭무지가 눈보라에 묻혀 영영 겨울물분이 될번 한것도 모르고 헤덤비긴 했지만 그것도 그런대로 제자리를 잡았다.

해놓고보니 백두산의 야영생활도 별것이 아니라 생각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일손을 도우러 왔다가 눈이 휘둥그래지며 《히야! 이거 치마동네가 한살림 휘딱 차려놓은걸 보니 대단한데.》 하고 너스레를 떠는 길삼동무에게 나도 흥이 나서 한마디 했다.

《흥, 너자라고 숙보지 마세요. 이제 백두산의 겨울이 어떤 사람들부터 먼저 피해가는지 두고보라요.》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이 다음날 아침으로 자신에게 쏜 화살이 되어 날아올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멀고도 험한 눈길행군에 치진 우리는 천막이 꾸러지기 바쁘게 뛴아떨어졌다.

일기장도 펴보지 못한채 말이다.

얼마나 잤는지 갑자기 숨이 답답한데다가 어데선가 떠들썩한 소리까지 들려와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웬일인지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을 뒤채기려 할수록 숨만 점점 더 가빠났다. 한참만에야 겨우 모지름을 써서 모포를 들치고 일어나니 주위에

서 남성동무들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둘러보니 천막이 온데간데 없었다. 간밤의 태풍에 천막이 날아바린줄도 모르고 그대로 끓아떨어졌던것이다.

《하하하... 그러니 백두산 겨울할아버지가 곧바로 정심동무부터 방문했구만. 응. 하하하...》

웃웃을 벗어붙인채 눈가루로 뺨수마찰을 해대던 길삼동무가 긴 목을 뽑아가며 시까슬러댔다.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얗게 눈가루를 뒤집어쓴 꼴도 부끄러웠지만 공연히 난딱 나서서 한마디 했다가 길삼동무의 입담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니 제풀에 약이 올라 숨쉬기마저 가빠났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직 약과였다. 뒤미처 나타난 유인석소대장의 추궁은 나를 아예 납작하게 눌러 놓았다.

《이 천막 보조벌침말뚝을 누가 박았소. 엉? 여긴 백두산이야. 백두산, 백두산생활이 뭐 아이들 장난인줄 아는가!》

돌격대에 나오기 전 립산에서 벌목공일을 해서 그런지 말마디들까지도 날이 선 도끼날처럼 후려치듯 들렸다.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소대장의 재밌얼굴이 통채로 뽀허나간 보조말뚝자리에서 굳어지는 비람에 나는 목이 움츠러들었다.

그것은 내가 박았던 말뚝자리였던것이다.

보조말뚝이어서 걸써 박아넣었더니 태풍에 뽀허나가면서 그 틈새로 바람이 숨새들어 천막이 풍선처럼 어데론가 날아가버린것이 분명했다.

나는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귀전에는 방금 소대장이 한 말만이 맴돌이쳤다.

자그마한 말뚝하나도 제대로 박지 못하는 내가 과연 백두산의 준엄한 겨울을 이겨낼수 있을까 하는 위구와 함께 이름 못할 공포심까지 슬그머니 기어들었다.

길삼동무가 락심해있는 나의 등을 툭 치며 술진 눈섭을 찡긋거렸다. 그것은 마치 《어때, 이제야 백두산이 아무에게나 호락호락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걸 알았지.》하고 묻는것 같아 나는 《호》하고 한숨을 길게 내그었다. 아마 백두산도 뜻내기인 나를 알아본 모양이다. 하지만 물러설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도 큰 마음을 먹고 떠나는 걸음이다. 집안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난 나는 늘 부모의 손끝에 묻어살다싶이 하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내가 차차 나이들어갈수록 말끝마다 《언제가면 너도 네 발로 걸겠느냐?》는 말을 대달군 했다. 나는 그 말을 나이차가는 딸자식에게 의례히 하군 하는 어머니의 잔근심쯤으로 여기고 별로 귀에 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원예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소재지에 있는 어느 한 화초원에서 일하고있던 나는 그날 군에도 원예사들이 할일이 많으니 집으로 오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땅을 찾게 되었다.

실은 이버지에게 잘 이야기하여 화초원에 그대로 남아있자고 마음먹고 떠난 걸음이었다.

그새 몸에 익은 도시생활도 도시생활이지만 어쩐지 아늑한 화초원을 성큼 떠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고향역에 도착한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졌다. 읍으로 통하는 큰길가에는 술한 사람들이 나와있는데 학생취주악대가 울리는 환영곡소리가 역사를 흔들어놓았다. 무슨 환영행사라도 있는것 같았다. 내가 한동안 어안이 병병해있는데 누구인가 나의 등을 툭 쳤다. 돌아보니 학교시절 나와 한 학급에서 공부하던 영금동무였다.

《야! 너 그새 도시생활을 하더니 멋쟁이가 됐구나.》

영금이는 새로 지어입은 나의 옷을 쓸어보며 옛 버릇 그대로 새물거렸다.

《애두 참, 이건 최근추세야. 말하자면 현대류행이지, 그런데 참, 넌 지금 어디서 무얼 하니?》

《6. 18건설돌격대에 나가있어. 백두산에서 지금 다른 동무들과 함께 표창휴가차로 오는 길이야.》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오면서도 서로 몰랐던것이다. 방금 열차에서 내린 풀색제복을 단정히 입은 돌격대원들을 에워싸며 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니 이들을 마중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것이다. 표창휴가라니 말을 안해도 얼마나 많은일을 했는지 알만 했다.

그들의 풀빛제복에서는 백두의 숲향기가 풍기는것만 같았다.

《같이 가.》

영금이가 멍청히 서있는 나의 팔을 끌었지만 나는 머리를 저었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던것이다. 누구인가 나를 스치듯 지나 영금이쪽을 향하여 달려갔다. 중학교시절 우리를 배워준 선생님이였다. 나는 속이 허전해났다.

함께 품어주고 자래워 내세워준 고향이건만 맞아주는 표정은 너무도 달랐던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큰길 한옆으로 물러섰다.

환영군중 한가운데로 발맞춰 걸어가는 돌격대원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나를 마구 밀쳐버리는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고향의 큰길로도 나서지 못하는 주제에 희뽀게도 추세요, 류행이요 하고 가르치려든것 생각하니 숯불이라 도 들썩거처럼 낮이 달아올랐다.

《정심아, 우린 저쪽으로 가자.》

마중나왔던 어머니가 변두리쪽으로 난 오솔길로 나를 이끌며 나직하게 한숨을 지었다.

그 소리가 왜 그리 크게 들리던지 ...

어머니의 눈에까지 차지 못하는 자식이 되고보니 왜 아직까지 제발로 못 걷는다는 청원을 받았는지 알것 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늙으면 자식이 지팽이라는데 나는 아직 지팽이는 고사하고 동정의 눈길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때 받은 충격은 오래도록 나를 곤질기게 괴롭혀 끝내는 백두산으로 떠밀었던것이다.

이러한 나를 백두산은 아직 낯가림하고있는것이다. 정을 들여야 한다.

그러자면 땀을 바쳐야 한다.

생각은 뻔했지만 그 길이 험치는 않으리라는 예감

에 마음은 여전히 가볍지 않았다.
무표정한 소대장의 얼굴이 자꾸 밟혀온다.
왜 그런지 아직은 종잡을수 없다

×

오늘부터 대대는 벌목전투에 들어갔다.
우리 소대는 죽은 강대나무가 많은 앞산 등마루를 림지로 정했다. 아무리 공사가 중해도 백두의 푸른 숲에는 손을 댈수 없었다
누구인가 숲으로 들어가면서 숲은 시 한구절이 가슴을 찼다.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아직 식당이 채 꾸려지지 않았기때문에 나는 자진하여 식당근무를 섰다. 백두산과 같은 고산지대에서 한 겨울에 세끼 식사를 제때에 보장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무가 젖은데다 골바람까지 세다나니 아침식사를 마치기 바쁘게 서둘러됐지만 해가 중천을 벗어 나서야 겨우 점심준비를 마칠수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뭔가 더해보려고 두루 원심을 썼더니 식탁이 제법 풍성해진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소대장이 지시한대로 작업현장까지 식사를 운반해야 했다.

펄펄 끓는 국밥을 가마채로 발구에 실은 나는 그 우에 백포를 여러겹 씌웠다. 그러고도 안심치 않아 입고있던 솜옷과 목도리까지 벗어 덮쳐워놓았다.

밖에 나서니 눈보라가 태질하며 향방없이 온몸을 에워쌌지만 대원들에게 따끈한 밥과 국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은 마냥 후덥기만 하였다. 산기슭에서부터는 백포에 쓴 가마를 부여안고 올랐다.

여기 백두산지구의 산들은 하도높아 어지간한 산들은 야산같이 보이지만 정작 접어들기만 하면 어방없이 높고 가파로와 혼쭐을 뿜어놓곤 한다.

내가 숨이 턱에 닿아 작업장이 지척인 등마루를 가까이 했을 때였다. 갑자기 발이 나무뿌리에 걸채이며 몸이 허공에 들리는것 같더니 비탈진 눈길로 사정없이 굴러내리기 시작했다.

《앗!》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았다.

《어데 다치지 않았니?》

누구인가 눈구멍이속에 묻힌 나를 부축해주었다.

백두산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게 된 영금이었다.

아버지의 권고대로 고향에 내려와 군원림사업소에서 일하다가 돌격대에 나왔기때문에 우리는 자못히 한 소대에 있게 되었다.

《일없어.》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빙그레 웃었다.

《어마나, 이걸 어찌니?》

영금이는 나의 손을 부여잡으며 펄쩍 뛰었다.
가마뚜껑새짚으로 새어나는 국물에 데어 별것에 부풀어오른 나의 손등을 보았던것이다.

어망결에 한 일이지만 정작 당해놓고보니 나도 남들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났다. 나무초리끝에 앉은 새를 대하듯 놀아나니 한 눈길로 나를 대하던 어머니가 이러한 딸을 본다면 얼마나 대견해하랴 하는 생각에 눈굽이 아릿해났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어느새 우리를 떠여본 길삼동무가 큰 키를 켜충대며 뛰어왔다.

《자, 따끈따끈한 국밥이요. 품배기신청까지 다 담아 꼭상으로만 주오.》

긴 팔을 찰추듯 너풀대며 국가마를 넉넉 받아안고 뛰어가던 길삼동무가 《앗, 따가.》하며 귀불을 싸쥐고 뱅글뱅글 맴돌아치는 바람에 《와!》하고 웃음이 터져올랐다.

《어데 데지 않았어요?》

내가 다가가자 길삼동무는 《아이고, 정심동무의 뜨거운 정성에 난 벌써 데다 못해 익어가고있소.》하고 죽는 시늉을 하여 사람들을 또 웃겼다.

《아니, 길삼동문 손을 데더니 이번엔 속까지 익힐 셈이예요?》

국을 퍼돌리던 나는 벌써 차례진 국을 찬물 들이키듯 하고 빈사발을 내미는 길삼동무에게 룡을 걸었다.

《까짓거 기왕이면 속까지 꼭 삶아보자는거요.》 길삼동무도 지지 않고 제격 응수했다. 하긴 말이 모자라면 길삼동무가 아니다.

나는 동무들이 기뻐하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것 같았다. 그리던 나의 기쁨은 얼마 못가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고말았다.

식사가 끝난 후 유인석소대장이 나를 따로 불러놓고 말했다.

《오늘 동문 식사시간을 30분이나 지연시켰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소.》

나는 소대장의 무표정한 얼굴을 아연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대원들에게 더운 밥과 국을 보장하자고 손등까지 데우면서 애썼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추궁을 하더니... 그래 소대장눈에는 이 모든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지만 내가 돌격대에 입대하여 맞는 첫 일요일에 대대에서 진행된 팔씨름경기에 나섰던 소대장의 얼굴이 피땀 떠올라 꼭 눌러 참고말았다.

그때 소대장과 마주섰던 대대후방참모는 한때 전문체육단의 레스링선수생활도 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사람으로서 팔목 하나가 벌찬 사내애들장판지만큼이나 실한 우람찬 체격이었다.

작달막한 키에 비해 류다르게 목이 굵은것으로 하여 평소에는 꼭 다부져보이던 소대장도 그와 맞세우고보니 어방없이 힘이 기울어보였다.

경기는 시작부터 소대장쪽이 기울기 시작했다. 일단 접혀들기 시작하면 추세우기 힘든것이 팔씨름경기라 소대원들은 웅원도 못해본채 맥을 놓고있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울어져가던 소대장의 팔이 딱 벗어섰던 것이 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후방참모의 특 불거져 나온 이마에서는 팔알같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대장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대신 마주잡은 팔목에서 땀발이 줄곧 흐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대장을 똑 부릅뜬 눈으로 마주보던 후방참모의 얼굴이 꺼렇게 질리더니 끝내는 맥을 놓고말았다.

다 기울어진 판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뻗치면서도 낮색 하나 달리하지 않는 소대장의 완강성에 기가 눌린 후방참모는 종내 손을 들면서 《허참, 내 팔씨름을 하다하다 팔목에서 땀흘리는 사람은 처음 보았군.》하고 허를 차며 랑패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일 없었던듯이 순간 씩씩 마주 비비는 소대장을 두고 특수체질이라고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 역시 달리 생각되었다. 돌덩이같이 전혀 무감정한 사람이었 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났다.

집 떠난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지휘관은 부모와 같았는데 나에게만은 왜 저런 차디찬 심장을 지닌 소대장이 차례졌을가 하고 생각하니 허구한 날 소대장의 손탁에서 치여날 일이 난감하기만 했다.

×

여름철에는 발길에 채우는것이 돌이어서 막돌이라 부르던것이 겨울에는 눈속에 얼어붙어 보고 죽자고 해도 손에 넣을수 없어 우리가 금돌이라 이름지어 부르는 막돌채취가 며칠전부터 시작되었다. 막돌채취는 소대별로 하였는데 장소는 제가꿈이었다. 산비탈에 채취장을 정한 소대가 있는가 하면 마을주변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소문없이 야금야금 막돌을 끌어내는 소대도 있었다.

우리 소대는 시내가에 자기 진지를 정했다.

산업시설물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채취는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시내가에 옆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됐는데 연방을 파자니 흙이 너무 많이 들어 실적을 올릴수 없었다. 게다가 깊이 들어갈수록 물기가 스며들어 질척해진 바닥은 물속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제는 막돌채취도 마지막고비에 들어섰는데 이러다가는 소대별경쟁에서 순위권은 고사하고 경쟁대상에서까지 제외될 판이다.

이러한 실태앞에서 온 소대가 사색이 되었는데도 소대장만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무엇에 쓰러는지 아침부터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를 쫘무니에 지르고 앞장서 작업장으로 향했다.

시내가 한가운데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던 소대장은 도끼로 두툼한 얼음장을 깨기 시작했다.

잠간사이에 큼직하게 뚫어진 얼음구멍안으로 시퍼런 강물이 사름치며 흐르는데 그아래 검칙칙한 막돌들이 디글디글하게 널려있는것이 들여다보였다. 《히야!》하는 환성이 일어났다.

길삼동무가 무작정 얼음덩이가 뚱뚱 떠도는 물

속에 뛰어들러다가 《헉!》하고 가쁜 소리를 내며 화닥닥 들어올린 발에서는 하얀 김이 물씬 피어올랐다. 기온이 령하 30도를 넘어서고있었던 것이다.

물에 잠겼던 아래도리가 감각을 잃었는지 길삼동무는 입만 딱 벌린채 말뚝처럼 굳어져있었다.

그러건말건 소대장은 물장구치는 아이들처럼 침범대며 물속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돌 하나를 꺼내들었지만 던질념을 못하고 팔만 후들후들 떨었다.

돌이 손바닥에 얼어붙었던것이다.

다시 물속에 넣어 녹인 다음 이번에는 날썰게 기습을 향하여 뿌려던졌다.

길삼동무를 비롯하여 몇동무가 또 뛰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들어설념을 못했다.

경련이라도 인듯 푸들푸들 떨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발에 뿌리라도 내린것처럼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침 소대장이 나에게 모닥불을 피우라고 소리쳤다. 간 여름의 큰물에 떠내려온 나무가지들을 모아들어 불을 지피면서 보니 물속에서 건져낸 돌들이 기습을 향하여 비발치듯 날아오는속에서 사람들 역시 드문드문 총알같이 뛰어나오는것이 보였다. 그들은 곧바로 불무지엿에 왔다가는 덴집을 하며 물러나곤 했다.

언발에 갑가지 불을 쏘이니 저리고 아파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소대장은 끄떡없이 벌티고 선채 물속에서 나올념을 안했다. 길삼동무는 아래력을 덜덜 떨기라도 하는데 소대장의 재빛얼굴은 조각이기라도 한듯 한본새로 변함이 없었다. 물속에서 떨고있는 동무들을 보니 나의 몸까지 얼어드는것 같았다. 불을 지핀 다음 몇번이고 물속에 뛰어들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나에게는 중학교시절 처음으로 농촌지원에 나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마치 들놀이라도 가듯 간식구력까지 들고 나타난 나를 보고 담임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정심이는 가방이나 지키지 뭐.》하고 말했다.

내가 왜 가방이나 지킨단 말인가.

얼굴이 확 달아올라 호미차루를 집어들었으나 사래긴 고랑을 절반도 못나가 손에 물집이 잡혀서 물러나고말았다.

그날 밤 물집진 나의 손에 딱충을 놓아주며 어머니는 몹시 낮을 흐렸다.

《엄마, 일없이 걱정하지마》하고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그래서가 아니다. 언제면 너도 네 발로 걸겠는지 원. ...》하고 늘 하던 말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그때 한 어머니의 그 말에 떠밀치우기라도 한듯 나는 눈을 꼭 감고 물속에 들어섰다.

금시 발가락이 땡강땡강 부러져나가는것 같았다.

돌을 찾아 발을 옮길 때마다 결채이는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쿡쿡 솟구쳐올랐다.

그래도 나는 이를 시려물고 물러서지 않았다.

《동무는 왜 들어왔소? 나가서 불이나 피우오.》 나를 띄어본 소대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지만 나는 들은척도 안했다.

나라고 왜 불부지나 지켜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소대장이 머리를 돌렸다. 두번 다시 말하기를 싫어하는 소대장이다. 오늘 소대는 그새 밀린 봉창을 톡톡히 했다.

널려진 돌을 모아놓으니 키를 넘었다. 그속에 나의 몸도 있다고 생각하니 얼었던 몸이 다 풀리는것 같았다. 저녁에 작업현장에 나타난 덕이 뿔처럼 동그스름한 대대관정원까지도 흐뭇해하더니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제멋에 겨워 절절 웃었다. 그러다가 마감에 떠나가면서 경쟁에서 5등권에는 들것 같다는 말을 남기는 바람에 소대의 기분은 대번에 가라앉아버렸다. 아홉개 소대중 다섯번째 자리라니 맥이 났다.

《이건 꼭 수평맞춘 저울논금 한가지로군. 대대 한가운데 꼭 올방자를 틀고 앉았으니...》 길삼동무가 대원들의 사기를 띄여보려고 한마디 던졌으나 누구도 대척하지 않았다.

돌격대에서 모든 일은 경쟁적인데 그 승벽이란 대단하다. 경쟁의 승패가 전반적전투사기에까지 영향을 주기때문에 누구나 필사적으로 접어든다. 이러한 경쟁에서 패했으니 대원들이 락심해할 만도 했다. 나역시 기분이 울적해졌다.

게다가 소대장의 추궁까지 듣고나니 기분은 말할수없이 잡쳐졌다.

저녁총화때 소대장은 불무지관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3일간의 공구실사콥배기처벌을 주었던것이다. 공구실사란 하루일을 끝내고 공구를 창고에 넣을 때 하는 실사인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일 순번제로 당번을 썼다. 그러지 않아도 소대에서는 내가 늘 도맡아하던 일이었지만 처벌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으니 분하기 그지없었다. 그대 나는 놀았던 말인가. 항변을 들이대고 싶었지만 불무지를 잘 돌보지 못하여 대원들의 젖은 옷을 말리지 못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 처벌을 주면서도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하는 소대장을 보니 절로 꺼지게 한숨이 나갔다.

정말 건디기 어려운 손탁이다. 돌문같이 딱 단긴 메마른 그에게 도무지 마음을 붙여낼것 같지 못했다.

병실에 돌아오니 식당에서는 만두를 빚는다고 복새를 놓고있었다. 무슨 기분으로 만두를 먹는단 말인가. 불은 불에 키질한다고 길삼동무까지 경충한 키에 비해 어방없이 작은 앞치마를 깐동하게 걸치고나서 식당안이 좁다하게 돌아치고있었다.

불수록 싱거운 사람이다. 모든것이 귀찮아 병실에 누웠다가 식사시간에 별수없이 식탁에 앉으니 길삼동무가 다가와 오늘은 특별봉사라면서 친절하게 만두를 권했다. 옷은 낮에 무안을 줄수 없어 입으로 만두를 가져갔던 나는 기겁을 하여 입을 싸쥐고 쿵당쿵당 뛰었다.

만두속에는 내가 조금만 먹어도 움짍을 못하는 고추가 들어있었던것이다.

식탁이 떠나갈듯 한 웃음이 터졌다. 어떤 동무들은 너무 우스워 식탁을 두들겨대는가 하면 처녀들은 금방이라도 대굴대굴 굴러갈것

처럼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길삼동무만이 모르쇠를 하고 돌아앉아 별찌 만두를 두사발째 밀굽내고있었다.

보나마나 그가 한짓일것이다. 《뭐예요, 이건 뭐 놀리는건가요?》 낮이 쌀쌀해진 나는 만두사발을 길삼동무식탁 쪽으로 밀어놓고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놀림을 당했다는 분한 생각에 모포를 뒤집어쓴 채 가쁜숨만 쉼근쉼근 내쉬고있는데 누구인가 들어서는 인기척이 났다. 소대장이였다.

《이건 뭐요. 여기가 뭐 자기 집 아래목인줄 아는가? 여긴 백두산이요. 백두산.》

백두산이라는 소리가 핵 나귀채기라도 한것처럼 나를 일으켜세웠다. 백두산에서는 소대장만이 산단 말인가. 나는 백두산에 나온 돌격대원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미처 뿔이 선 말마디들도 채 고르지 못한채 머리를 드니 소대장은 벌써 눈앞에서 없어졌다. 대신 언제 들여다놓았는지 내가 밀어놓았던 만두사발만이 더운 김을 모락모락 피워올리고있었다. 만두사발을 보니 격한김에도 내가 길삼동무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울적해진 대원들의 사기를 띄워보려고 그랬을것이다. 길삼동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수록 대신 소대장에 대한 불신의 감정은 더 높이 자랐다.

《백두산에 간다고 해서 절로 백두산바람을 맞는다고 생각지 말아. 백두산바람이 누구나 끌고루 다 맞는 별바람은 아닐게다.》

내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멀리 동구밖까지 따라나오며 하던 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이 떠오른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들지 않았다. 그래서 백두산에 새겨가는 자옥자옥을 더 깊이 새기려 애썼다. 그런데도 소대장은 그 마음을 알아주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혹시 내가 웅졸하게 생각하는것은 아닐가. 아무디 속을 넓혀보려 해도 아찔한 절벽앞에 마주선듯 눈앞만 캄캄해졌다.

✕

돌격대생활에서 제일 그리운것이 고향소식이다.

그래서인지 설전야에 군내 책임일꾼들이 고향소식을 안고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은 대대는 이른 새벽부터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나 역시 기뻐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한 걱정이 생겼다. 군내 책임일꾼들이 온다면 분명 아버지도 오겠는데 난 아직까지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딸이라는것을 숨겨왔던것이다. 그것을 알면 사람들은 나를 아버지의 후광속에 세워놓고 불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백두산에 나오고보니 그 후광이 딱 질색이였다.

오늘 돌격대원들을 만나 고향소식도 전하고 군내 인민들의 지성이 담긴 지원품들을 하나하나 안겨주던 아버지는 깨끗하게 포장한 자그마한 지함 하나를 들고 말했다.

《이건 고향의 향취가 담긴 고사리입니다. 얼마전

림산마을의 한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와 자기는 달리 도울길이 없으니 이 말린 고사리라도 백두산에 나간 건설자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어머니는 오랜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몸이었습니다. 비록 한 지함의 산나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져있습니까. 백두산지구 건설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어린 우리 처녀들은 막 울었다. 병약한 몸으로 산판에 올라 한줌두줌 고사리를 뜯었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 나오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었다.

《위원장동지. 인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길삼동무가 눈물이 그렁해진 남동무들을 대표하여 말했다. 소대장만이 여전히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재빛얼굴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역시 한 겨울의 돌처럼 차디찬 심장을 가진 사람이 분명했다.

나는 아버지가 떠나갈 림박에야 멀리 갈림길 한끝에 나가있다가 만났다.

《그새 펴 컸구나. 얼굴도 검실검실해지구. 이제 뭐 신입대원때를 벗었다면서. 용타.》

다 자란 나를 두고 컸다고 하니 우습기도 하고 신입대원때를 벗었다고 하니 눈물도 났다.

《네가 이곳에 나와있으니 이 아버지의 발걸음도 가볍구나.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이다.》

늘 일에 부대끼다보니 모자라는것이 자식에 대한 잔정인 아버지의 말치고는 좀 장황한 편이다. 내가 어머니의 안부를 묻자 아버지는 《널 너무 생각하던 나머지 요새는 머리가 좀 돈 모양이다.》라고 하시며 껄껄 웃는것이였다.

《아니 왜요?》

《얼마전에는 군속보관에 나붙은 백두산건설자들의 영예사진속에서 네 사진을 슬그머니 떼여가지려다가 덜미를 잡혔지.》

《어마나, 누구한테요?》

《누군 누구겠니. 나한테 잡혔지. 허허허...》

《피, 거짓말》

내가 믿어지지 않아 눈을 곱게 흘기는데 아버지가 말을 잇는것이였다.

《사진이 한장두장 없어지길래 눈을 밝혔더니 글썽 이번엔 네 어머니가 걸려들지 않았겠니, 알아보니 다 가까운 부모형제들이 그랬더라 말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진을 몇장씩 더 깨워 그들 모두에게 고루 돌려주었다.》

나는 사진을 떼려다가 봉변을 당했을 어머니를 그려보며 허리가 부러지게 웃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다. 이 딸을 그리워하시는 어머니의 그 심정이 헤아려져서 말이다.

아버지와 헤어진 내가 어머니를 그려보며 돌아오는데 누구인가 앞을 막아섰다. 길삼동무였다.

《그러니 동문 우리에게 숨겼됐군.》

《뭘 말이에요?》

《자기가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딸이라는걸 말이요.》

《그게 동무와 무슨 상관이예요?》

나는 길삼동무의 얼렁수에 또다시 걸려들것 같아 짐짓 쌀쌀하게 대꾸했다.

《상관이야 없지. 하지만 난 짐작했었던 말이요.》

《어떻게요?》

《어쩐지 동문 척 보기만 해도 아직 ...》

《그만해요. 난 누가 생각해주지 않아도 일없이 걱정마세요.》

어머니가 말끝마다 연추처럼 매달아놓곤 하던 언제면 제발로 걸겠느냐는 지청구 비슷한 말을 길삼동무에게서까지 듣게 되니 신경이 바짝 도사려져 나는 따벌처럼 툭 쏘아주었다.

《물론 걸기야 하겠지. 하지만 새겨두라구. 길이라고 해서 다 제 갈길이 아니듯이 여기 백두산에서는 걸음이라고 해서 다 제발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는것을 말이야.》

길삼동무는 여전히 느물대며 나의 말꼬리를 물었다.

《생각해줘서 고맙군요. 하지만 한가지 명심할것은 자기 갈길이나 착실히 가라는거예요. 남의 앞길까지 걱정 말고, 그리구 한가지 더 말해줄것은 그런 식으로 시시하게 양값음하지 말라는거예요.》

《양값음이라니?》

《식당에서 만두를 먹을 때 내가 성을 낸 일 말이에요.》

《그게 언제때 일이라구...》

《동무에겐 지나간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으니깐요.》

《아이쿠, 따끔하게 쓰였는걸.》

설때린 정구공처럼 흔들대며 날아오는 길삼동무의 늘어진 목소리를 등뒤로 들으며 나는 종종히 자리를 떴다. 소대장처럼 백두산에서의 나의 생활을 두고 눈에 차하지 않는 길삼동무를 대하고나니 기분이 나빴다. 본때를 보이고 싶었다.

그날이 언제이겠는지 ...

새해에 들어와 우리는 백두산지구 전기문제를 푸는데서 큰 몫을 맡게 될 삼수발전소건설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러단의 선발대로 삼수땅에 도착한 대대앞에는 가배수로옹벽석축공사를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발전소가 일떠서면 하나의 자취로나 남을 말 그대로의 가배수로지만 현재로서는 선행시키지 않을수 없는 일감이다. 그것도 앞으로 범람할 눈석이물과 홍수를 이겨내자면 세멘트다짐을 한 영구석축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위연역에 도착한 150여톤의 세멘트부터 운반해와야 했다.

대대가 가지고있는 수송기재로써는 한주일이 걸려도 나르지 못할 량이었다. 짝 맞물린 공사일정은 그 한주일이라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분담된 세멘트운반량을 놓고 소대별로 토론들을 해보았지만 신통한 대책이 없었다. 갑자기 수송기재를 어디서 구해온단 말인가?

나는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날이 어둡기 바쁘게 누구에게도 알려지 않고 슬그머니 소대를 떠났다. 이미전부터 아버지와 면식이 있는 한 일군이 최근에 지휘부 운수분과를 책임지고 나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던것이다.

될지말지 한 일이니 미리부터 말을 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일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풀렸다.

그 일군은 내가 군인민위회위원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자 선뜻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하는것이였다.

나는 너무 기뻐 몇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아직도 걱정을 하고있을 동무들을 생각하며 걸음에 앞서 마음을 앞세우며 나는 소대로 달려갔다.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소대장동지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날것이다. 그때의 표정은 과연 어떠한가. 한당대 굳어져있을것만 같던 얼굴에 피어날 웃음을 그려보니 미리부터 절로 마음이 간질간질해났다.

하지만 소대에 도착하기 바쁘게 만난 소대장동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밤중에 어덤 갔었소?》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안돼, 우리가 차를 돌려쓰면 그만큼 다른 일이 걸릴것 아닌가?》

소대장동지는 밤길에 하얗게 성에에 불려 눈사람이 된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단마디로 일축해버렸다.

《그럼 어찌자는겁니까? 세멘트는 날라와야 할게 아닙니까?》

나는 안타까와 항변하듯 말했다.

《날라와야지.》

그는 툭 잘라버리듯이 말하고는 불빛이 환한 제채소쪽으로 걸어갔다. 무심결에 그쪽을 바라보던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렸다. 집채같은 대형나무밭구가 벌써 마감고비에서 다듬어져가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저 밧구로 세멘트를 나르자는것이 분명했다. 밧구를 타고앉아 도끼날을 휘둘러대는 소대장동지를 보니 이제 밧구를 끌고 오가야 할 왕복 100여리가 넘는 험한 눈길이 떠올라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을 붙여보려고 다가갔으나 그는 본척도 안했다.

다른 동무들도 일에 여념이 없는지 나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자신이 따돌림을 받은것같은감이 들어 은근히 서러움까지 북받쳐올랐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물위에 뜬 기름처럼 도무지 생활에 발이 붙여지지 않는것이 나로서도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았다.

×

예견했던대로 밧구전은 처음부터 힘겨웠다. 세멘트를 가득 싣고 얼음진 눈길에 나서니 내가 밧구를 끄는지 밧구가 나를 끄는지 모르게 길에 미끄러웠다. 한고개 넘으면 또 한고개, 산굽이를 돌아서면 또 다른 산굽이가 나타나는 길은 가도가도 끝이 있을것같지 않았다. 게다가 눈보라까지 터져올라 한치 앞도 가려볼수 없게 앞길

을 가로막았다. 이곳에서 오래 산 늙은이들이 아직도 옛이름 그대로 부르곤 하는 혼들레등판을 앞에 두고 잠시 숨을 돌릴 때 나는 아예 녹초가 되고말았다. 내가 이런 정도이니 줄곧 앞채를 잡고온 소대장과 길삼동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도 길삼동무 무슨 힘이 남아돌아가는지 부득부득 산판에 올라가더니 무슨 검축축한 나무껍질을 줌이 별게 들고오며 너스레를 떠는것이였다.

《자, 이제부터 내가 누구나 보기만 해도 감탄해마지 않을 멋진 신발을 신겨드리겠으니 움쩍말고 앉아들이나 있으소. 주문은 특별히 필요없으니 문수 헛갈릴 걱정일랑 아예 마시오.》

길삼동무는 제잡담 나의 숨신부리 받쳐들더니 들고 온 나무껍질로 촌촌히 동여매는것이였다. 아마 일전에 있는 만두사건같은건 정말 감감 잊은것 같았다.

《어떻소? 이게 바로 눈길에서는 으뜸인 설피라는거요. 좀 서둘긴 하지만 대신 값은 혈값에 흥정까지 덤으로 보태여 계산해도 되니 미리 걱정일랑 마소.》

길삼동무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제먼저 벌췌했지만 나는 매생이같이 커진 신발을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미끄러운 눈길을 걷기에는 제격이겠지만 언제 한번 이런 신을 신기는 고사하고 상상도 못해본 나로서는 나의 모양새가 스스로도 민망스러워 슬그머니 눈길을 돌리고말았다.

집에서 철따라 가려신던 신발이 떠오르며 백두의 엄혹한 겨울이라는 현실이 마주쳐와 가벼운 오한까지 온몸을 스치며 지나가는것 같았다.

《출발준비!》

땅에 영치도 붙이지 않은채 밧구를 꼼꼼히 정비하고난 소대장의 썩둑 잘라버리는듯 한 구령소리에 나는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진 몸을 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 한번 오르기만 해도 눈앞이 흔들댄다는 혼들레등판은 말그대로 눈썰미 아득한 등판이였다. 보통때는 몰랐지만 정작 무거운 짐을 끌고나서니 옛날 이곳 처서판사람들이 왜 혼들레등판이라고 불렀는지 리해되였다.

소대장은 자기 몸을 밧구체에 든든히 휘감고있었다. 한번 지쳐내리기만 하면 견잡을새 없어 천길나락으로 떨어질 밧구에 자기 몸을 결박하듯 동여매면서도 눈섭 한오리 딱딱 안하는 소대장의 너무도 혼연한 얼굴표정이 나의 가슴을 서늘하게 얼구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밧구를 놓지 않으려는 필사의 각오였다.

《혼들레등판이 우리를 혼드나 우리가 혼들레등판을 흔들어놓나 한번 겨루어보자구요. 황소같은 힘들은 이런 때 쓰지 언제 쓰겠소.》

길삼동무가 신통히도 황소영각같은 소리를 내며 멍에를 싣듯 밧구체에 목을 들이미는 바람에 긴장했던 분위기가 저오기 흥그러워졌다. 평소에는 싱겁게만 보이던 길삼동무의 익살이 이럴때 가물철의 약비처럼 달아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흔들레등판극복은 잔고했다. 아직 초엽도 벗어 나지 못했는데 목에서는 겨불내가 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힘과 의지를 가늠이라도 하려는듯 눈가루를 뽀얗게 떠인 맞바람까지 불어와 온몸을 사정없이 떠밀어댔다. 나는 길가의 나무 한그루, 바위코숭이 하나하나를 목표포로 안간힘을 다 썼다.

분명 눈앞의 나무까지만 가면 더 건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냥 앞으로만 나가고 있었다.

이런 경사지에서 발구를 세우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갑절이나 힘들다는것을 알면서도 소대장의 휴식구령이 목마르게 기다려졌다. 하지만 화석같이 딱 굳어진채 아직 땀발 하나 돌지 않은 소대장의 재빛얼굴을 보고서는 단념하고말았다.

갈수록 물매 급한 령길이었다. 땀에 뜬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눈앞으로는 무수한 별찌가 원을 그리며 훑날렸다.

령마루를 얼마 앞두고서는 발구가 앞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뒤로 치켜내리는것 같아 저도 모르게 비상제동기로 설치한 지레대를 꼭 누르며 소리쳤다.

《소대장동지! 발구가 뒤로 밀립니다.》

《정심이! 제동기를 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밀린다.》

소대장의 벽력같은 소리가 고막을 쳐서야 꼭 감았던 눈을 떠보니 발구는 여전히 산정을 뚫고 있었다. 수치감이 온몸을 지지듯이 달구며 지나갔다. 발구가 뒤로 밀린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뒤로 밀렸던것이다.

《등마루가 보인다- 아!》

앞채를 잡았던 길삼동무의 소리에 소대는 《와!》하고 환성을 울리며 발구를 밀어올렸다.

그 힘에 받들려 나도 끝내 주저앉지 않고 등마루에 올라설수 있었다. 올라서보니 마치 인생의 큰 령이라도 넘은듯 가슴은 크나큰 환희로 설레었다.

《자, 이제 등판에 올랐으니 설피값을 계산해야지.》

길삼동무가 또다시 씨물대며 내앞으로 다가왔다.

나만 보면 공연히 지부령대지 못해 주변을 에도는 길삼동무다.

《피, 엉터리신발.》

나는 짐짓 입술을 비죽이며 피씩 웃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신이 아니었다면 빈몸으로도 오르기 힘들었을 등판이었다.

《허, 이거 앉아주고 서서 받는다더니 흥정이 점점 야박해진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밀지는셈치구 정심동무의 노래 한마디로 값을 굶때고말가.》

마치 나의 동의라도 얻은듯 비위살뜰게 바투 다가서며 떡 올방자를 틀고앉는 그를 향해 눈을 흘기며 나는 길삼동무의 넓은 어깨를 꼭 밀쳐버렸다.

《아이쿠!》

길삼동무는 숨 넘어가는 소리를 치며 눈판에 몇고래나 데굴데굴 굴었다. 큰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또 무슨 엉터리를 칠 잡도리같이 재차 다가서며 종주먹을 쳐들던 나는 그만 흠뻑했다.

그의 어깨를 시뻘겋게 물들이며 내뻘 피를 보았던것이다. 발구채에 쓸릴대로 쓸린 그의 부여

오른 어깨에서는 진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있었던것이다.

(어쩌면 이 지경이 되도록...)

피흐르는 그의 어깨를 부여잡는 나의 손등으로 는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지고있었다.

《허, 이거 잡자기 절기가 바뀌었나, 겨울비가 내리는걸 보니. 난 여름비보다 겨울눈이 더 좋더라.》

어느새 아픔을 이겨낸 길삼동무가 또다시 몸을 걸자고 집어들었다 정말 어쩔수 없는 동무다.

《자, 이제 떠나보지요.》

소대장이 말없이 길삼동무를 앞채로 불러댔다.

《안됩니다.》

나는 길삼동무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그 몸으로 어떻게 앞채를 멘단 말인가. 너무했다.

《소대장동지! 지금 길삼동무의 몸상태가 어떤 줄 압니까? 그는 지금... 지금...》

거침없이 쏟아질것 같던 나의 말이 툭 끊어지고말았다. 소대장의 거친 손이 나를 한옆으로 밀치듯 비켜세웠던것이다.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다. 너무도 가혹하고 무참한 무시였던것이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움켜물었다.

왕가물에 용드레질이라고 메마른 소대장의 가슴을 적시기에는 나의 눈물이 너무도 보잘것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정심동무의 설피값계산은 내 저금통장에 따로 적어둔다.》

나의 심정도 모르고 길삼동무는 여전히 느물땀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다만 소대장에 대한 억한 감정만이 불뿔같은 눈물처럼 부글부글 피어오를뿐이었다.

정말이지 너무도 무정한 인간이었다.

×

북방의 늦은 봄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한겨울의 혹한속에 시달리던 나무우듬지들이 젖살오른 아기들처럼 새봄에지더니 갑자기 눈녹은 탕수가 꾸역꾸역 밀려들기 시작했다.

봄을 맞으며 대대는 언제썰기에 총동원되었다. 오늘도 우리는 한키로메터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혼석을 날랐다. 돌처럼 무거운 혼석을 가득 실은 밀차를 밀며 구배 심한 경사길을 오갈 때마다 나는 마라손수들이 넘기곤 한다는 극한점을 생각하곤 한다. 그들이 넘기는 극한점은 시공간의 한계가 있는 극한점이라면 우리의 극한점은 한계가 없는 극한점이지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물려서지 않았다. 물려설수 없었다.

두번다시 소대장의 무시를 당하고싶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요새는 대대속보판에서 나의 이름이 고정란처럼 새겨져 떨어질줄 몰랐다.

나는 그앞으로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흔들레등판에서 보았던 길삼동무의 피흐르는 어깨가 자꾸 나의 발목을 부여잡아서이다.

그에 비해볼 때 나의 극한점은 이제야 시작이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해질녘에 나는 영금이와 함께 중참을 날라왔다. 해종일 혼석을 나르느라 속이 출출했던 대원들은 가마치를 물에 불구어 다시 끓인 술치죽을 맛있게 들었다. 식성좋은 길삼동무는 술치죽에 물까지 부어 훌훌 마시면서 조선커피가 제일이라고 익살을 피워댔다.

소대장만이 술치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술을 놓고 술머시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이것을 지켜보던 영금이가 얼굴을 싸취고 돌아섰다.

다가가보니 죽이 약간 늘어있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하여 나무가 젖다나니 가마침이 늘어붙었던것 같다. 나는 더 참아낼수 없었다. 우리의 성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법이 어데 있단 말인가. 가마침이 좀 탄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중참까지 외면하는가. 누구라도 불잡고 막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서는 삭여낼수 없었다. 마침 남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는 길삼동무에게 다가가 아직까지 꿈꿨 재워두었던 감정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버렸다. 목석, 돌심장, 메마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몰랐다.

소대장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말해주라는 의도였다. 나의 말을 듣고있던 길삼동무의 얼굴이 점점 검붉어졌다.

《말을 다했소?!》

길삼동무의 시꺼먼 눈썹이 턱잡겐 누에처럼 꿈틀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몇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노기를 보았던것이다. 늘 우스개소리나 하던 그의 얼굴이 이렇게 험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해본 나였다.

《동무가 소대장동물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런 소릴 하는가. 다시한번 그런 소리를 했다간...》

길삼동무가 눈앞에 주먹을 바짝 들이대며 혼들어보였는데 나에게는 기계공장에서 쇠붙이만 다루었다는 그 주먹이 커다란 무쇠마치같아 보였다.

그가 왜 그토록 성을 내는지 알수 없었다.

무엇때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

오늘은 휴식일이다. 그새 밀린 남성동무들의 빨래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로 나갔던 나는 산나물버치를 앞에 놓고 무슨 생각엔가 꼴똥해있는 영금이를 보게 되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웃것으로 눈굽을 누르는것이였다.

《혹시 이 산나물이 립산마을 어머니가 보내온 그 고사리가 아니니?》

영금이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한참만에야 입을 여는것이였다.

《그 립산마을 어머니가 바로 우리 소대장동지의 어머니래. 그런데 얼마전에 글썸...》

《어마나, 어찌면 어찌면...》

나는 어머니가 보내준 고사리지함을 보고도 묵묵히 하늘가만 바라보던 소대장의 얼굴이 떠올라

부르짖듯 말했다.

《소대장동지 물인정하다고만 보지마. 길삼동무랑 그러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른데는 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대.》

나의 생각을 가늠하듯 영금이가 말을 이었다.

《몇해전 그의 어머니는 이미 불치의 병을 진단받았다. 그때 백두산지구 성지건설에 나오게 되었던 소대장동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슬피 울었다. 이런 소대장동지를 보고 어머니는 백두산이 어떤 산이기에 그런 나약한 눈물을 가지고 가려는가고 하면서 사내의 눈물이 그렇게 해퍼서는 안된다고, 수령님을 따라 산에서 싸운분들이 피로 물들인 땅에 눈물을 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준절히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산에서 싸운분들은 수령님을 따라 나라를 찾는 길을 걸었다면 너는 우리 장군님을 따라 내 나라를 지키고 더욱 부강하게 하는 장한길로 떠나니 백두산에 새겨가는 발자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등을 밀었다. 그때부터 소대장동진 눈물과는 아예...》

《어찌면 어찌면...》

나는 계속 같은 말만 되뇌이였다.

《마침 수술이 잘되어 몇해 견디었는데 이번에 병이 재발하여 그만... 그는 이번에 어머니묘소에 가서도 눈물을 안보였다. 어머니가 노여워할까봐.》

다만 어린 녀동생이 새벽잠에 취하여 밥을 태웠을 때 어머니생각이 나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나봐. 돌격대로 다시 떠나야 할 오빠에게 타진 밥을 차려주며 자꾸 울었을 어린 동생을 보는 소대장동지의 가슴이야 얼마나 아팠겠니? 일전에 타진 가마치죽을 보고 차마 수저를 못드는 소대장동지를 보니 그 생각이 나서 그만...》

그 말을 들으며 나도 울고 영금이도 울었다.

어머니없이 집에 외로이 있을 녀동생이 생각나 울었고 그 모진 슬픔을 목새겨나갈 소대장동지의 심중의 아픔이 못견디게 미쳐와 울었다.

《우리 눈물을 그치자. 소대장동지가 제일 질색하는것이 눈물이 아니니. 그렇지 않아도 매일이 정심이 생일이라면서 이 고사리로 식찬 하나라도 더 보태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만 공연한 소릴 해서...》

영금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나는 내가에 앉아 오래도록 울고 또 울었다. 울면서 후회로 가슴을 쳤다. 소대장동지의 웅심깊은 마음도 모르고 그의 됃됨이를 함부로 저울질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막 미워났다. 용서를 빌고싶었다. 하지만 소대장동지앞에는 차마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길삼동무를 따로 만나 그를 통하여 용서를 빌기로 작정했다. 대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가 수월하니까. ...

소대는 오늘 군당비서처에 올라간 소대장동지를 기다려 벽쩍 끓였다.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였다. 누구나 다 제일처럼 기뻐하며 베풀거렸다. 길삼동무가 앞장에 서서 꽃다발을 만든다, 목마태울 준비를 한다 하며 분주당을 피웠다. 그런데 밤이 이슬해지도록 소대장동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미타하여 밖에 나와보니 대대병실로 질러드는 이갈숲옆에 한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리로 다가가던 나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이갈숲에 홀로 앉아 어깨를 떨고있는 소대장동지를 보았던것이다.

순간 나는 숨이 딱 멎는것 같았다. 그는 분명 울고있었던것이다. 나는 한동안 못박힌듯 서만 있었다. 더 다가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억세인 사나이가 흘리는 눈물일수록 함부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대신 가슴속으로는 불덩이같은것이 짝 차올랐다.

얼마나 참되다고 값비싼 눈물인가. 그는 지금 자기를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워준 아버지장군님과 당의 은정이 너무 고마와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있는것이다. 크고도 무게있는 그 눈물이 가슴에 스며들어서인지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고여올랐다.

길삼동무를 따로 만날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다.

오늘 그는 혼석채취도중 산비탈쪽에서 굴러내리는 돌을 몸으로 막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얼음층이 녹아내리며 갑자기 굴러내린 돌이라 미처 손쓸 사이가 없었다. 길삼동무가 한몸 내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런지 알수 없었다.

후송길에는 소대장동지와 내가 따라갔다.

《내가 지금 어델 가오?》

병원을 얼마 앞두고 의식을 회복한 길삼동무가 묻는 첫말이었다.

《병원에.》

길삼동무를 무릎에 눕혀 안은 소대장동지가 짧막하게 대답했다.

《차, 이런 고놈의 돌때문에 이 오길삼이 전투장을 떠나다니. 이제 조금만 더 땀다밀면 산마루가 보이겠는데... 후 이제부터 내 자리는 한동안 비어있겠군.》

완공의 그날 우리 장군님을 모시려고 넓게 터를 잡아놓고 갖가지 꽃들까지 가꾸어가는 xx 산마루는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우리 장군님을 뵈고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토록 피로와하랴 하는 생각에 눈물이 썩썩 솟구쳐올랐다.

《정심동무, 울지 마오. 그러지 말고 나에게 진빛이 나 갇아주오. 흔들레등판에서 진 설피값이 있지 않소. 그제 아직 내 저금통장에 꼭 박혀있거든.》

길삼동무는 웃으려 했지만 치미는 동통으로 하여 입술만 푸들푸들 떨뿐이었다.

《부르겠어요. 길삼동무, 내 이제 노래를 부르겠어요.》

나는 터져오르는 흐느낌을 누르며 노래를 불렀다. 길삼동무가 늘 즐겨부르는 노래를 말이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봄빛이 질어가는 창문가를 이윽도록 바라보는 길삼동무의 눈에서는 눈물이 서서히 고여올랐다. 나는 그를 차마 마주볼수 없었다. 그 역시 함부로 보아서는 안될 소중한 눈물이었던것이다.

《소대장동무, 저 노래를 듣노라니까 언제인가 소대장동무가 날 보고 백두산에 나오니 스치는 바람결에도 투사들의 발걸음소리가 들려오는것 같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누만요. 그 발걸음소리를 그대로 이어 올려가자고 했는데 난 그만 지각생이 되고말았으니 ...》

《무슨 소릴 하는거요. 우리가 있지 않소. 우리가 이렇게 ...》

소대장동지는 나의 등까지 두드려주며 말했다.

나는 그것이 천백마디의 칭찬보다 더 기뻐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우리라는 대오속에 당당히 들어선 백두산돌격대원으로 자랐다는 말이었다.

《고맙소. 정심동무 참, 내 동무에게 한가지 사죄할 말이 있는데 ...》

《원데요?》

《내 언제인가 동무에게 제발로 걸을 사람같지 않다고 말한적이 있지? 그런데 요새는 동무를 볼때마다 그 말이 속에 맺힌 체기처럼 내려가지 않거든.》

《아니예요. 그때 동문 나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고맙소.》

길삼동무는 지쳤는지 슬그머니 눈을 감았다.

진찰결과 치명상은 아니였다.

후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향의 어머니와 마음속대화를 나누었다.

(그리운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왜 말끝마다 언제면 네발로 걸겠느냐는 소리를 자주 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아요.)

(그제 뭐라구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걸어온 투사들의 발걸음소리를 우리 장군님을 따르는 오늘의 벽찬 시대의 발걸음소리로 이어가는것이라고 생각해요.)

(장하다, 내 딸아! 네가 어찌면 이 예미의 마음을 그렇게도 신통하게 알아맞추니.)

(그건 어머니가 늘 신칙해주셨기때문이에요.)

(아니다. 그건 백두산이 가르쳐준거다. 그러니 백두산바람을 헛맞지 않았구나.)...

언뜻 머리를 드니 멀리 건설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마루에서 밝은 불빛들이 무수히 비쳐왔다. 잠들줄 모르는 건설장의 한밤이다.

하늘의 뭇별들이 다 내려왔는듯 한 그 빛을 따라 나는 걸어갔다.

이밤도 쉬임없이 이어가는 백두의 행군길에 나의 자욱도 새겨가며 생각깊은 백두의 밤길을 나는 걸어갔다.

조국애로 고통치는 한 여성혁명가의 뜨거운 심장에 대한 노래

—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 (제1~2부)에 대하여 —

장희숙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 (제1~2부, 허문길 작)는 지금 독자들속에서 매우 흥미있게 읽히고 있다.

특이하고도 이채로운 첩보세계의 생활을 그렸기 때문일까?

물론 정답소설들은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독자들의 흥미와 극적견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소설들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정답소설이 아니다. 첩보세계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풍기는 남다른 풍격과 독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극적견인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소설의 무게와 품위, 극적견인력은 주인공의 성격미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누구나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천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는 엄숙한 시련의 고비도 넘어야 하고 생명도 바쳐야 한다.》

주인공 남희는 항일의 준엄한 나날로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그 누구도 모르는 험난한 적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우리 혁명의 1세- 여성혁명투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나선 그 순간부터 오직 백두위인 한분만을 태양으로 우러르며 그 빛발로 불게 물드는 노을처럼 삶을 불태운 여성투사! 자신의 청춘과 사랑, 피와 땀모두를 조국에 깡그리 바치는데서 행복을 찾으며 해님을 향하여 경건히 웃기 여미는 여성투사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가.

단순히 매력있는 여주인공이라고만 평하기에는 너무도 숭고하고 영웅적인 성격이다.

독자들은 소설의 마감장을 쉽게 덮지 못한다.

그리고 사색한다.

수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열렬하기에 원쑤에 대한 증오 또한 남달리 서리발같은 처녀, 그 사랑과 증오가 불타올라 예지와 슬기로 번뜩이기도 하고련련한 애정과 부드러움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성의 밝은 등불로도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국에 바치는 그의 헌신성은 영원한 삶의 메아리되어 우리들의 심장을 끝없이 뒤흔든다.

역사적사변과 주인공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 (1~2)에서 주인공

남희는 벌써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혁명가이다.

일제를 때려부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미제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변함없이 비바람 사나운 적구의 길을 걸으면서 어버이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남모르는 공헌을 한 그의 성격은 한마디로 영웅적성격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영웅적성격! 결코 쉽게 외울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코 남다른 성격의 소유자는 더구나 아니다.

지난날에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걸출한 사람만을 영웅이라 일러왔지만 오늘날에 와서 영웅이란 칭호는 자기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안을 수 있는 값높은 삶의 칭호이다. 그러기에 평범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조국을 보위하는 싸움에서는 적의 화구를 막는 전투영웅으로, 사회주의건설장에서 혁명적위훈을 떨치는 로력영웅으로, 자기의 초소를 묵묵히 지켜가며 값높은 공헌을 하는 숨은 영웅으로도 되는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기에 소설문학이 창조하는 주인공들 역시 그러한 영웅적성격의 소유자들로 수놓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포성없는 전구》의 주인공 남희는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는 두차례의 전쟁에 참가하여 적구에서 남모르는 위훈을 세운 여성영웅으로서의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남희의 성격형상에 대하여 룬할 때 제일 먼저 관심을 돌리게 되는것은 그의 영웅성이 남다른 격과 폭을 가지고 이채롭게 창조되고있는 점이다.

영웅에게는 응당 영웅다운 위훈이 있어야 한다.

남희의 영웅성은 그가 세운 자랑스런 영웅적위훈과 정비례한다. 즉 남희의 영웅적성격이 남다른 격과 폭을 가지고 우렷이 솟아나게 되는것은 그의 영웅적위훈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련결되는 준엄한 력사적사변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소설에 형상되어있듯이 그가 몸을 잠그고있는 생활환경은 특수한 첩보세계이며 그의 생활 역시 결코 평범치 않은 적구활동이다. 그는 조국의 운명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심각한 력사적사변과 대결하고있다.

맥아더, 요시다, 리승만의 3자회담과 그로 이어진 조선전쟁도발계획, 인천상륙작전과 원자탄 투하계획 ... 우리 조국력사에서 결코 범상치 않은 역사적사건들이다.

남회의 운명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사건들과 얽혀져있으며 그는 이 사건들에 도전하는 성격으로 형상되었다. 그는 조국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 역사적사건들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면서 마지막까지 힘차라는것 조국에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물이다.

채병덕을 분발시켜 도표3자회담내용을 탐지하는 사건, 미사와군용비행장건설을 파탄시키는 사건, 《태풍1호작전》의 기만성을 일아내어 제때에 인천상륙작전의 정확한 내용을 조국에 통보하는 사건, 최종전의 민족애를 자극하여 원자탄투하계획정보를 입수하는 생활, 죽음을 각오하고 놈들의 추격을 맞받아가며 게릴라전에 관한 정보를 조국에 보내는 생활 등은 남회의 영웅적성격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생활들이다.

남회는 항상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주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고심하며 일단 정보를 입수하면 그것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작품에서는 남회의 이러한 성격을 역사적사건을 놓고 이루어지는 적들과의 긴장한 정신적대결과정과 깊이있는 내면심리세계묘사를 위주로 하여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남회의 영웅적위훈은 총포성없는 전구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위훈이다. 겉으로는 레사로와보이는 담화나 사교적인 교제이지만 남회의에게는 임무를 수행하는 긴장한 전투과정, 심각한 정신적대결과정으로 되며 그런 순간순간들에 남회의 값비싼 위훈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남회의 위훈이 발휘되는 이런 장면들에 력점을 찍어 선명한 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남회의 세련되고 리지적인 성격, 기지있고 정열적이면서도 품위가 있는 성격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월로우비와의 사업상 담화와 리승만, 채병덕과의 자연스러운 사업과정에 조선전쟁도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장면, 월로우비에게 공격을 가하여 인천상륙작전의 내막을 알아내는 장면, 최종전을 자극하여 원자탄사용계획을 알아내는 장면 등이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이 장면들에서 작가는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공격도 하고 우회도 하면서 자기가 목적하는데로 적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해나가는 남회의 세련된 풍모를 립기웅변의 기지있는 대사와 행동, 심리묘사로 밀착된 생동한 화폭속에서 창조하고있다.

남회의 영웅적성격을 그리는데서 소설에서는 또한 위훈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 체험하는 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는 적들의 음모와 모략으로 인하여 산생되는 준엄한 사건들이 조국의 운명에 끼칠 후파를 생각하면서 가슴아파하고 어떻게나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가 두드

러지게 묘사되어있다.

갓 해방된 조국에 또다시 불을 지르려는 놈들의 모략을 알아냈을 때의 심리를 묘사한 대목을 보자.

《머리속에 새겨넣은 맥아더의 <11개조 훈령>들과 요시다, 채병덕과의 담화를 한구절씩 되살려보는 남회는 온몸을 옥죄이는 아픔과 불안과 분노를 견잡을수 없었다.

<조국은 위협에 처하였다! 조국은 위협에 처하였다!>

온 누리에 이 소리만이 천둥소리처럼 짹 차서 그냥 산하를 진동하고 가슴을 후려때리는듯 했다. 그는 서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못별들이 반짝이는 저 하늘밑에 조국이 있다.

이밤도 조국은 고요한 안식에 묻혀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있을것이다.

보다 행복한 래일을 위하여 단꿈을 꾸고있을것이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아. 그대의 운명은 어찌하여 이리도 곡절이 많으냐!)

한없는 비분이 가슴에서 뿌리지 타오른다.

남회는 소리쳐 울고라도 싶었다.

자신도 견잡을새없이 두볼로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해방이 된지 이제 몇해가 됐다구 미국놈들이 또 불을 지르려는건가

점점 분노로 끓어번지던 감정을 이겨내며 리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울리었다.

(한시바빠 위험신호를 보내야 한다. 신호를 보내야 한다.)

얼마나 송고하고도 열렬한 조국애의 분출인가.

자신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을 떼어놓고 생각해본적이 없기에 조국을 위한 그의 심장은 이렇듯 뜨겁고 열렬하며 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 또한 활화산처럼 폭발적이다.

소설의 폐지마다에는 조국애로 불타는 주인공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열렬한 사랑의 고백마냥 노래처럼 울리고있다. 독자들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하는 그 심장의 고백을 조용히 음미해보느라면 저도 모르게 《그대가 한 그루 나무라면서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라는 노래선율이 가슴을 두드린다.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기꺼이 바쳐가는 남회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그야말로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흩이 되어 뿌리 덮여주리라》는, 《마지막 한방울 다할 때까지 놓위는 고동을 더해주리라》는 열렬한 조국애의 분출인것이다.

참으로 인간이 지닐수 있는 애국심의 정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소설에서는 남회의 이런 송고한 정신세계를 명료하면서도 박력있는 문제로 속도감있게 묘사하고있다.

심리묘사에서 작가는 심리분석보다도 속대사와 주정토로를 위주로 하는 직접적인 심리토로의 수법을 간

결한 문장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태풍작전》의 기만성을 포착하는 순간의 심리 묘사를 레들어보자.

《어째서 전쟁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전략적의미를 장엄하게 선언한 <미중유작전>의 기안자가 정보국장인가.

그것은 마땅히 작전국장 시몬트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견 상식이다. 아, 내가 단순하고 명백한 것을 놓치고있는게 아닌가,

그러면 《태풍작전》은 월로우비의 직능에 속하는 작전일것이다.

정보계통의 직능에 속하는 작전의 성격은 두말할것없이 모략이다.

번쩍! 번개가 쳤다. 번쩍! 또 한번!

<모략!>

월로우비의 엉큼한 미소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가. 월로우비는 웃고있다. ...

그 웃음을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운명과 관계된다. 빨리 해명해야 한다. 그 희귀한 웃음에 서렸던 걸끄러운 의혹을 한시바삐 말짱 가서내야 한다.》

얼마나 명확한 심리가 박력있게 펼쳐지고있는가.

이런 묘사수법은 작가의 개성적인 특성일수도 있으나 항상 긴박한 정황속에서 기민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고도 결단성있게 행동하여야 하는 적구의 녀성투사를 그리는데서는 매우 합리적인 내면 심리묘사수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소설작품은 조국에 바치는 한 녀성투사의 심장의 노래이다.

독자들은 조국과 력사앞에 세운 주인공의 위훈의 높이에도 경탄하지만 보다는 그 위훈을 날게한 고결한 정신세계-열렬한 충정과 애국으로 불타는 심장의 뜨거움에 숙연히 머리숙인다.

인생관의 대결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1~2부)의 주인공 남희의 영웅적성격은 적들과의 첨예하고도 심각한 갈등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있다.

남희는 류달리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그 성격을 발현시킬수 있는 갈등 역시 강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소설작품에서는 주인공과 상대하는 갈등대상들을 이에 맞게 설정하고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첩보활동을 그린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갈등을 사건전개의 기본추동력의 견지에서만 형상하고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소설작품에서 주인공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고 극적인 사건과 정황을 련속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물론 갈등이다. 이 갈등에 의하여 사건선이 시종일관 굴곡과 탄력성을 가지고 극적으로 전개

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는 보다는 갈등을 주인공 남희의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선명하게 대조시키는 인생관의 대결과정으로 형상의 각광을 돌리고있다.

남희와 적들과의 타협없는 대립과 투쟁-이는 조국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놓고 벌어지는 혁명가의 고결한 인생관과 개인리기주의적인 부르주아 인생관과의 첨예한 대결이다.

가장 인상적인것은 바위쇠(마쯔이-톱스)의 형상이다.

남희의 옛 애인이었던 그는 바위쇠라는 토색질은 이름이 일본의 마쯔이로, 미국의 톱스로 변했듯이 시대에 따라 조국을 바꾸어가며 살아온 인간이다. 그러한 인간의 운명은 얼마나 비참했던가.

20대의 청춘시절에 남희와 함께 혁명의 길에 몸바칠것을 결의했을 때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을수도 있었던 그였다. 허나 남희와 같은 신념과 지조, 량심이 부족했던탓으로 전향서에 손도장을 누른 순간부터는 줄곧 조국배신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결국 인간적으로는 안일과 향락에 마취된 타락한 동물로, 정치적으로는 미제의 충견으로 더러운 목숨을 끊게 되는것이다.

조국을 위한 참된 인생관을 지니고 변함없이 그 신념과 지조를 지켜가는 남희와는 얼마나 대조되는 인물인가.

톱스와는 대결은 결국 조국을 버린자와의 인생관의 대결이었으며 그 대결속에서 주인공 남희의 성격은 더욱 빛나는것이다.

허나 작가는 톱스의 운명을 두고 그저 무작정 타매만 하지는 않는다. 한결을 더 나아가 같은 겨레로서 가슴 절절하게 호소한다.

행복할수도 있었던 바위쇠가 왜 마쯔이, 톱스라는 남의 나라 이름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해야 했던가. 그것은 조국을 잃었던탓이다.

조국이 없었기에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원수의 무리에게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인간이하의 개같은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조국을 영원히 우리의것으로 지켜야 한다. 왜냐면 조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삶의 요람, 어머니품이기에 ...

조국과 인생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하는 생활철학이다.

작가는 톱스의 운명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교훈을 통하여 이러한 생활철학을 도출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증폭시키고있으며 남희의 성격적무게를 강조하고있다. 이렇듯 톱스는 조국과 인생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남기면서 남희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부각하는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작품에 등장하는 맥아더나 월로우비, 화이트, 카농 등도 이런 견지에서 성공한 형상들이다.

이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분투한다는 거물급 인물들이다.

맥아더는 《대아메리카의 힘》의 상징이며 《백전로장》이라고 호언하는자이고 월로우비는 미국의 리익을 자기의 신념으로 떠받들고있다고 자처하는 첩보계의 우두머리이며 색정과 황금에 취한 강패기질의 카농까지도 이런 측면에서는 다를바 없다.

나이로 보나 인생경험으로 보나 남희와는 대비도 할수 없으리만큼 로희한 적수들이다. 그러나 한갓 처녀에 불과한 남희와의 대결에서는 모두가 쓰디쓴 패배의 고배를 들이키게 되며 정신적으로 무릎을 꿇는 신세가 된다.

무엇때문인가?

소설작품에서는 그 요인을 명백히 인생관의 차이에서 찾고있다.

남희는 조국을 자신의 운명과 하나로 생각하며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다.

그러나 실용주의적인 미국식인생관이 체질화된 적수들은 말로는 미국의 리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개인의 영달과 안일, 명예만을 추구하며 자기를 위해서는 나라의 운명 같은것은 순간간에 개꿈처럼 여기는자들이다.

맥아더의 허장성세와 소란스러움의 막뒤에는 언제나 자기의 명예와 권위가 첫자리에 놓여있다. 그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의 인격을 지켜나가는 《아메리카의 신사》로 불리워지는 월로우비의 《인격의 탑》도 결국은 자기 개인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허상에 불과한것이다.

색광이며 저돌적인 카농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딸라에 중독된 황금의 노예들이며 자기를 위해서는 나라의 운명도 서슴없이 지르밟을수 있는 개인주의적인생관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다를바 없다. 그러기에 자기와 조국을 하나의 운명으로 여기는 남희와의 대결에서 백패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체포된 남희와 월로우비와의 담화장면은 주체적인생관과 미국식인생관의 본질적차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심각한 대결이라고 할수 있다.

월로우비는 체포된 남희에게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기한다. 남희가 2중첩보역을 놀았다는 문서에 서명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며 고스란히 그를 조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것이다. 이는 조선전쟁과 관련된 엄청난 비밀들이 남희에 의하여 북조선에 알려졌다는것이 판명된 조건에서 월로우비 자신이 국가앞에 진 죄를 회피하고 목숨과 명예를 부지하자는 일종의 비굴한 구걸이며 책략이었다. 그야말로 실용주의적인생관에 물든 미국식사고방식이라 할수 있다.

남희는 까마득히 높은 인격의 언덕에서 월로우비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한 동지는 나라지키는 싸움은 자기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사상과 견해, 자기의 인생과 미래,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는 싸움이라 했죠. 희여진 머리는 염색하면 되여

도 한번 뚫어진 인생은 염색할수가 없죠. 이견걸지 않은 내 인생의 교훈이에요.》

얼마나 대조되는 인격의 차이인가.

하늘과 땅과 같은 이 차이는 그들의 인생관의 차이에서부터 오는것이다.

원래 인간의 성실성과 순결이라는 인격의 고결한 가치를 리해못하는 월로우비조차도 남희의 이런 인생관앞에서는 적수이지만 탄복하여마지 않으며 깊이 머리를 수그리는것이다.

《누가 말했더라.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도 향기를 풍긴다고... 아까운 녀자요. 아까운 녀자지 ...

저런 녀성을 30대에 시들게 하는건 인류문명을 욕되게 하는 하나의 범죄야... 스미교가 아니라 남희란 말이지. 음... 맥아더가 원래 상대를 잘못 골랐지. ...》

월로우비의 이 단순치 않은 고백은 남희 개인에 대한 평가뿐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하여 본 조선인민에 대한 경탄, 자신들의 패배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이었던것이다.

결국 월로우비와의 대결은 한갓 그들 개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주체의 인생관과 실용주의적인 부르조아인생관과의 대결이며 더 나아가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이었던것이다.

남희와 적들간의 갈등을 이렇듯 인생관의 대결로, 조선인민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로 승화시키고 조선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생활적으로 심오하고도 폭넓게 일반화한데 바로 이 작품이 가지는 다른 하나의 의의가 있는것이다.

남희와 적들과의 인생관적대결을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는 갈등대상들을 격이 높게 형상하고 있다.

남희가 대결하고있는 적수들은 다 자기 나름의 《생활철학》과 《신조》, 그에 따르는 《재능》과 《인격》도 갖추고있는 만만치 않은자들이다. 그러기에 남희의 투쟁이 쉽지 않으며 그의 성격이 더욱 높이 부각되는것이다.

작가는 적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성격적특성들을 매 인간들의 고유한 기질과 인간적바탕속에 굴절시켜 생동한 개성으로 창조하고있다.

맥아더는 무관답게 선이 굵으면서도 자존심이 강하고 허장성세하는 인물로, 월로우비는 신사다운 《인격》과 《인정》이 있으면서도 로희한 첩보두목으로, 화이트는 메마르고 딱딱하면서도 실무에 빈틈이 없는 인물로, 카농은 주색에 물젖은 방탕한 기질이면서도 처세에 능한 음흉한 인물로 개성화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제나름대로 개성적이고 격이 높은 적수들이 남희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펼쳐나감으로써 남희의 성격을 더욱 훌륭히 창조하였던것이다.

적들과의 인생관적대결을 통하여 남희의 성격을 부각하는데서 소설에서는 극적정황도 잘 탐구하고있다.

그 누구의 방조도 없이 단신으로 맥아더사령부에 침투하여야 하는 정황, 조국으로부터의 연계가 끊어진 고립무원한 정황, 정체가 폭로되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할 정황, 놈들에게 체포되는 정황...

걸음걸음 가로놓인 정황들은 그야말로 견인불발의 의지와 창조력을 요구하는 가시덤불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희는 주저않지 않는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맥아더사령부에 침투하여야 할 정황앞에서 남희는 우회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카논의 강패적인 행위를 방패삼아 주동적으로 월로우비에게 공격을 들이대어 자연스럽게 그 길을 열어놓는다. 이 생활을 통하여 작품에서는 슬기와 립기옹변의 기지, 담대성을 지닌 남희의 성격적특질을 잘 발현시키고 있다.

조국과의 연계가 끊어진 정황속에서도 남희는 동요하거나 주저않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싸움의 길을 중단없이 걸어간다. 남희의 견인불발의 의지와 자각적인 헌신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조국에 대한 헌신성으로 일관된 남희의 인생관이 뜨겁게 발현되는 정황은 놈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이다.

놈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만신창이 되고 생명에 대한 담보가 없는 철창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카논을 리용하여 극동군사령부에 《붉은 마녀사냥》의 태풍을 몰아옴으로써 사실상 사령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허약케 한다.

그야말로 마지막과 한방울까지도 조국에 바치려는 고결한 인생관의 발현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혁명가가 지닌 주체의 인생관은 이렇듯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위력한 것이다.

리상화된 인물은 아니다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1~2부)의 주인공 남희는 영웅적성격이지만 결코 리상화된 인물은 아니다.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여성정보일군인것으로 하여 자칫하면 리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사실상 작품에 형상되어있듯이 평범치 않은 정황과 환경속에서 포획한 적들과 맞서 싸우는 남희의 세련된 형상은 놀랍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다.

허나 작품속의 남희는 현실을 초월한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은 아니다.

세상에 완성된 인간이 없듯이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실패와 우여곡절, 번뇌와 고민이 있는 것이다.

첩보일군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남희는 로숙하다기보다는 불같이 격렬한 성격이다. 사랑과 증오가 남달리 명백하고 격렬한것으로 하여 그는 자신을 건잡지 못하고 감정 그대로 행동하는 때가 많다.

도표3자회담과 《11개조 훈령》에 관한 정보로 하여 조국이 또다시 더 큰 전쟁의 불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것을 예감하며 채병덕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생활, 원자탄사용계획에 관한 정보를 터놓는 최중천에게 격렬한 반격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의혹과 자기식의 판단을 가지게 하는 생활 등은 첩보일군으로서 금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하기에 그는 인천상륙작전의 파탄으로 맥아더사령부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을 때조차 승리의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행동함으로써 의혹속에 남희를 주시하던 월로우비에게 확정적인 단서를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다.

남희는 여성으로서의 약점도 가지고있는 인물이다. 톰스와 관계가 전형적이다. 그는 톰스가 미국놈의 개로 굴러떨어졌으며 자기의 본색을 가장 잘 알수 있는 위치에 서있다는것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단호하게 제거하지 못한다. 옛 애인이었다는 야릇한 여성적인 감정의 파동일수도 있다. 여하튼 톰스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하였던 결과로 그는 마지막까지 카논의 지킴은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걸음걸음 암초에 부닥치는 것이다.

이포나 겐지에 대해서도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일종의 도의적인 감정때문에 자기 사업권내에서 쫓아버리는것으로 처리한다.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놈들의 도전에 부닥치는 것이다. 이처럼 남희는 여성적인 약점도 있고 격렬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실수도 저지르는 현실적인 인간으로 형상되어있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일을 그르칠번도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안겨오고 성격적매력의 향기가 강한것이 아니겠는가.

소설에서는 남희를 개성화함에 있어서 그의 실수나 약점을 인위적으로 덧붙이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투명하면서도 격렬한 인간적바탕에 근원을 두고 형상하고있다. 즉 일정한 정황과 환경에서 남희만이 체험하는 독특한 심리세계와 밀착시켜 그의 실수나 약점을 형상하였기때문에 남희의 성격과 부조화를 이루거나 인위적으로 안겨오지 않으며 남희로서는 응당 그럴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공감되는 것이다.

탐정소설의 혁신적면모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1~2부)가 어떤 성격의 소설인가를 론할 때 그것은 명백히 정치정탐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탐정소설이 정치소설화되어가고 문학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것이 세계탐정문학의 추세라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오늘날에 와서 탐정소설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전쟁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반대하는 진보적인류에 많이 기여하고있다.

이 소설작품의 혁신적면모에 대하여 론할 때 우선 평가할것은 지성세계가 높은 측면이다.

물론 작품의 지성도는 내용과 형식의 모든 요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발양되는 특성이기에 그 어느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기는 어렵다.

이 작품의 지성도는 무엇보다도 길고 풍만한 인식적내용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수 있다.

사람들은 작품을 통하여 자기보다 더 높은 지적세계를 알게 될 때 많은것을 배우면서 그에 매혹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커다란 역사적사변으로 되는 역사적사건들을 다루면서 그 정치적본질을 예술적으로 잘 해명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조선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정세와 령장들의 움직임을 세계적판도에서 폭넓게 고찰하면서 조선전쟁의 도발자는 과연 누구이며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승리할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역사의 물음에 무게있는 해답을 주고있다.

인천상륙작전과 원자탄사용계획 등의 정치사변들도 생동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그 본질을 정상함으로써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서의 미제와 일본반동들, 리승만역도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준엄한 역사의 고발장으로 만들었던것이다.

역사적사변들에 대한 이런 깊이있는 형상은 력사뒤에 숨겨진 생활적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파헤치고 예리하게 분석한 생동한 화폭인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많은것을 알게 하고 사색케 하며 특히 새 세대들에게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이 측면에서 론의할 점은 작품전반에 흘러넘치는 이런 지적내용들이 작품세계와 유기적으로 련관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때문에 소설의 지성도를 더 우렷이 분석한 생동한 화폭인것이다.

역사적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역시 작품의 품격과 지성세계를 높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도식적인 기존관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력사라는 거울앞에 인물들을 세워놓고 엄정하게 재평가하고있다. 그리하여 조선전쟁에서 추악한 역할을 담당한 맥아더, 월로우비, 화이트, 카농 등의 인물들을 명확하게 형상하고있으며 리승만역도의 매국배주적인 정체를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이 작품의 지성도는 또한 주인공 남희의 리지적인 성격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주인공 남희는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일관된 높은 정신력과 함께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춘 리지적인 인물이다.

적구에서 그가 모든 적수들을 압도할수 있는것은 뛰어난 미모보다도 도고하면서도 녀성적인 품위가 있는 리지적인 성격의 매력에 있는것이다. 그의 리지적성격은 흐지부지하지 않는 도고성과 함께 자기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적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납득시키기도 하고 놀라게도 하는 세련된 행동과 대사형상들을 통하여 많이 강조되고있다. 첩보의 질에 대하여 론하는 월로우비와의 대화, 리승만의 자작시를 읊어 대변에 그놈을 감동시키는 장면 등은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렇듯 주인공 남희의 리지적성격은 작품형상 전반의 지성세계를 높여주고있으며 이 소설작품의 지성도를 대표하고있다.

이 장편소설의 품격은 문학화의 수준이 높은데서도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첩보세계를 그린 정람소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독자들이 예상할수 없게 사건을 어떻게 엮어나가는가 하는 사건추리과정과 어떤 수를 써서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알수 있다.

이는 정람소설들에서 사건적인것이 매우 중시된다는것을 의미하고있다.

그러나 《포성없는 전구》는 이런 사건적인데 집착되지 않고 철저히 태양의 노을처럼 삶을 빛내이는 한 녀성투사의 성격창조를 기본형상과제로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이 작품은 조국에 대한 참된 사랑, 진정한 조국애는 무엇인가 하는 중량감있는 주제를 제기하고 남희의 영웅적성격을 통하여 그에 대한 무게있는 해답을 주고있다. 그러므로 령기적인 사건이나 정황들을 엮은 사건선이 아니라 조국애로 일관된 남희의 성격이 발현되는 생활선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의 대를 세우고있으며 형상전반이 주인공의 불타는 조국애가 발현되는 숭고한 영웅사시사로 엮여지고있다.

이 소설의 문학성은 묘사의 높은 수준에 의하여서도 담보되고있다.

장편소설의 묘사에서 특징적인것은 생동한 회화성에 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남희의 위훈은 총포성 울리는 격전장이나 벽찬 건설장에서 눈에 띄이게 이룩되는 위훈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속에서 보이지 않게 이룩되는 특수한 위훈이다. 따라서 소설에서는 그의 위훈이 이룩되는 생활장면들에 력점을 박아 선명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서는 남희의 세련된 대사와 순간심리. 그로부터의 담대한 행동으로 일관된 장면들을 생동하면서도 박력있게 묘사함으로써 남희의 성격과 위훈을 인상깊은 화폭으로 감득시키고있다.

이 소설의 장면장면들은 모두가 다 기쁨지고 생동한 화폭들로 이루어지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장편소설의 묘사에서 특징적인것은 심리묘사에서의 명료성과 박력성이다.

작가는 매 정황에서 체험하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세계를 《심오하게》 분석한다고 하면서 진부한 설명으로 대치하지 않고 대체로는 직접심리묘사의 수법으로 명확하면서도 속도감있게 집약화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주제명역으로 넓혀나가는 심리세계의 진폭을 보장하고있는것이다.

매 정황하에서 인물들이 체험하는 순간심리의 정확한 포착과 집약적인 묘사, 심리의 본질에 대한 지성적이면서도 깊이있는 분석 등 묘사에서 발휘된 작가의 실력에 대하여서는 론의할 점들이 많다고 본다.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1~2부)가 독자들속에서 일으키는 파문은 크다.

한통의 편지가 주는 여운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인간의 수업은 교정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생활의 매 순간순간을 이어 한생에 계속되는것이 수업이다.

길가에서 문득 스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몸가짐에서도, 전차나 버스안에서 저도 몰래 새겨들게 되는 어린 아이들의 말속에서도 백발의 이 늙은 마음을 뭉클 짓게 하는 깨달음과 진리를 새겨안을 때도 있다.

어깨에 멍이 지도록 가대기를 끌고 피와 땀을 묻어 가꾼 낱알을 빗값에, 땅값에 다 털리고 나앉아 겪는 배고픔속에서 서러움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자존심이 마음속에 꿈틀대던 나의 유년시절에도 사회의 불평등과 착취자들에 대한 계급적 분노와 각성이 나를 의식하게 했고 자각하게 했다.

돈이 없고 나라가 없던탓에 내 또래 잘사는 집 동네아이들이 흰줄두른 모자에 《中》(중)자를 새긴 검은 모자를 쓰고 학교로 오갈 때면 끝짐을 지고 휘청대는 배잠뱅이 자신을 보며 불평등한 사회, 빼앗긴 땅, 외세에 강점당한 조국의 현실을 놓고 것처럼 서럽게 울어보면서 방울방울 그진한 피눈물에 젖던 두주먹이 들이칠 과녁을 찾아 성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가.

배고픔과 피라는 갈망에 용수던 향학열...

설움과 고난,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인간은 인식하며 성장하는것이다.

참기 어려운 고문과 전향을 위한 회유...

생사를 같이하던 귀중한 동지들의 희생속에서 이어지던 기나긴 수십년세월의 옥중투쟁속에서도 사상과 신념은 퇴색하거나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고해지고 조숙해지고 강해진다는것을 나는 한생으로 체험하였다.

속일수 없는것이 인간의 량심이다.

량심이 있어 인간은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수 없는것이다.

량심의 인간이기때문에 달리는 살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일 그 누가 자기 나라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고 자기 조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먹거나 조국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몸만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그러한 인간을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것입니다. 혁명적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그렇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참된 삶을 지키는 인간의 근본이다.

신념과 의리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수 있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때문이다.

나에게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오며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 **김일성** 종합대학교정에서 참다운 주체의 혁명리론과 위대한 주체의 인생관을 배우며 체질화하던 행복한 나날들과 함께 내 오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지방공업 도시의 한 대학에서 오래동안 교편을 잡고있을것으로 하여 나에게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

그들중에는 생생히 이름과 나이, 성격까지 그려낼수 있는 제자들도 있고 전혀 표상이 떠오르지 않는 제자들도 있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나는 제자들의 편지를 매일과 같이 받고있다. 한때 자신들을 배워준 선생이 비전향장기수라는 그 공지와 자랑으로 해서 나를 축하하고 문안하는 편지들이다.

그들속에는 당일군, 장령들도 있고 과학자들과 큰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도 있으며 이제는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제자들도 있다.

그들의 편지를 받을 때면 나는 오래도록 서재에 앉아 펼쳐까지 하나하나 음미해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그려보곤 한다. 어느 시간, 어느 기회에 그를 칭찬했거나 혹은 별치 않은 과제수행을 놓고도 추궁한적은 없었던가 하고 그들모두의 모습을 그려보느라 잠을 잊는 때도 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여러통의 편지를 나에게 보내며 자기의 지난 생활과 이제는 년로하여 년로보장을 받고있다는 한 제자만은 솔직히 처음엔 그 얼굴표상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어느날 그가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이 번거로와 저녁산보길에 나서서도 줄곧 그 편지의 주인공을 생각하며 저녁거리를 걸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어깨동무하고 토끼뽀하며 걸을 스치던 여럿의 아이들이 내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용모로 보나 아무 특별한데가 없는 이 늙은이를 가리키며 《비전향장기수할아버지야!》라고 하면서 존경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길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진정이 어린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그 무슨 특정한 인간처럼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길거리에서 한두번 겪은 일도 아니여서 그저 답례인사를 하며 걸음을 옮기자니 생각은 더욱더

깊어졌다.

《비전향징기수!》 -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존경어린 눈빛으로 진정을 담아 보내는 인민의 축복이 아닌가. 정녕 그 부름은 역사가 주는 고귀한 칭호이며 한번 받아안은 믿음, 한번 지닌 신념을 끝까지 지킨 인간이 지닐수 있는 최상의 영예가 아닌가,

이제는 습관되어 범상히 받아들이던 그 부름에 대한 생각은 편지의 구절과 함께 새롭게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내가 그 부름을 지닐수 있는 인간이라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온 제자나 우리 인민모두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나는 그날 자신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며 밤이 이속해지도록 거리를 거닐었다.

지난날 그 모친 고난과 시련속에서 내 마음이 약해진적은 없었던가. 오늘날 무상의 행복과 믿음속에 산다고 또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다고 계속되는 혁명의 길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생각은 없었던가.

이날 나는 생각이 많아 서재에 앉아 서투른 글귀를 고루며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가려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와 행복했던 대학시절과 교단에 섰던 나날을 더듬던 나의 추억속에 문득 하나의 일화가 떠올랐다.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놓고 진행하는 토론시간이었다.

열기던 토론들에 이어 《불후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가 한번 설명해보라는 나의 제의에 막힘없이 대답하던 학생의 초상이 똑똑히 나의 눈앞에 그려졌다. 하많은 추억과 함께 그때의 심정까지 방불히 편지속에 써보내온 글을 읽으면서도 잘 떠오르지 않던 모습이 그 열정적인 목소리와 눈빛까지 생생히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배고픔보다도 배움에 더 굶주렸던 나는 학생들에 대한 요구성도 높였으며 명제 하나, 단어 하나의 뜻도 완전히 리해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라가며 인식시키고 받아내었다.

그때 그는 《불후의》라는 단어를 놓고 그 뜻과 의미, 문장활용범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정확히 대답하였다. 그는 모든 문제를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본질과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리해하였으며 언제나 새로운것을 지향하고 사색하면서 받가는줄 모르고 독서하던 수재형의 정열가였다.

나는 그를 한번 비판한적이 있었다. 아니 비판이라기보다 권고였다.

나는 좀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매 학생들의 성격과 행동, 말씨에까지 신경을 썼으며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갖추는데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말해주곤 하였다. 그것은 나의 체협속해서 굳어진 진심이었다. 그것으로 하여 내가 학생들과 잘 어울렸고 서로 사제간의 간격을 넘어 마음을 터놓고 나누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 제자를 비판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의 사상과 내용을 해설하면서 명제들도 원문도 없이, 토하나 틀림없이 깊이있게 설명한 그날이였다.

그처럼 머리가 비상하고 기억력이 남달랐으며 응용능력 또한 깊이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제일 먼저 연락에 나와 일사천리로 해설하는 그 학생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자고자대하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선명치는 않아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것은 나로서 물어둘수없이 자신의 진심을 터놓게 하였던것이다.

그렇지는 않아도, 그렇게 될수 있는것도 미리 막는데서도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나는 자신을 과신하며 로작원문도 없이 명제를 인용하는 문제와 학술적인 토론을 그 누구의 총명함을 과시하는 마당이 아니라는것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조용히 권고했다.

나는 그때 그의 눈빛에서 진심으로 되는 자책을 보았다. 바로 그였다. 후날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분야에서 능력있는 기술자의 한사람으로 국내외에 널리 이름을 날린 그였다.

수많은 발명과 창안, 기술혁신인들을 내놓아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실로 큰 기여를 하였으며 그가 남긴 가치있는 논문자료들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전문가들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것으로 하여 그는 당당히 관록있는 과학자로 인정받고있었다.

물론 이 모든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국의 품에 안긴후 그의 편지를 여러번 받아보고 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가 살고있는 곳에 가서 그를 만나 지내는 과정에 알게 된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글에서 그보다는 그가 편지에서 썼던 내용만을 놓고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의 강대성에 대하여 터놓고싶다.

나는 그가 보내왔던 편지의 구절을 그 무슨 시구처럼, 격언처럼 언제나 되새겨보곤 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

전향은 감옥에서만 하는것이 아니였습니다.

고급승용차안에서도 호화주택안에서도 있었습니다. ...》

정말 심각한 경구였다.

그는 편지에서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어느날 외국의 한 기술대표단 성원들과 면담을 하게 되었던 일을 적어보냈다.

면담이 끝나고 돌아갈무렵, 외국기술대표단의 한 성원이 그를 조용히 만난 자리에서 세계 여러 나라 말에도 능숙한 당신같은 인재가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하느니 국적을 바꾸고 해외로 나간다면 고급승용차는 물론 호화별장도 가지고 잘살수 있다는데 대하여 내놓고 말했다는것이다.

그는 그때 즉석에서 대답하였다고 한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두뇌류출과 망명한 지식인들의 불행한 현 세계실태를 레증하면서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서 사회주의조국이 있다고 당당히 말해주면서 일시적인 고난이 있다고 신념을 버리고 자기자신만의 안락을 위해 자기 조국을 버리고 키워주고 배워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 살 인간이 이 땅에는 한사람도 없다고

배심있게 긍지높이 말해주었다.

그렇다, 이 땅에는 그런 인간 아닌 추물은 하나도 없다.

신념, 그것은 생활을 기본터전으로 공고화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그 우월성을 날마다 깊이 느끼며 사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자그마한 동요나 흔들림도 없다.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신념의 강자들에게만 있다.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박차고 사나운 광풍에도 끄떡없이 절해고도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며 붉은기아래 한번 다진 맹세를 지켜 과감히 투쟁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모두 신념의 강자들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배짱도 있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신념이 강한 인민이 뭉친 나라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라는 무기로 언제나 승리한다.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미래를 개척

해나가는 강의하고 영웅적인 인민이다.

이 땅 그 어디 가나 만나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내 이름보다 비전향장기수라고 나를 부른다.

실로 조국의 품에 안겨 내가 받아안은 날마다의 그 큰 감동은 비전향장기수라는 부름을 나의 그 제자에게도 하고싶다. 아니 우리 인민모두를 신념의 강자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은것이 진정의 고백이다.

길가와 공원에서, 집회장에서 레사롭게만 보이는 평범한 그 모든 사람들, 공장과 농촌, 군부대들에 가보아도 누구나 다름없이 수수하고 순박한 그들모두가 신념의 제일강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슬하에서 누구나 다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이런 강자들의 대오속에 나는 평범한 한 전사일따름이다.

길지 않은 제자의 편지가 주는 이 여운은 위대한 선군의 내 조국에 숨결처럼 꼭 차흐르는 시대의 메아리가 아닌가!